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6월 1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58호 2017년 8월 2일 수요일

남북교류·가야사·과거사 등 국정과제 대응 준비 나서야

文정부 국정과제 불교계 미칠 영향은?

문재인 정부가 향후 국정운영의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사실상 향후 정부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는 문화 · 통일 · 사회 분야에서 불교와 직 · 간접적인 정책 기조들이 담겨있다.

대북교류 재개, 선도 역할을

가장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분야는 통일 부문이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남북관계 발전(통일부)'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종교 분야 남북 교류 재개를 꼽고 있다. 종교 교류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등 불교계 통일사업 단체들에게는 단비와 같다. 이전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도적 지원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개점휴업' 상태였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선적으로 불교계가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금강산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 복원 사업 등은 대북 교류에 좋은 모델이다. 이 같이 문화 교류나 문화재 보수 유지와 같은 통일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 · 제시해 남북교류를 불교계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 해결, 불교도 관심갖자

정부가 제시한 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행자부)'도 불교계가 관심을 가질만 하다. 특히 과거사별 피해자와 유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을 검토해 위령사업 및 연구 · 조사 등 과거사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기념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기념사업에 난항을 겪어온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27법난 기념재단 설립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은 19대 이어 20대 국회서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진 못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타종교 기념관의 경우 공공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논리로 반대하면서 개정안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기념재단 설립을 특정 종교 특혜라고 생각한다면 10.27법난 자체를 국가 책임이 아니라고 보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이번 문정부의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해 "법난 관련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현 정부가 과거사를 명확하게 재조명해 사건의 인과를 잘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정부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암매장 유해를 발굴하고, 희생자 추가신고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제주4.3에 따른 제주불교 피해를 재조명하는 제주불교연합회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불교연합회장 관효 스님은 "제주4.3 당시 사찰은 외진 곳에 있었고, 일본서 공부한 똑똑한 스님들이 많아 유독 다른 종교보다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조명과 배 ·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과거사가 확실하게 조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작된 가야사 복원, 불교계 준비는

불교계와 직접 연관되는 정책 중 하나가 문화재 관련 정책이다. 현 정부의 문화재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과제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문체부)'다.

이 안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 논란이 됐던 '가야사 복원'과 관련된 '가야 문화권 조사 · 연구 및 정비'가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명시됐다.

'가야사'를 놓고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등 지자체는 예산 배정받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예산 따기' 경쟁은 지양할 것을 충고한다. 불교계도 접근 방법을 예산이 아닌 연구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장재진 동명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아직 가야불교에 대한 실체가 없다. 사찰 설화를 허구라고 접근조차 안하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연구를 통해 가야불교사 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야 할 시기다.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정책은 눈에 안 띄네

이밖에 문화재 관련 정책은 다른 분야에 비해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으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확대 △문화재돌봄법(가칭) 제정으로 상시관리 대상 문화재 확대 △전통무형문화원형 보전 강화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은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나 문화재 돌봄 사업은 현재에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나온 기조만으로 현 정부의 문화재 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며 "문화재 분야는 다른 분야들의 정책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문재인 정부 불교 관련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	불교 관련 주요 내용	불교계 대응 어떻게
국민 눈높이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자부)	-내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 활동 재개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10.27법난 기념재단 추진 -제주 4.3사건 내 불교계 피해 사례 조사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 -문화재돌봄법(가칭) 제정 -가야 문화권 조사 · 연구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나 문화재 돌봄사업은 현재도 추진 중. 방향 예의 주시 -연구 통해 가야불교사 정립하도록 지원 필요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종교 분야 남북 교류 재개	-인도적 지원 등 대북 사업 선도해야 -신계사 · 영통사 복원 같은 문화 통한 교류 방안 제시



각종 규제에 막혀 불사에 한계를 겪었던 봉은사가 50여년 만에 중창불사를 이뤄냈다. 7월 25일 열린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식에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공동취재단

봉은사 '문화포교 대가람'으로 거듭난다

7월 25일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식 개최

규제 밀려 50년 만에 불사
영부인 이례적 참석 '눈길'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며 중창불사에 한계를 겪었던 봉은사의 숙원불사가 50여년 만에 실현됐다. 한국문화체험 복합공간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이 마침내 문을 연 것.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7월 25일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사찰음식 · 다도 · 참선 등 한국 전통문화체험의 공간으로, 봉은사를 찾는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한류관광콘텐츠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됐다. 총 1 · 2관으로 구성되며, 연면적 약 2,403㎡(1관 1,340㎡ · 2관 1,062㎡) 규모다. 각 한옥 구조의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이다. 총 89억7,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됐으며, 이중 2015년부터 진행된 불사모연 및 무주상보시를 통해 모아진 기금 총 11억2,000만원이 포함됐다.

준공식이 열린 이날 자리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3,000여 사부대중이 모여 축하했다. 내빈으로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나종민 문체부1차관,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참석했다.

특히 이날 김정숙 여사는 본식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과 함께한 비공개 차담서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 다도 · 참선 등 불교문화의 활성화에 큰 관심을 표했다고 알려졌다.

자승 스님은 "오늘은 봉은사 사부대중이 오랫동안 간직한 진솔한 서원을 나누는 동시에, 물질문명에 지쳐가는 시민들에게 정신의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는 실천의지가 수도산 맑은 도량에 청량하게 뿌려지는 날"이라고 치사했다.

또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봉은사는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50여 년간 여러 법적 규제를 받아 수행 및 신행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기능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오늘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으로 신도들에게는 신행활동공간을, 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외국인들에게는 품격 있는 사찰체험 프로그램 등 공간으로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종단 위상 맞는 선거문화 정착 앞장"

조계종 중앙종회, 연석회의 통해 결의문 발표

오는 10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종회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7월 27일 종회 분과회의실서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 종책모임 회장단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금권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중앙종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중앙종회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의 행정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로 종도와 불자만이 아니라 사회 일반에서도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는 정법을 수행하며 구세대비 원력으로 이타행을 하는 승가 공동체에 대한 기대"라며 "선거에서 중앙종회의원이 앞장서서 왜곡된 선거풍토를 단호히 근절하고, 승가의 화합과 청정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정립, 종단의 안정을 위한 도약의 전기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중앙종회는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부당한 행위 하지 않기 △금품수수 등 선거법 위반 시 중앙종회의원의 모든 특권 내려놓기 △후보자의 원력과 종책, 공약에 대한 검증을 통해 종단 위상에 맞는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성철 스님 백일법문 50주년 기념법회

7월 22일 해인사 대적광전서… 법어집 불전 봉정

근현대 한국불교의 대표 선지식인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5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7월 22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렸다.

성철 스님은 해방 이후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원력으로 봉암사 결사를 이끌고, 1967년 결사정신을 이어받아 해인사 대중과 함께 총림체제를 만든 후 초대방장에 취임했다.

방장에 취임한 뒤 진행된 동안거에서는 당대 선지식 160여 명이 동참해 불교중흥의 뜻을 모았으며, 동안거 기간 중 성철 스님은 한국불교사의 일대사건인 백일법문을 설했다.

기념법회에서는 방장 원각 스님이 성철 스님의 법어집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를 불전에 봉정했다. 이어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은 해인총림의 연혁을 비롯해 성철 스님을 추모하는 기념사를 낭독했으며, 율주 종진 스님이 헌사를 했다.

종진 스님은 헌사를 통해 성철 스님과의 인연을 비롯해서 당시의 상황과 수행담을 회고했다. 또 방장 원각 스님은 백일법문 당시의 정황과 함께 성철 스님의 법어를 읽음으로써 그 가르침이 해인총림의 수행가풍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해인총림은 8월 3일 오후 2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방장 원각 스님 출가 50주년 기념 금산식을 연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백년대계본부는 7월 20~22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서 기획워크숍을 열고, 백년대계 핵심 주제를 사회 · 미래 · 공동체 · 정체성 등 4가지로 정리했다.

백년대계 키워드… 사회 · 미래 · 공동체

조계종, 2차 대중공사 앞서 기획워크숍 열어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제2차 사부대중공사가 오는 8월 2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모색할 핵심 키워드가 정해졌다.

백년대계본부(공동본부장 도법 · 호성 · 금곡)는 7월 20~22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서 '한국불교 100년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기획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사부대중공사 의제를 앞서 점검하자는 취지로 열렸으며, 대중공사에 적극 참여해온 40여 스님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워크숍에서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 주제는 사회 · 미래 · 공동체 · 정체성 등 총 4가지로 정리됐다. '세상의 이웃인 불교'를 내세운 사회분야서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관점과 접근 방식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현(니) 스님과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등은 "세간과 출세간을 분리하지 않고, 전법 중심이 아닌 실제 사회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불교가 잘해온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실현 가능한 것을 먼저 찾을 때"라고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인 사회활동으로는 △호스피스 · 웰다잉 전문가 양성 △귀농귀촌자 활용한 공동체 구성 △평화적인 갈등 해결 △활동가 역량 강화 등이 제시됐다.

조계종 포교국장 원묵 스님, 선엽 스님, 이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간사 등이 참여한 미래분야서는 탈종교화에 따른 미래 불교의 주체 양성에 방점이 찍혔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과 정웅기 생명평화대학 운영위원장,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 등이 참여한 공동체분야서는 승가공동체와 사부대중공동체의 복원을 강조했다.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자리서는 조계종명의 변경부터 '한국'이라는 국가단위 정체성에 얽매이지 말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불교계 나섰다

불교상담개발원 7월 3일 강사 배출, 운동 본격 전개

11월 불교스마트쉼본부 출범
학부모 · 가정 스마트쉼 확산
하반기 본부 출범, 캠페인도

초등학생 아들을 둔 불자 김 씨는 최근 아들을 크게 나무라는 일이 있었다. 아이가 가족들이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느라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한 것이 원인이었다. 아들의 상태를 우려해 상담센터를 찾은 그녀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아이가 엄마보다 스마트폰과 더욱 애착이 형성돼있다는 것이었다. 아이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엄마를 잃은 것과 같은 상태에 빠진다는 진단에 김 씨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원인은 그녀에게 있었다. 평소 집안에서 김 씨가 스마트폰을 항상 사용했고, 유아기 때 아이가 보챌 때마다 만화영화 등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것이 중독의 씨앗이었다.

이 같은 청소년과 아동들의 스마트폰 ·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불교계가 스마트폰 중독 치유에 발 벗고 나서 눈길을 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7월 3일 정보화진흥원 사무실에서 스마트쉼 전문강사를 위촉한데 이어 최근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에 나섰다.

스마트폰 중독예방 운동을 대표하는 '스마트쉼' 운동은 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치유 범사회적 운동이다. 불교계는 지난해 2월 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동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불교계에서는 현재 포교원 산하인 불교상담개발원이 대표로 스마트쉼 운동을 펼치고 있다.

3일 열린 위촉식에서는 불교계 스마트쉼 전문강사로 법전 · 진서 스님 등 스님들과 김길영 대림대 외래교수, 이경애 상담심리소장, 문진건 동국대 교수 등 10명이 위촉됐다. 대부분이 불교상담과 명상, 포교 전문가들로 지난해부터 전문교육을 받아왔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들 전문강사들과 함께 불교계 스마트쉼 운동 방향을 설정했다. 가장 먼저 불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단기과제로 세우고, 하반기 10회 교육을 실시한다.

불교상담개발원 측은 "스마트폰 중독 치유를 위해서는 부모세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예방교육을 하반기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교상담개발원은 김길영, 이경애, 문진건 교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표준강의안을 개발했다. 표준강의안에는 △아이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 대한 이해 △디지털 과의존 검사 안내 △인터넷 · 스마트폰의 유익한 사용 안내 △명상을 활용한 자기조절 능력 향상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11월 경 (가칭)불교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를 출범, '스마트쉼 사찰'을 선정해 법회와 기도 등 사찰행사에서 스마트폰을 끄는 등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은 "청소년 중독 예방은 자녀를 나무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중독을 벗어나는 가르침이 불교내에 있고 이를 불자 부모들을 비롯해 사회 각계에 적극 알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6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30%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특히 10세 미만 유아의 중독 비율이 17.9%로 20세 이상 성인의 중독 비율 16.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교구 출가지도법사, 구체적 역할 강화

조계종 교육원, '행자교육 운영령 개정안' 입법예고

출가지도법사 종령 근거 마련
정의 · 임기 · 자격 등 명시해

출가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교구별 출가지도법사에 대한 역할 강화가 이뤄진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7월 21일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된 출가지도법사는 교구별 비구 · 비구니 스님 1명씩으로 구성됐다. 이는 행자들의 중도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이었지만 법적 근거와 자격, 역할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

입법예고 된 종령 개정안은 출가지도법사의 정의 · 자격 · 역할 · 임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가지도법사의 정의로는 '교구본 · 말사에서 출가를 희망하는 자에게 출가생활을 안내하고, 입산한 행자가 사찰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하는 비구 및 비구니를 말한다'고 명시됐다.

자격에 대해서는 비구 출가지도법사는 본사 교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했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소임자가 맡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비구니 출가지도법사는 교구 내 비구니 스님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법적으로 명시된 역할로는 △출가 희망자에 대한 면담 및 안내 △행자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및 생활지도 △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점검 및 지도 △ 입문교육 및 수계교육 인솔 △퇴사를 원하는 행자에 대한 상담 △출가 관련 홍보활동 등이 명시됐다.

또한 출가지도법사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본사 주지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단 연수 교육에 대한 특전도 부여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박정규 교육원 교육팀장은 "현재 중도 퇴사율은 25~27% 수준이다. 이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출가지도법사 스님들이 역할"이라며 "이번 개정은 출가지도법사 스님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위상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행자 교육 · 상담이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1일까지다. 의견이 있으면 조계종 교육에 서면,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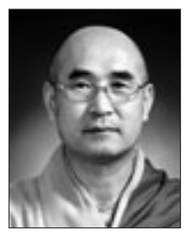
천태종 새 감사원장에 진덕 스님 지명

총무부장 월중 · 재무부장 설혜 스님 등 인사 단행


진덕 스님


월중 스님


설혜 스님


월장 스님

천태종 새 감사원장에 진덕 스님이 지명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7월 15일 감사원장 용암 스님이 일산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종의회 법제분과 위원장 진덕 스님(마산 삼학사 주지)을 새 감사원장으로 지명했다. 이에 천태종종의회(의장 도원)는 조만간 임시 종의회를 열어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진덕 스님은 종정 도용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아울러 천태종은 7월 25일 신임 총무부장에 월중 스님, 재무부장에 설혜 스님,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법인사무처장에 월장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전임 총무부장인 월도 스님이 맡고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등 대외직함에 대해서는 총무원 내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장 진덕 스님은 1976년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2013년 2급 법계를 품수했으며, 종의회 의원, 감사원 감사위원, 총무원 규정부장을 역임했다.

총무부장 월중 스님은 1990년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마쳤으며, 총무원 재무부장, 수원 용광사 · 성남 화성사 등 주지를 역임했다.

재무부장 설혜 스님은 1989년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마쳤으며, 총무원 사회부장과 상벌위원회 위원, 교무부 기도실 국장, 고성 보성사 · 거제 거광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금강대학교 법인사무처장 월장 스님은 1985년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마쳤으며,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 사무처장, 종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追 慕

제19회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 대재

귀의 삼보하옵고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21,709위의 추모대재를 봉행함에 있어 이 뜻 깊은 추모대재에 사찰 및 민간 단체, 개인 등 누구나 수희 동참하기를 앙망합니다.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식은 1967년 (故)정기영 집행위원이 재단법인 부산영원설립을 사재로 설립을 하여 추모비를 설립하며 추모제를 시행하여 오던 중 1997년 부산시에 위임하여 위령제를 봉행하여 오면서 (사)대원불교조계종이 주관하여 태평양전쟁 한국인 추모제를 봉행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이번 '**제 19회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대재**'를 안내 하오니 추모의 마음을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래

■ 일 시 : 불기 2561(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10시
■ 장 소 :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 문 의 : 봉행위원장 석혜오 총무원장 화남 (010-3562-2462)

•증 명 법 사 : 화산당 월인 대선사
•집행위원장 : 정산당 청봉 대선사
•봉 행 위 원 장 : 석혜오 총무원장
•집 행 위 원 : 홍섭. 보행. 원정. 덕오. 원명. 수오. 설산. 법현. 월오. 법경. 초오. 법주. 법진. 지광. 도일. 유심. 지혜. 화성. 현오. 법원. 지담. 도현. 지현. 해안. 우정 (무순)

•봉행위원 : 혜주. 정음. 성현. 성오. 법담. 진여. 혜원. 지현. 운오. 혜통. 진오. 능현. 혜광. 능각. 법일. 정은. 지용. 무공. 정진. 청해. 성보. 법천. 혜운. 법수. 동원. 만월. 법용. 연각. 법오. 법안. 범일. 명오. 덕운. 대덕. 대연. 혜문. 보정. 광운. 도산. 수해. 운산. 원광. 해연. 해인. 광명. 대몽. 법성. 효선. 청명. 청공. 일월. 지원. 서정. 선혜. 무관. 선담. 무설. 서진. 해동. 청화. 대범. 연하. 황산. 해월. 태일. 현각. 덕봉. 법해. 법인. 법륜. 법전. 원오. 선공. 경민. 제웅. 정각. 도산. 용수. 무해. 효인. 도인. 대산. 진광. 일해. 송산. 성진. 현진. 윤하. 해오. 우담. 보명. 도도. 범오. 태봉. 문수. 광정. 수명. 능견. 청진. 보성. 성덕. 현산. 여일. 동선. 호일. 묵오. 진도. 혜명. 지성. 우초. 현암. 진명. 보각. 일성. 주연. 지종. 월행. 현운. 혜진. 일정. 지선. 동광. 자비. 범정. 보명. 지밀. 법완. 금오. 무오. 지우. 법호. 법승. 무진. 무유. 탄허. 무일. 무상. 빈여. 진여. 일타. 해산. 혜안. 석산. 만오. 봉산. 지운. 법공. 광덕. 우초. 태호. 진공. 동삼. 덕천. 효단. 혜림. 진명. 성문. 도혜. 동운. 법인. 대오. 해성. 무착. 영공. 영현. 송제. 법우. 정현. 달오. 어정. 정관. 청호. 석두. 대공. 묘훈. 도언. 성념. 오성. 해동. 정재. 해명. 지우. 문수. 승배. 도운. 혜명. 혜심. 법경. 경민. 국담. 경오. 현산. 정로. 보담. 정해. 법산. 무량. 향산. 성종. 성심. 성진. 정연. 성인. 성산. 고봉. 자운. 성관. 능소. 법민 (무순)

(사)대원불교조계종 집행위원장 정산당 청봉 대선사 화남

아일랜드인 '존 리' 씨 向學熱 지켜주세요

〈향학열〉

유럽 한국불교 연구… 경제적 문제로 학업 중단 위기

한국에서 6년간 머물며 한국불교를 공부하고, 고향인 아일랜드로 돌아가 '한국불교 포교'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쓰고 있는 '존 리(John Lee, 본명 John ㅁD Laoidh · 38 · 사진)' 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존 리 씨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그의 사연과 연구개요를 소개하며, 뜻 있는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다린다.

한국불교 사랑한 John Lee

존 리는 2004년 대학을 졸업하고 네팔서 위빠사나를 배웠다. 이후 태국 · 라오스 · 중국 · 티베트 등을 순례하며 불심(佛心)을 쌓았다. 선불교에 관심이 많아 동아시아 국가서 살 계획을 세웠고, 2006년 한국에 왔다. 그가 선불교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택한 이유는 일본의 제국 민족주의적인 선불교가 싫고,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진짜 선불교가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용마초등학교에 영어강사로 취직 후 매주 안국선원을 다니며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와 지눌의 한국선 수증론을 공부했다.

존 리는 2007년 말 아일랜드로 돌아갔다가 2009년 한국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다시 왔다. 한국어 공부와 불교강의 청강을 병행하면서 한국불교의 '선교일치'에 매료됐다. 조은수 서울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중론 강의를 듣고, 화쟁아카데미서 한문도 배웠다. 꾸준히 불교공부를 한 뒤 2014년 조계종 국제불교학교에 보조강사로 취직했다. 그는 불교가 좋아 취직한 국제불교학교에 출퇴근하기 위해 매일 버스를 6번씩 갈아타며 열정적으로 일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존 리는 한국에서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해 빚을 떠안았고, 이를 갚는데만 수년이 걸렸다.

이렇게 6년 반 동안 한국서 머문 존 리는 지난해 아일랜드 콜크(Cork)대학교서 '한국불교 포교'를 주제로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지난 1년은 그간 모아둔 돈으로 마칠 수 있었지만 다음 1년은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 콜크대에 불교학 관련 장학금이 없고, 아일랜드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기타 장학금은 지난 5년간 최소 3년 이상 아일랜드나 유럽에 거주해야 하는 자격조건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조계종 포교원의 '대학생 우수불자 장학금 지원사업'에 신청해봤지만 외국인이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6년 반 동안 한국서 공부
한국불교 '선교일치' 매료
국제불교학교서도 근무해

한국서 전세금 사기 당해
학업 이어가는 데 어려워
장학금 자격요건도 안 돼

유럽과 한국禪 확대 연구

존 리는 '유럽을 배경으로 한 현대 한국선(禪)의 확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는 유럽 각지의 한국불교 수행센터(폴란드 우봉사 · 파리 길상사 · 헝가리 원광사 등)를 방문해 현장 연구를 수행하고, 각국의 대중이 한국불교와 교류하는 방식 및 수행으로 얻는 이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배경이 미치는 한국불교의 포교 영향을 확인하고, 유럽국가에 맞는 포교방법을 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즉 영어에 기반을 둔 획일적인 포교 활동이 미국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유럽 국가에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존 리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박사과정 2학년 등록금이다. 1년 등록금은 5770유로(한화 약 750만원)로 오는 9월까지 학교에 내야 한다. 이외에 현장조사나 도서구입 등 부수 비용으로 매월 1000유로(한화 약 130만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자신의 사연을 전한 존 리 씨는 "문전걸식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스럽지만 한국불교가 일천한 아일랜드와 유럽을 위한 지원으로 간주하고 도와주셨으면 한다"며 "불교 공부를 계속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에게 달리 크게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일부라도 도움 받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2004-8255(현대불교신문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심택사, '아파트 숲'에 고립 위기

은평 응암2구역재개발사업 착공 '코앞'
소방차 진입 불가… 문화재 훼손 우려

응암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전통사찰 심택사가 아파트 숲에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36 · 37번지 일대 12만㎡에 추진 중인 응암2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2014년 10월 은평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년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현재는 건물철거가 완료된 상태로, 곧 착공될 계획이다.

그런데 이 사업구역 산자락 끝에 위치한 조계종 심택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모양새다. 심택사로부터 25m 떨어진 곳에 대웅전보다 4층이나 높은 10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심택사와 아파트 사이에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될 예정인 것.

심택사 주지 효탄 스님은 "사실상 심택사가 외부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게 됐다"면서 "그동안 은평구와 서울시, 권익위 등에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청은 은평구청에, 은평구청은 재개발사업조합 측에 민원을 내려보냈다. 최종적으로 받은 회신은 모두 민원처리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고 성토했다.

효탄 스님은 특히 공사가 강행될 경우 심택사 진입도로가 전부 막혀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심택사 소장 국가보물 '묘법연화경' 등 문화재가 소실될 우려도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효탄 스님은 "주진입로(폭 15m)가 백련산 등산로 입구 약 50m 전에서 오른쪽으로 순환되고 그 지점부터 백련산 등산로 입구와 심택사까지는 폭 6m(인도 2m)로 설계돼 있어 차량의 교행과 회차가 불가하다"면서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등산객이 크게 증가할 텐데 교통난과 주차난으로 아파트 입구부터 등산객 차량으로 뒤범벅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산불이 날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순식간에 문화재로 불이 옮겨 붙어 소실 우려가 있는데도 은평구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한편 효탄 스님과 신도 300여 명은 7월 17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은평구의 엉터리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고 도로와 주차계획, 도망권을 다시 조정한 후 조합 측의 착공계를 수리하라"는 감사청구를 제출했다. **박아름 기자**



정찬주 작가의 스님이야기

③ 가정방문

낙관 없는 휘호가 주는 교훈

마당가 연못에 수련 꽃이 피어 있던 한 여름이었다. 법정 스님께서 예고 없이 전화를 주셨다. 내일 내 산방으로 가정방문 갈 것이니 외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가정방문.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다.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여 이런저런 속사정을 살피고 가는 게 가정방문이었던 것이다. 나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어머니와 고향이 같아서 누님, 동생하고 친근하게 지냈던 것이 기억난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목포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수업시간인데도 뒷자리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남진에게 군밤을 먹인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던 김남규 선생님이었다.

담임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면 집안은 잠시 긴장을 하게 마련이었다. 아버지는 마당을 쓸고 어머니는 음료수나 과일을 준비했다. 그러나 나는 담임선생님이 나의 수업태도나 성적 같은 것을 고자질하지 않을까 싶어 떨떠름해 있기 일쑤였다. 담임선생님이 가시고 나면 나의 처지는 늘 불리한 편이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이 가정방문의 마무리였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의 방문은 비록 내가 불가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학창시절의 가정방문과는 달랐다. 스님은 내가 우린 차를 마시면서 나에게 주로 격려를 하셨다. 산중생활을 하면서 저절로 육식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자 '말할 수 없이 좋은 변화'라고 하셨고, 나를 서울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보인다고 하시며 "사람이 자연에서 멀어지면 병원이 가까워진다"고 덧붙이셨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연못에 물을 대는 고무호스를 보고는 "나무나 대나무로 바꾸시오"라고 즉석에서 지적하셨다. 스님은 내 산방을 떠나신 뒤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셨다.



일러스트 · 정윤경

'남쪽에 내려간 김에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시골에 내려가 흙을 만지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한 친지를 방문했다. 소비와 소모의 땅,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그 의지와 결단에 우선 공감했다. 작가인 그는 새로운 터전에서 살고 싶어 새로 집을 지어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고 채소를 가꾸면서 작업을 한다. 보기에 아주 건강한 삶을 시도하고 있다.'

스님의 흔적은 또 있다. '무염(無染)'은 스님께서 주신 나의 법명인데, '무염산방(無染山房)'이란 현판 글씨이다. 스님은 낙관을 찍는 것은 자기 글씨 자랑하는 거라며 낙관을 찍어주지 않았다. 다만 방에 걸어둘 글씨라면 낙관을 찍어주시겠다며 한 점을 더 써주셨는데, 나는 지금도 스님의 친필 글씨 두 점을 보관하고 있다.

낙관이 없는 현판 글씨를 볼 때마다 나는 자기질서를 철저하게 지킨 생전의 스님을 대하는 것 같아 어영부영 흐트러지려는 나를 바로잡곤 한다. 사람들은 낙관이 있어야 글씨의 가치를 보장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 반대다. 낙관이 없으므로 나에게는 더 보배가 된 것 같다. 내 산방을 찾아오셨던 스님의 가정방문이 오늘따라 사뭇 그립다.

"일주문 앞 무분별한 시위 삼가라"

조계사 신도회, 7월 21일 기자회견서 지적

신도 · 관광객 배려 당부

최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벌어지는 다수의 시위에 조계사 신도회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호소문을 발표했다.

조계사 신도회는 7월 21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계사 일주문 앞 무분별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날 신도회는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하루도 빠짐없는 시위로 인해 조계사가 그동안 노력해온 대외적인 이미지도 실추되고 초심자들까지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사찰의 대문인 일주문 앞에서 다수의 인원이 온종일 시위하는 것은 무형의 겁박이자 폭력과 다르지 않다. 특히 불자나 불교단체를 표방하면서 신행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조계사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언행과 홍보물들은 시위 참여자들이 불자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보에 귀의한 불자들의 시위라면 사찰에 대해 기본적인 배려는 해달라" 당부한 뒤 △다수가 아닌 1인 시위도 주장의 전달은 충분하다 △시위의 홍보물은 하나면 충분하다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낭독을 일주문 앞에서 할 필요없다 △승가에 대한 비방은 스스로 불자가 아님의 표현이라며 일주문 앞 집회와 시위를 하는 이들에게 예의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피켓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영환 수석부회장은 "내용은 중요치 않다. 시위의 방식이 불법(佛法)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또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계획에 대해 "여러 신도회 등 교계 단체와 의기투합해 더욱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김문주 신도회 사무총장, 박종화 신도회 포교사회본부장, 김미자 신도회 교육본부장 등 조계사 신도회원 20명이 나섰다. **박진형 수습기자**

템플스테이

2018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한국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사찰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선정절차 안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실사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2017년 8월	2017년 8~9월	2017년 9월	2017년 9월	2018년 1~12월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심사	서류심사 합격 사찰의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선정위원회 개최)	면접심사 합격 사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평가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경상보조금 미지원)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운영사찰 지정 관련 기본요건 충족 확인	제출서류
2차 면접심사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면접심사 평가표
3차 현장실사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현장실사 평가표

●서류제출 안내
···▸제출기간 : 2017년 7월 24일(월) ~ 8월 17일(목) 까지
···▸제출서류 : ① 2018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자료 포함)
②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제출방법 : 원본 및 파일 제출
① 원본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② 파일제출 : juk@templestay.com으로 제출
···▸제 출 처 : 0314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지운규
···▸서류심사 결과발표 : 공문을 통해 개별 안내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사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서 내 첨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문 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지운규, 02)2031-2034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단장 수암

일 주 문



수현사 불보살상 점안법회

성우 김제 금산사 주지 스님은 8월 13일 오전 10시 완주군 소재 포교당 수현사 3층 대법당서 불보살상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禪사이코드라마 특강

가섭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스님은 7월 18일 오후 1시 불교상담개발원 대강의실서 '선(禪)사이코드라마' 특강을 개최했다.



행복가족수계법회

우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스님은 7월 22일 대구큰절 등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가족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생명나눔 홍보대사에 박일남 씨

박일남 원로가수는 7월 27일 생명나눔실천본부 서울 회의실에서 2017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진제 스님과의 참선법회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9월 2~3일 팔공총림 동화사서 '진제 법원 종정예하와 함께하는 참선법회'를 개최한다.



제8차 여성불자 108인 공모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장은 8월 31일까지 전문성과 수행력을 갖춘 '제8차 여성불자 108인 후보'를 추천받는다.

코리아 실크로드 아카데미 수료식



동국대 경주캠퍼스 사회과학대학원(원장 박경일)은 7월 26일 교내 진흥관 B101강의실에서 제2기 코리아 실크로드 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다. 코리아실크로드아카데미는 실크로드 문명교류해설사 및 실크로드 청년시장개척가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지역특성화 사업이다.

사회과학대학원은 문화관광해설사 및 실크로드에 관심있는 일반인 20명을 대상으로 실크로드 해외 탐방을 포함하여 3월부터 7월까지 21주간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날 수료식을 통해 2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특히, 이날 수료식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크로드 시장 개척가 양성과정 수료식'도 함께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불교미래 군포교에 새로운 꽃 피울 터"

Interview

제4대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스님



조계종 군포교를 이끄는 군종특별교구 4대 교구장으로 혜자 스님이 취임했다. 조계종 군종교구는 7월 27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제4대 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 취임식 및 3대 교구장 정우 스님 이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군종교구장 취임한 혜자 스님의 각오는 하나였다. 신심과 원력으로 군포교에 전념, 또 전념하겠다는 것이다.

혜자 스님은 "초대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제2대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제3대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등 역대 교구장스님들께서 군포교를 위해 고군분투 하셨다"며 "이 바탕위에 새로운 꽃을 피우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군포교는 젊은세대 포교와 미래불교의 황금어장으로 불린다. 지금까지 종단을 비롯 군불교에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봉사하고 협조를 하였다"며 "현재 한국불교는 젊은 세대 포교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에 있다. 청년포교의 최전방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각오도 함께 밝혔다.

혜자 스님의 취임으로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군포교 후원 활성화다. "군종교구장은 군승법사들에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한 스님은 "140여 명의 군승법사들이 군포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내·외적으로 돕도록 하겠다. 또 군불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4대 군종교구는 먼저 종단 방침과 군승법사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한편, 종립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에서 능력있고 포교원력이 있는 군승법사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군불교 후원회 구성하는 한편 '평화의 초 나누기' 운동을 전개한다. 평화의 초 나누기 운동은 군법당을 찾는 장병들이 자신의 발원이나 소원을 적은 평화의 초를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이다. 군법당이 군 종교생활 중 마지못해 찾는 장소가

월 1회 108산사 순례 후 군법당 순례
전방 군법당 33곳에 평화의 불 봉안
"군포교 후원조직 강화 역점둘 것"
군법사 지원확산·위상 제고 노력

아닌 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곳으로 변모하고, 찾는 군장병들이 불자라는 소속감과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군장교 포교도 박차를 가한다. 스님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교육부대와 야전부대 등 각 부대 실정에 맞는 포교활동으로 장병들이 불교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교를 접하고 입문하게 하는 인연을 맺어주는 장소로 활용하여 계층에 맞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2018년 군승단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군승 파송 5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도 열린다. 스님은 "군포교가 한국불교의 주요 이슈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군승제도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거듭나는 군종교구, 수행과 포교를 함께하는 군종교구, 모든 불자들이 관심을 갖는 군종교구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화의 불 분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은 108산사순례를 겸한 군법당 순례 계획도 밝혔다.

스님은 "108산사순례기도회 2진 순례와 53기도도량 순례를 통해 한 달에 3일을 산사를 찾아 기도하고 순례에 동참하고 있다. 산사순례 기도 후 인근 군법당을 반드시 찾아 위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최전방 33곳 군 법당의 '평화의 불' 봉안을 위해 매월 1회 별도의 팀을 구성해 매월 한 곳의 군법당을 찾아 법회를 열고 국태민안과 남북 평화통일도 기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음의 평화가 가정의 평화로 이어지고, 우리 이웃에게 평화가 있고, 이웃에 평화 있음으로 사회에 평화가 있고, 사회의 평화가 남북의 평화로 이어져 세계평화가 이룩되기를 발원합니다."

2006년에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창립해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킨 혜자 스님. 2017년 군포교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러 올지 기대를 모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림硏 사무처장에 권용철 씨

7월 24일 운영회의서… 숲파라미타본부도 조직하기로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찰숲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사찰림연구소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처장에 권용철 서울시 숲 해설가<사진>가 임명됐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7월 24일 서울 은평구 NC백화점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권용철 신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권용철 신임 사무처장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북삼성병원 기획실장과 서울시 서남병원 경영부장을 거쳐 현재 서울 개포동 대모산에서 숲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숲해설 전문가다. 저서로는 〈대한민국에서 봉급쟁이로 산다는 것〉, 〈오십헌장〉, 〈독학자의 서재〉 등이 있다.

이와함께 한국사찰림연구소는 7월 24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서 숲파라미타본부 중앙 및 지역단을 조직하기로 했다. 숲힐링사업단 김미란 단장 책임 하에 숲전문가 중 불자를 중심으로 전국조직을 구축하며 사찰림 해설사 양성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사찰림연구소는 2013년 출범한 사찰림 연구기관으로 산림유전자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생명평화실천단, 어르신 나눔잔치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 소속 청소년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나눔잔치를 펼쳤다.

7월 24일 전주 금암동 전북생명평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로나눔잔치에는 학생들이 직접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에 나섰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천단원 김지영(18, 전주제일고) 양은 "이른 아침부터 실천단원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어르신들께 대접하니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사 백중맞이 마지막 사리친견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7월 25일 불교 5대 명절 중 하나인 백중을 앞두고 백중49일기도에 입재했다. 이날 입재법회에서는 지난 6월 불교계에 반환된 사리 40과 중 소장처가 분명한 설잠 스님 사리 및 분황사 사리의 본처 이운을 앞두고 마지막 친견행사가 열렸다.

지현 스님은 행사 법문을 통해 사리친견 공덕으로 참석대중 가정마다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노덕현 기자

적조사, 동자승 출가 및 회향



서울 적조사(주지 탄국)는 7월 25일 경내 대웅전에서 '동자승 출가 수계법회 및 후원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계법회서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계사로 나서 지수 스님에게 계를 내렸다.

적조사는 동자승 출가 축하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북장애인복지관에 쌀 10kg 40포대, 라면 1000개, 초코파이 1500개, 음료 900개 등을 후원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8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명상·탁본체험… 사찰 속 내 마음의 쉼표

[현장] 김제 금산사 '마음 쉬는 수요일'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김제 평야를 바라보며 지난 1500년의 세월동안 민중과 함께 살아 숨 쉬면서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의 역사를 지켜본 금산사 미륵전. 미래세계에 미륵불로 출현해 중생을 구원할 것이라는 미륵부처님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굳건한 신앙의 토대였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어루만지며 위로하던 미륵부처님이 자리한 마음치유도량 금산사에서 급박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재청의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수요일, 마음 쉬는 수요일' 프로그램이 그것. 지난날의 선현들처럼 마음 다친 이들에겐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지친 사람들에게는 참다운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명사 초청 힐링콘서트
전통문화 체험 등 호황

쉼 잃은 현대인들에게
심신 활력 선물 '눈길'

특히 분별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바라봄으로써 마음 쉬는 자리를 경험하게 하는 유식사상의 '전식득지(轉識得智)'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금산사의 마음 쉬는 수요일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시작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운영된다. 지금까지 치유공간 '이웃' 대표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목원대 미술교육과 조정육 교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김용택 시인 등이 강사로 나선 마음콘서트는 밀려드는 신청자가 많아 참가자를 100명으로 제한할 정도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앞으로는 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명법 스님, 우리나라 대표적 서정시인인 정호승 시인,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등이 마음치유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또 음식다큐 '쉐프의 테이블'에 출연해 베를린영화제에 초청받은 사찰음식 대가로 널리 알려진 백양사 천진암 정관 스님이 사찰음식에 담긴 우리의 정신문화를 전수하고 있다.

7월 26일 금산사 보제루에서는 피리연주가 박세라 씨와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진 김용택 시인이 마음콘서트 강사로 나서 '자연과 하나되기'라는 주제로 마음콘서트를 진행했다. 피리연주가 박세라 씨는 고요한 마음의 울림을 끌어내는 연주로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김용택 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임실의 자연환경을 소개하며 마음 치유에 나섰다.

김 시인은 "그동안 우리의 오랜 세월을 지탱해준 것은 자연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였다"며 "요즘 들어 만연한 막말, 거짓말, 도둑질 등 우리사회가 혼탁해진 것은 바로 이 공동체 문화가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옛 사람들은 절대 자연을 거스르지 않았다. 산천경계를 깨버리는 일은 하지 않았다"면서 "나무는 정면이 없고 경계도 없다. 또 나무 자신의 본질을 잊지 않는다. 느티나무가 참나무가 되지 않듯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꿋꿋하게 살아왔다"고 부처님 가르침을 자연에 빗대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인은 또 불교에 대한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신도는 줄어드는데 절은 점점 커지는 일이 아이러니하다고 밝힌 그는 "불교가 현대인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튿날인 목요일에는 보제루에서 탁본체험이 진행됐다. '마음 쉬는 수요일' '금산사 미륵전' 등이 새겨진 경판에 손수건을 올려 새겨내는 탁본체험은 가족 모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금산사 마음 쉬는 프로그램 중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은 바로 명상체험이었다. 보제루와 봉천선원에서 진행된 명상체험에는 금산사 대중스님들이 강사로 나서 호흡법과 자세 등을 지도했다.

참가자들은 창밖에 들리는 물·바람·풀벌레 등 자연의 소리와 함께 개인 내면에 집중하며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되새겼다.

점심공양시간에는 사찰음식의 대가 백양사 천진암 정관 스님이 정갈한 사찰음식을 차려내 참가자들을 식도락의 세계로 인도했다. 정관 스님은 자연 속에서 채취한 재료를 활용한 사찰음식을 선보이며 사찰음식에 담긴 불교의 정신문화와 음식에 담긴 철학을 소개했다.

서울에서 여름휴가를 맞아 남편과 함께 참가했다는 박영순(55) 씨는 "그동안 너무 각박하게 살아온 것 같아 쉬고 싶은 마음에 참가하게 됐다"며 "김용택 시인의 마음 콘서트도 좋았지만 명상체험과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강의가 가장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산사=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마음 쉬는 수요일' 참가자가 금산사를 배경으로 한 탁본체험을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스님의 지도에 따라 범종타종을 체험하는 참가자들.



박세라 피리연주가는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예불에서 합장한 채 신심을 닦는 이들도 다수 있었다.

"미래세대 투자는 시대적 과제"

Interview 금산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무정 스님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쉬고 싶은 사람들이 사찰에서 위안을 얻고, 새로운 생활의 활력을 찾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금산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 부임하자마자 '마음 쉬는 수요일' '내비둬 콘서트' 등 금산사의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무정 스님〈사진〉은 현대인들에게 사찰서의 휴식을 제안했다. 종교적인 색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불교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불교적인 색채는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의 전통문화와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가 한동안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예전의 기운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한 무정 스님은 앞으로 성인보다 소외된 계층,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가를 늘릴 계획임을 밝혔다. 스님은 이를 위해 차상위 계층과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지만 적극적인 투자 없이는 불교의 미래도 보장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이 사찰을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금산사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미래세대 확보가 불교계 화두로 떠오른 요즘, 금산사는 이를 위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들이 쉽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탁본체험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며, 아이들이 부모에게 간식을 만들어주는 이색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다양한 계층과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세대와 어울리는 프로그램으로 가족 공동체 회복에 역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17학년도 생활풍수 최고지도자 과정 제15기생 모집

'글로벌 리더를 향한 꿈의 도약'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이루십시오

풍수지리 전문가를 향한 꿈의 날개를 펴라!
최고의 교육환경과 교통의 최적지인
서울 남산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전문 자격인의 길, 풍수지리사로 미래를 열어나갈 인재를 모십니다

국무총리실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풍수지리사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21세기에 요구되는 전문가로의 탄생!
21세기는 전문가 시대!
풍수지리학의 이론과 현장실습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자격기본법에 의한 양택감정사, 풍수지리사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풍수지리 전문가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입학안내
- 접수기간 _ 2017년 7월 17일 ~ 2017년 8월 31일
- 접수처 _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사회과학관)
- 문의 _ 생활풍수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연구실
  02)2260-8576 / 010-3795-5088(박종희)
  주임교수 _ 심재열 박사 010-5282-3388

모집요강
- 입학자격 _ 모든 일반인 남·여대상
- 입학정원 _ 50명 선착순 마감
- 교육비 _ 220만원(학기당)
- 실습비 _ 별도

교육특전
- 동국대학교 총장 수료증, 행정대학원 원장 인증서 수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풍수지리사, 양택감정사 2급,1급 자격증 수여
- 수료 후 문화센터 및 사회교육기관 강사 추천

교육기간
- 개강 _ 2017년 9월 5일(화요일)
- 교육기간 _ 1년(2학기), 학기당 16주, 17회
- 장학제도 _ 승려 30%할인, 동국대학교 동문 20%할인

원서교부 및 접수
- 제출서류 _ 입학지원서 1부, 사진(3x4cm)3매
- 원서교부방법 _ 홈페이지에서 입학지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_ ① 온라인 - http://gspa.dongguk.edu 접속 후 입학지원
  ② 홈페이지 - www.iysps.com(요산풍수지리학회)
  ③ 우편 -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우 04620)
- 전화접수_전화로 인적사항 통보 후 등록금 송금
  신한은행 140-011-413690 동국대학교(행정풍수)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사찰에 장애인이 온다면?

1 지체장애인이 넘어졌을 땐, 무조건 팔을 잡아 일으키지 말고, 팔을 내밀어 잡고 일어서게 하세요.

2 경사가 심한 곳을 휠체어가 내려올 때는 밀어주는 사람이 휠체어 뒤에 서서 내려와야 낙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청각장애인의 경우 자막 외에 주변상황도 속기해 알려주면 상황 파악이 편합니다.

4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사찰 화장실의 경우 사용 중 표지판을 설치하면,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진, 그림, 몸짓 등의 행동을 덧붙여 이해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긍정어로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시각장애인의 경우 소리를 통해 주변 정보를 얻기에 대화시 너무 크게 이야기 하지 말아 주세요.

7 법당 문은 활짝 열거나, 꼭 닫거나 해주세요. 시각장애인은 어정쩡하게 열어놓은 문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8 발달장애인은 낯선 환경에 처했을 때 계속 소리를 내는 등 여러 가지 행동특성을 보여요. 제지하지 말고 안정감을 주세요.

장애인 불자들, 인식 개선 나섰다

불자 장애인 모임 〈보리수아래〉
장애인 에티켓 자료집 펴내

시청각 · 지적 · 지체 · 발달 등
장애 분류해 에티켓 소개
용어 정리 · 장애 복지 홍보 예정



"사찰에 가면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이쁘다고 쓰다듬고, 먹을 것을 주세요. 집에 오면 강아지가 배탈을 합니다. 안내견이 아무리 이뻐도, 너무 과한 애정은 삼가주세요."

"지체장애인들이 사찰에 오면 휠체어를 무턱대고 밀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밀어주는 것을 불안해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아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장애인 200만 시대를 맞아 불자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공생하는 삶은 무엇일까. 불자 장애인들이 불교계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에 첫 발을 뗐다. 불자장애인신행단체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최근 인식개선자료집 '알아두면 좋은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펴낸데 이어 보급에 나선 것이다.

보리수아래는 지현 스님의 제안으로 2005년 6월 결성된 장애인 문학 · 음악 · 미술 모임이다. 그동안 장애인 불교문화 체험을 비롯해 공동시집 및 음반 발간 등을 진행해왔다.

이번 에티켓 자료집은 그동안 불자 장애인들이 겪었던 불교계의 낮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불교계 장애인 복지관에서 의견을 수렴해 제작을 준비해 왔다.

자료집에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에티켓 △시각장애인 에티켓 △청각장애인 에티켓 △발달장애인 에티켓 등이 총 7페이지에 걸쳐 담겼다.

내용은 평소 대부분의 불자들이 무심코 행하기 쉬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담고 있다.

현재 보리수아래는 250개 사찰에 자료집을 배부한 상태며, 향후 불교계 전 사찰과 불교계 사회복지관에도 에티켓자료집을 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교계 인식개선사업으로 불교계에서 사용하는 '장애자', '장애우' 등의 법정용어 '장애인'으로의 정립 등 장애용어 통일, 불교계 장애복지의 대외적인 홍보 등도 함께 진행한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장애인들의 법정 종류만도 15가지에 달한다. 하지만 이 조차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라며 "특히 불교계에는 외부에 비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약한 상황이다. 장애인 불자들이 힘을 모아 불교계 인식부터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탈출구 없는 청년 빈곤? 서울형MC로 '지옥고' 벗어나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창업사례 ④ 서울 노원구 '바뱅이' 조광호 대표



조광호(33)씨가 스무 살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닥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모두가 친척집에 얹혀살게 됐다. '나라도 생계를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으로 직업군인에 지원, 4년 6개월 동안 특전사 생활을 하며 조금씩 희망을 찾아갔지만 훈련 중 사고를 당해 무릎에 장애를 얻었다.

이후 어쩔 수 없이 제대를 하고 재활운동에 돌입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취업도 쉽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한 아르바이트 생활이 5년 동안 계속됐다.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불안정한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조 씨와 마찬가지로 요즘 많은 청년들이 빈곤에 처해있다. 취업난의 여파로 무직 상태의 청년들이 점차 증가하며 '캥거루족' '니트족'이란 말도 생겼다. 취업을 하더라도 가난을 쉽사리 벗어나긴 어렵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지 · 옥 · 고'란 말이 생긴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 구조적 문제 속에서도 자립 의지를 포기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 조 씨 역시 연이은 취업 실패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조 씨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이하 서울형 MC)을 통해 창업자금 3,000만원을 대출 받아 올해 2월, 5년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매장 '바뱅이(서울 노원구 위치)'를 인수했다.

"친절한 주인 부부를 만나 5년 동안 애착을 갖고 일했습니다. 그러다 나만의 가게를 열고 싶다는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 주인 부부가 업종을 전환하며 가게를 내놓은 후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높은 이자율이 큰 부담이었다. 그러던 중 조 씨는 지인을 통해 서울형MC에 대해 알게 됐고,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개업한지 얼마 안 돼 큰 수익을 내진 못했지만, 매달 월 평균매출이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이다.

조 씨는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 등 담보가 필요한데 청년들은 경제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런데 서울형 MC는 사업계획표를 통해 창업의지 및 가능성을 보고 대출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면서 "전문직 · 대기업 · 공무원 등만 쫓는 요즘 시대에서 나도 시험 준비에 매진한 적도 있지만, 확신만 있다면 창업도 좋은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무담보 저금리대출사업으로, 사업자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이 율 : 고정금리 연 1.8%
대출기간 : 총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자금지원 : 창업자금(최대 3,000만원 이내 자기자금 범위 내 지원)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신청절차 : 상담–신용정보조회–서류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현장실사–선정심의–신용보증재단 금융심사–우리은행 자금지원(대출승인)
신청문의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문 (02)723-5101

전세계 청소년 불자, 울산서 결집

파라미타, 8월 5~7일 국제캠프 개최… 1000여명 참석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파라미타)는 8월 5~7일 양산 통도사와 울산대 등에서 제20회 파라미타 전국연합캠프 및 제3회 국제캠프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국제캠프는 창립 20주년을 기해 파라미타가 세계 청소년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행사로 우리나라 청소년 600명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호주 등 10개 국가에서 200여 불자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행사는 8월 5일 오후 7시 울산대 해송홀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7일 양산 통도사 사찰문화답사와 폐회식으로 마무리 된다.

캠프 첫날인 5일에는 먼저 울산대에서 제1회 청소년 리더십 포럼이 열린다. 포럼에서는 참가국 청소년들이 발제자로 나서 '미래지도자가 가져야할 요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청소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 당 3~5분 가량 발표되며 참석 청소년들에게는 국제포럼 참가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어 울산대에서는 대표적인 청소년 멘토로 꼽히는 김수영 작가의 명사초청 특강이 진행된다.

둘째날인 6일에는 옹기마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의 문화탐방이 이어진다. 또 도전 1080배, 금강계단 모형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오후 8시 30분에는 울산대공원 공연장에서 청소년 음악놀이 축제가 열려 국가별 공연도 펼쳐진다.

폐막 후 각국 청소년들은 불국사와 통도사에서 8~9일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문화도 체험한다.

심산 스님은 "국제캠프를 통해 파라미타가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청소년단체로 거듭나길 기원한다"며 "향후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불자청소년들의 역량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년 대학생불자들, 올여름 지리산으로…

대불련 '영 부디스트 캠프' 지리산 일대서 진행

여름 방학을 맞아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지리산에 모여 한국불교 발전의 원력을 새롭게 다진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경수, 이하 대불련)는 8월 3~6일 구례 화엄사와 지리산 일대에서 '소행성(우리들의 소소한 행복과 성공)'을 주제로 제8회 영부디스트캠프를 개최한다.

영부디스트캠프는 대불련이 매년 대학생 불자들의 우호와 신심 증진을 위해 여는 캠프로 사찰과 국립공원 등에서 펼쳐진다.

'우리들의 소소한 행복과 성공'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여름캠프에는 15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캠프서는 대학생들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청춘고민상담소를 운영하는 장재열 대표가 '인생질문 구하고 출발하자-인질구출'을 주제로 강연하며, 화엄사 포교국장 도운스님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대해 즉문즉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모임별 토론과 천은사 및 화엄사 순례, 노고단 산행, 계곡 물놀이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경수 대불련 중앙회장은 "이번 영캠프는 '우리들의 소소한 행복과 성공'의 줄임말인 '소행성'을 슬로건으로 삼았다. 이는 행성 주변을 맴도는 소행성처럼 자신 주변의 행복을 찾자는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함께 격려와 용기를 보냄으로써 행복감과 자신감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02)732-0239

노덕현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 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 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법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원효, 經論 통해 통일시기 포용책 제시”

名論名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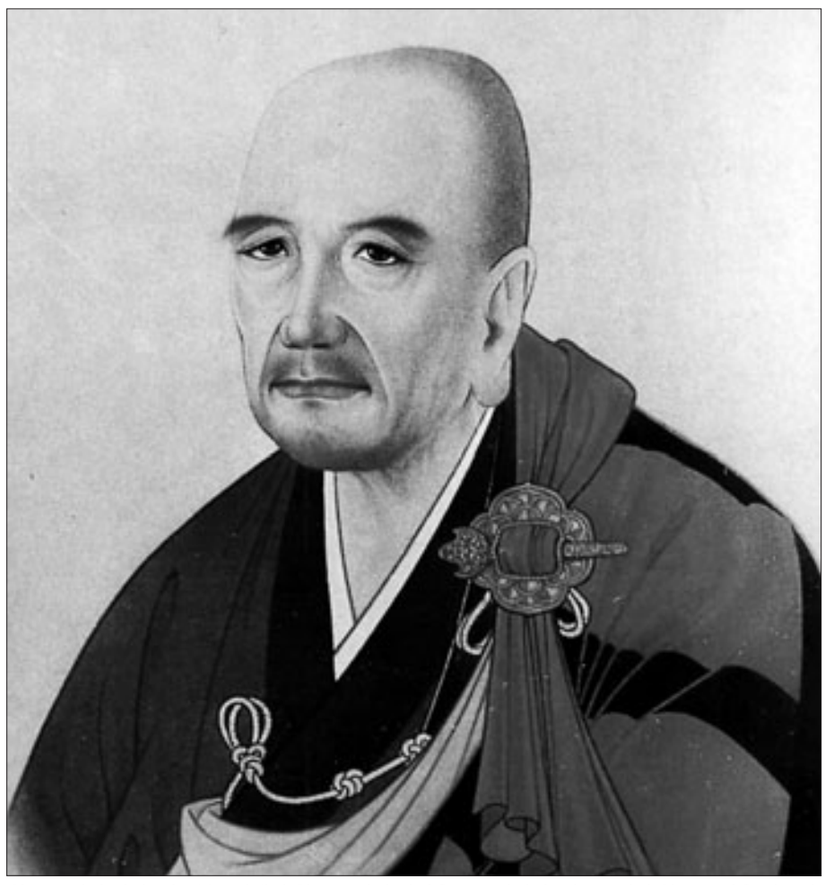


이병학의
〈역사 속의 원효와 금강삼매경론〉

한국불교사에서 원효 스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크다. 원효 탄신 1400주년을 맞아 관련 학술대회가 열리고 연구서들이 잇달아 나오는 이유에서도 이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이병학 우송고 교사는 최근 연구서 〈역사 속의 원효와 금강삼매경론〉을 발간했다.

그는 저서에서 원효의 대표작 〈금강삼매경론〉의 사상사적 위치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신라사회를 이해하려 한다. 특히 원효의 일승사상이 기층민을 포섭해 성불로 이끄려는 구상이었고, 무열왕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륜계 신라왕실의 등장과 신진 불교세력은 원효의 논리를 환영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눈길을 끈다.

〈역사 속의 원효와 금강삼매경론〉의 결론 부분을 발췌 인용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원효 스님의 진영. 한국불교사에서 원효 스님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비주류였던 원효 스님은 평등과 포용을 바탕으로 한 ‘이각원통’ 사상을 주창하며, 통일기 신라 사회의 통합 기제에 영향을 미쳤다.

원효는 신라 불교학의 총아이며 상징적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元曉)’은 매우 독보적이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불교를 수용하였다. 자연 신라는 후발국으로서 백제와 고구려가 점차 중국과 교유하며 새로운 불교학을 수용함에 일종의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가섭불 연좌석’ 설화로 대표되는 ‘신라 불국토설’은 이러한 고민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 항쟁기에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전쟁수행을 도모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출신의 승려들이 신라에 유입되었을 것이다. 이때 원효가 신라 승려의 자부심으로서 ‘성화(聖化)’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라 불교학을 정점으로 사상적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원효는 다양한 경전 주석을 통해 신라의 학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대중교화로 명성을 축적해가고 있었다. ‘원효’라는 명칭은 이러한 시대상 속에서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석가모니에 비견되는 호칭으로서 다른 승려와 차별성을 지닌다.

말하자면 석가모니와 동일한 출생담을 지닌 그가 ‘원효’라는 명칭을 통해 신라불교의 대표자로서 고구려 · 백제 출신의 승려들을 제어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때 등장한 〈금강삼매경론〉은 원효의 명성을 더욱 수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효 교학의 원숙기에 성립된 그의 불교학 결정판이기도 하다. 전술한 그의 시대적 역할에 부합하도록 여기에는 다양한 경전의 내용이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계율과 교학관, 그리고 대중교화 논리를 종합하였다. 따라서 원효가 처한 시대상과 그가 의도한 불교학의 지향점을 탐구할 수 있다.

〈금강삼매경론〉을 크게 부각시킨 〈송고승전〉의 연기 설화에는 신라 중대 왕실과 원효와의 친연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양자의 상호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왕실의 환우가 생겼을 때, 이를 불식시켰던 인물이 바로 원효였기 때문이다. 아마도 당대 왕실은 원효를 정책적으로 절실히 원하였던 듯하며, 원효도 이에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금강삼매경〉의 성립배경에는 신라 사회가 희망하는 불교학적 지표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성이 짙은 저술임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경’과 ‘경론’의 중심 이론인 ‘이각원통’ 사상이다. 이는 ‘이타행’에 중점을 둔 논리로서, 대중교화에 매우 유용하다.

원효는 〈기신론〉의 ‘일심 · 이문’에 의해 거의 대부분의 불교학을 정리하였다. 그 총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금강삼매론〉이며, 그의 사상이 경전화한 것이 바로 〈금강삼매경〉이다. 특히 그는 불교교학의 근본개념으로 ‘일심’ · ‘일미’에 주목하였다. 이는 제 논리를 높은 차원에서 통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상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대승기신론〉의 기제를 크게 환영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기신론〉은 대부분의 불교 교학을 수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구조를 지녔다. 이를 바탕으로 원효가 추구하는 대중교화에 다양한 교학을 부단히 적용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원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공고히 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전인 〈금강삼매경〉을 저술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의 연기설화를 시대상과 연관지어 추구해 보았다. 신라사회와 〈금강삼매경〉의 발생을 연결시켜 이해한 것이다. 〈금강삼매경〉 설화에는 신라 전통신앙의 사제인 ‘巫覡’이 등장한다. 직면한 문제에 관해,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경전의 성립배경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의 무속과 〈금강삼매경〉의 긴밀함을 알 수 있었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기제인 ‘이각원통(二覺圓通)’ 사상에 역시 주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가장 실천적인 ‘보살행’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이다. 원효의 ‘이각원통’ 사상과 ‘보살행’은 백고좌회 참석승려로 대표되는 기존 불교계와 큰 마찰을 빚었다. 하지만 원효는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제압했다. 이러한 논리는 당시 흥기하고 있던 대중교화승의 활동에 사상적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왕실은 이에 승관제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흡수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인물이 바로 원효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원효의 〈금강삼매경〉 찬술설을 타진해 보았다. 그러면서 〈금강삼매경론〉의 중심 구조와 내용을 시대상과 결부지어 규명해보고자 했다.

〈금강삼매경론〉, 원효 교학 결정판
〈기신론〉 핵심구조를 바탕으로 저술
‘이각원통’ 중심… 대중교화에 유용해
“당시 희망한 불교학 지표 담겼을 것”

우선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의 명칭 및 ‘설주’인 보살의 이름은 원효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으며, ‘경’과 ‘경론’의 유기적 관계와 〈금강삼매경〉의 주석이 원효 이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원효가 〈금강삼매경〉을 찬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했다.

〈금강삼매경론〉의 구조는 〈기신론〉의 ‘일심(一心) · 이문(二門)’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금강삼매경론〉의 ‘일미(一味)’는 〈기신론〉의 ‘일심’에 도달하는 수행법에 해당하며 ‘육품(六品)’은 그 ‘이문’에 대응된다. 세분화된 ‘육품 구조’는 결국 ‘일미’이며 모두 ‘일심’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신론〉의 실천적 변용이 〈금강삼매경론〉임을 확인하였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의 구조 속에서 ‘일승(일미)’ 사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육품’의 차별적 수행을 강조하지만, ‘여래장품’으로의 ‘평등한 회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방편적 차별’과 ‘하나의 깨달음’을 모두 지향하고 있으므로 신라중대 ‘민’의 호응을 얻었을 것으로 보았다.

〈금강삼매경론〉은 ‘일미’와 ‘십중법문(十重法門)’의 양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십중법문’의 다양한 수행은 결국 ‘일미’로 회귀한다. 따라서 ‘일미’의 측면에서 모든 수행법은 통일될 수 있었다. 〈기신론〉이 중생의 심식구조에 대한 일관된 인식(일심)을 추구했다면, 〈금강삼매경론〉은 실천행의 궁극적 합일(일미)을 표방한 것이다. 즉 ‘일미’는 ‘일심’의 실천적 · 발전적 변용임을 지적하였다. 원효의 일승(일미)사상은 기층민의 성불은 전제함으로써, 대중교화를 독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원효의 ‘이각원통 사상’의 특성을 도출해 보았다. 이는 신흥세력에게 어울릴 수 있는 논리임을 설명하겠다.

〈금강삼매경론〉은 〈기신론〉 가운데 ‘본각’ · ‘시각’설을 크게 원용했다. 깨달음의 차별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으며, 각자의 수행법을 통해 하나의 ‘깨달음(일각)’에 귀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효는 본각의 역할과 내재된 평등성을 강조함으로써 양자를 통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원효는 〈기신론〉의 논리에서 나아가 중생을 획기적으로 배려하는 수행법을 권장했다. ‘생멸문’에서의 차별상을 ‘십중법문’으로 보았지만, ‘일미관행’이라는 수행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평등론을 주장했다. ‘일각’과 ‘일미관행’은 기층민을 포섭하여 성불의 대열로 이끌려는 원효의 구상이다.

‘이각원통 사상’은 신라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권위의 수식과 결부된다. 사륜계의 등장과 신진 불교세력은 본각의 평등성에 의한 시각의 통합이라는 논리를 환영했을 법하다. 이를 통해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의식이 표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금강삼매경〉과 〈경론〉에 나타난 ‘육품’ 구조의 실천성과 시대성을 탐색해 보았다. 〈금강삼매경〉과 〈경론〉의 육품 구조는, 지적 기반이 없는 최하층 ‘민(民)’을 포괄하는 실천적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 그의 ‘육품원융 논리’는 통일전쟁기 신라의 기층민은 물론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수렴할 수 있는 획기적 기제였을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금강삼매경〉에 나타난 보살들의 명칭은 〈대승기신론〉에 나타난 개념들과 부합된다. 따라서 원효가 〈금강삼매경〉과 밀접함을 보여준다.

〈금강삼매경론〉은 원효의 사회적 · 정치적 입신을 위한 저술로 이해될 수 있다. 원효는 입당좌절 후 겪게 되는 방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과 왕실을 주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자를 위해 아미타 신앙과 ‘육품’ 구조를 이용했으며, 후자를 위해 요석궁과의 혼인이 추진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신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금강삼매경론〉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효는 〈기신론〉의 핵심구조를 〈금강삼매경론〉에 적용했으며, 나아가 모든 경전에 결합함으로써 대중교화를 적극화 하였다. 특히 원효가 〈법화경〉에 나타난 다양한 방편을 ‘육품’ 구조에 적용시켜 실천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는 불경을 〈금강삼매경론〉으로 풀이한 것으로 새로운 불교사적 지평을 마련한 것으로 인식된다. 한편으로 원효는 자신의 불교학을 적극적으로 표방하여 교학논쟁을 야기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려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원효는 당시 삼국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민의 유입과 계층분화로 발생한 민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기신론〉적인 논리를 중시했을 것이다. 〈기신론〉은 상 · 하층 모든 중생을 배려하는 실천적 논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삼국통일 과정에서 포함된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학을 아우르는 과정에서도 〈기신론〉은 절실히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백제 고구려 지역에서 다양한 교학을 수학한 승려들이 제불교학과 〈기신론〉의 교리가 담긴 원효의 핵심 저술을 거부감 없이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원효는 대부분의 경전을 〈기신론〉에 입각해 정리했으며,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금강삼매경론〉을 완성하였다. 원효는 〈기신론〉체계에 깊이 호응하면서 〈기신론〉 논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전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전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효가 〈금강삼매경〉을 창안하고 〈기신론〉적 논리를 대폭 반영했을 것이다.

〈금강삼매경〉을 주석한 〈금강삼매경론〉의 교학적 포용성은 통일기 여러 계층과 승려들에게 주목받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금강삼매경론〉의 특성과 그 역할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저자 이병학은?
1972년 서울 출생. 국민대 국사학과 졸업. 동 대학원서 석 · 박사 취득. 금석문연구소 연구원을 지냈으며, 국민대 · 배제대 등서 불교사 강의. 현재 우송고 역사 교사로 재직 중.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050-2879-8709
문의 010-3629-8709



제97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9월 7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가장 아름답고 슬픈 풍경을 만나다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⑭ 타클라마칸 사막의 불교유적



모르불탑의 모습. 〈대당서역기〉에도 나오는 곳으로 불법이 매우 번창했다. 그러나 현재는 사원 등은 모두 사라졌고, 불탑만이 화려했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타클라마칸 사막은 불교 동진사의 중요한 배경이다. 교하고성의 흔적은 이런 역사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카라코럼 지나 만난 타클라마칸
불교 東進 역사 고스란히 남아
수많은 석굴사원들 역사의 증거
화려했던 왕국들은 이제 흔적만

사막 체험. 나는 한 때 사막체험의 유무로 인간 종류를 나누기도 했다. 그만큼 사막의 의미는 크고 무거웠다. 고비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을 약간 체험해 보고 난 이후의 습관이었다. 1988년 베이징 공항에서 신강성의 우루무치로 가기 위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우리 승객은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다. 아무런 안내방송도 없이 4시간을 기다렸다. 그 때 약간 명의 서양인 사이에 일본인이 보였다. 일본 노인들은 은퇴한 친구끼리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야영하기 위해 나선 여행이라고 소개했다.

사막에서 야영을! 나는 너무 놀랐다. 당시 '중공'이라고 불리던 '죽의 장막', 그런 나라에서의 사막 여행이라니, 경악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당시 나는 '남조선' 여권을 들고 대륙에 입국한 선두 주자 가운데 하나였다. 언감생심, 사막 여행? 그래도 나는 고비사막의 돈황석굴 같은 사막의 불교유적을 찾아다녔다. 사막에 핀 꽃, 그것은 석굴사원이었다. 거대한 타클라마칸 사막의 주위에는 여러 왕국이 있었고, 또 왕국마다 불교예술의 꽃을 활짝 피우기도 했다. 현재는 중국대륙으로 다 편입되었지만, 과거의 그들은 사막의 오아시스 왕국으로 역사적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사막은 폐허, 그렇지만 인간의 탐험을 기다리고 있는 미지의 세계이기도 했다. 스웨덴의 탐험가 스벤 헤딘(Sven Hedin)은 한 겨울에 파밀고원을 답사하고 카슈카르에 도착했다. 그런 과정에서 절벽 아래로 타고 온 말을 떨어트려야 했고, 굶주린 늑대들도 만나야 했다. 사실 겨울 행군은 목숨을 거는 처절한 고난의 길이었다. 겨울 티베트를 행군할 때, 130마리의 동물을 데리고 라닥을 출발했던 헤딘은 겨우 일곱 마리만 살려 티베트에 도착하기도 했다. 사막은 탐험가의 무대로 부상되었다.

"그렇지 않다. 모래 바다는 내게 무한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왔다. 그는 사막으로 출발하기 전, 꿈을 꾸듯 몽상에 젖어 이렇게 고백했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은 가장 광대한 이 사막으로 나를 끌어들인 마력이었다. 이곳엔 영광스러운 발견과 숨겨진 전설의 열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1895년 4월의 탐험에 대하여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

"'낙타들은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있었고, 낙타의 목에 걸린 종들은 마치 장례식장으로 가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헤딘은 훗날 출발하던 날의 광경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 거리와 지붕 위로 몰려든 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뒤에 대고 '저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 한다'고 소리쳤다." –브루노 바우만, 〈타클라마칸〉 참조

스벤 헤딘(1865~1952)의 묘비명이 인상적이다. "아시아의 광활한 미개척지는 그의 세계였고, 스웨덴은 그의 집이었다."

타클라마칸 사막, 그 의미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다. 정말 무서운 말이다. 타클라마칸, 이 사막 안으로 들어간 자 결코 살아서 돌아오지 못 하리. 이 사막의 북쪽은 천산산맥으로, 남쪽은 곤륜산맥으로, 그리고 동쪽은 고비사막으로 연결된다. 거대한 산맥의 만년설이 여름에 녹아 오아시스를 만들어 준다. 고비사막은 아시아에서 가장 커다란 사막으로 알려졌다. 정말 타클라마칸 사막은 어떻게 생겼을까.

"전체 크기의 4분의 1 정도만 모래로 뒤덮여 있는 사하라 사막과는 달리 타클라마칸은 사막의 넓이만 총 33만8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사막이다. 이 사막은 히말라야 산을 낳게 했던 대륙간 '충돌'의 결과물이다. 약 4천만 제곱년 전에 인도 아대륙(亞大陸)이 아시아 대륙과 부딪칠 때 생긴 충돌의 결과, 거의 9천 미터 높이에 달하는 까마득한 히말라야가 형성되었다. 거대한 산맥으로 이루어진 장애물이 생성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후와 물의 분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타클라마칸〉 참조

나는 사막을 걷는다. 습기가 없어 오히려 상큼하기도 하다. 하지만 뜨거운 모래는 열사(熱沙) 그 자체, 맨발로 걸을 수 없다. 지표 온도 70도 정도 되어 계란을 놓으면 그대로 반숙이 된다. 뜨거운 모래도 모래이지만 맨발은 모래 속으로 파묻혀 걸을 수 없게 한다. 낙타 발처럼 넓적해야 사막을 걸을 수 있다. 광활한 대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텅 빈 공간. 사구(砂丘) 풍경. 무엇을 더 이상 내려놓아야 한단 말인가. 사막은 고독한 자의 마당이다. 목숨 걸고 가야 할 사투의 현장이기도 하다. 사막에서의 물은 그야말로 생명수이다. 사막에서 물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한다. 예전 탐험가들은 물이 없어 낙타 오줌까지 받아 마시고 또 다른 고통을 겪기도 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무섭다. 폭풍은 마을 자체를 덮어버린다. 그래서 사막 속의 폐허를 만든다. 타클라마칸의 경우, 모래에 묻혀 있는 도시만 해도 300곳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모래 바람의 위력을 설명해주는 사례이다.

하기야 스벤 헤딘은 롭 노르 호수의 이동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강의 물줄기가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물이 마른 강가의 왕국은 멸망했고, 모래 속의 폐허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누란 왕국의 폐허는 이 점을 말해준다.

사막하면 오아시스가 떠오른다.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소개된 오아시스는 사실 엉터리였다. 조그만 연못 옆에 야자수가 서 있고, 그 곁에 낙타 두어 마리가 물마시고 있는 삽화. 그게 오아시스라 했다. 하지만 사막 여행을 하다보면 이런 풍경은 볼 수 없다. 오아시스는 거대한 도시를 만들기도 해 상상 밖의 규모를 보이기도 한다.

사막하면 낙타라는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하기야 낙타 없는 사막은 있을 수 없다. 사막을 건너는 유용한 교통수단이 낙타이기 때문이다. 낙타는 어떻게 하여 사막에서 적응했을까. 카라반이라고 불리는 낙타 대열, 이 대상(隊商)은 원래 군대를 의미했지만 상업 목적의 낙타 행렬로 굳어졌다. 낙타야 말로 사막용이다. 커다란 덩치에 힘도 세고, 각질화된 둥근 발바닥은 모래에 빠지지 않고 잘 걷게 되어 있다. 치아도 튼튼해 가시가 있는 식물도 잘 먹는다. 무엇보다 고마운 일은 며칠씩 굶어도 잘 견딘다는 점이다.

등에 지고 다니는 커다란 혹은 지방(脂肪) 탱크이다. 게다가 물 마시지 않고 수분 절약하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의 아라비안 낙타는 단봉(單峰)이지만 타클라마칸 낙타는 쌍봉이어서 더 좋다. 등의 혹이 빵빵하면 영양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미이다. 낙타는 2백kg 이상의 짐을 싣고 매일 40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 낙타는 보통 일주일 걷고 하루를 쉰다. 덩치에 비하여 겁도 많아 야간 이동은 할 수 없다. 생쥐나 새들에게조차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낙타는 사막의 자가용이다. 낙타의 평균 수명은 30년 정도이다. 사막에서 타보는 낙타. 이런 낙타가 신라의 경주까지 왔다면 상상 가능할까. 사실 경주까지 낙타대열은 왔다. 그래서 토함산 석굴암의 의미를 더욱 높여주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카라코럼 하이웨이를 넘어 타클라마칸으로 진입하면 카슈카르에 도착한다. 불교 전래의 유적이 남아 있다.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우진국의 나라 호탄에 도착한다. 물론 호탄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누란 왕국과 만날 수 있다. 아무튼 호탄은 쿠차와 더불어 실크로드의 가장 화려한 왕국이었다. 실크로드 남로의 거점 지역,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 끝 타림분지에 위치해 있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와 연결되어 인도 문화를 먼저 받아들인 곳이다. 그러니까 불교 수용의 길목이기도 했다. 호탄 벽화에 남아 있는 중국에서 온 공주. 당나라에서 온 그는 비단 생산의 누에 알과 뽕나무 씨를 모자 속에 숨겨가지고 시집 왔다. 당나라의 독점사업이었던 비단생산의 대외 확산의 계기였다. 실크로드는 비단 교역의 상징성으로 이루어진 용어가 아닌가. 우진국 왕의 초상화는 돈황벽화에서도 볼 수 있다. 한때 번성했던 영화를 일러주는 증거이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서쪽 자락에 키질 석굴이 있다. 독특한 풍광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그 부근 쿰트라 석굴도 있다. 쿠차 왕국은 음악으로 유명했다. 사막을 안고 북으로 올라가면 화염산의 베제클릭 석굴과 만날 수 있다. 물론 이 부근에서 고창왕국의 폐허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비사막으로 들어가면 돈황의 막고굴, 그 옆의 유림석굴 등으로 이어진다. 석굴사원 기행은 사막을 통과해야 문을 열어준다. 교통수단과 도로망이 발달된 오늘도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그 옛날 구법승은 어떻게 이런 험로를 다녔을까. 정말 목숨을 건 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막에 꽃핀 석굴사원의 의미는 더욱 소중하다. 극과 극의 대비, 사막과 석굴사원, 묘한 조합이지 않을 수 없다. 석굴이 있어 사막을 간다, 이런 표현은 가능할까.

〈어린 왕자〉의 생텍쥐페리는 말했다. "모래언덕은 아름다움 그 자체이다. 사막은 그대에게 선물을 안겨 주고 그대를 변화시킨다. 그대 자신에 몰입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싸우며 갈증으로 들끓는 사막을 횡단하라. 눈물을 감추어라. 그러면 내 그대의 성숙을 도울지니." '어린 왕자'는 말했다.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슬픈 풍경이다."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스님! 누가 더 손해일까요?!

▣ 본사의 염불시설비가 비록 200만원대지만 명산대찰 수억대의 소리와 비교시 그 소리의 품위와 그 깊이의 차이가 비교가 안된다고 수차 말씀드렸지요! .... 자아! 스님! .. 그러면 .. 염불인생 몇십년의 소리분별 박사님들과 법당에서 귀 법당의 소리와 본사의 간단한 샘플과 마이크를 양손에 쥐고 염불을 해볼때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가 망신이고 누구의 경비가 손해일까요?! ...

▣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분만 빼고 소리구경 비교 신청을 하세요! 신청해도 안온다구요! ..... 경비 관계로 먼 곳은 여럿이 모여야만 갈 수 있기에 못갈 수도 있었음을 양해부탁 드립니다.

▣ 일반업체와 소리의 품위와 그 깊이의 차원이 전혀 다른 이유 : 음성학 전공자가 오랜 염불 오랜 소리연구 결과를 직접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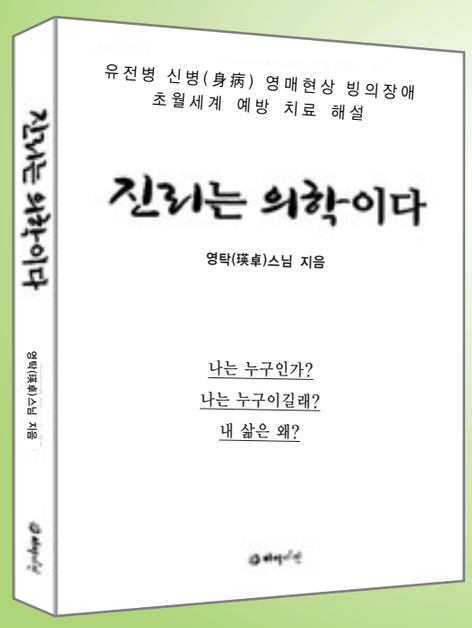
각종 방생용 동시 구경

헤드셋 무선마이크 2개, 핀마이크 2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CD, USB겸용 1개, 스피커 2개, 완벽시설 후 200만원대 스피커 계속 연결시는 비용 추가, 스피커 16개까지 연결 가능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음성학 전공, 음향시설 전문
Projector EPSON
MASS MICROPHONES
Concert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염불소리 대표 공 희

진리는 의학이다!

천불사 영탁스님이 세계 최초로 중생제도 대원력 서원을 성취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
조상영가 왕생극락 시킬 수 있는 방편 대공개!



값 15,000원 | 신국판 | 261쪽 | 하이비젼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는
삼계사생육도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잠재의식 다겁다생의 업보를 해체 분리
파괴 소멸시켜 해탈하는 초월세계
우주진리법 입니다.

신병(身病), 영매현상, 빙의장애는
완치될 수 있고, 유전병도
예방 치료 됩니다.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 문의 : 천불사 053)624-2272, 053)624-2275

영덕 유금사 발굴서 9세기 금동불 출토



영덕 유금사 3층 석탑(보물 제674호) 보수사업을 위한 정밀 발굴조사 중 9세기 경 금동여래입상이 출토됐다.

재)삼한문화재연구원(원장 김구군)은 "영덕군 의뢰로 유금사 3층 석탑이 전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금동여래입상 1구, 호신불 1구 등을 발굴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발굴된 금동여래입상〈사진〉은 완전한 모습으로 크기가 39.5cm이다. 거신광배는 탈락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잔존상태가 온전하다. 오른손은 가슴까지 올려 시무외인을 왼손은 내려 여원인을 하고 있다. 통견법의는 안에 속옷을 묶은 띠 매듭이 있고, 통견은 전체적으로 'U' 자상이며, 흘러내리는 아육양식의 주름이 음각 새김선으로 새겨져있다.

삼한문화재연구원 측은 "뒷면에 탕구 등의 구멍이 몸 전체에 뚫려 있고, 호상과 'U' 자상의 통견법의 음각새김 등으로 볼 때 9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불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월남사지 석탑서 청동사리병 발견

25일 해체보수과정서 출토



강진 월남사지 3층석탑 해체 보수 과정서 청동사리병〈사진〉이 발견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7월 25일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 중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해체보수 과정에서 청동병(높이 22cm, 가장 넓은 동체부 너비 11cm)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동병은 삼층석탑 3층 탑신석 하부에서 나왔으며, 사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현장에 나가 청동병을 수습했으며, 센터에서는 엑스레이(X-ray)와 컴퓨터단층촬영 등 비파괴조사와 부식물 제거 · 안정화 처리 · 재질강화처리 등 각종 보존처리를 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리산 권역 원효설화, 화엄 신앙에 기반"

이종수 교수, 보조硏 · 순천대 남도硏 공동 워크숍서 발표

지리산권 화엄사 등 4곳만 관계
설화 전래 사찰들 화엄종과 관련
원효-의상 간 라이벌 구조 특징
민중 설화선 원효가 우위를 점해
"국내 학승 우월성 드러낼 의도"

지리산 권역에 전래된 원효 스님 설화들이 스님이 역점을 둔 '화엄 신앙'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수 순천대 HK 교수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과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소장 남호현)가 개최한 공동 하계 워크숍 학술 세미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리산권 원효설화의 특징과 문화사적 의미' 발제에서 지리산권 원효 설화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원효 설화 전승 사찰은 남한에만 56개소이다. 이중 원효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은 40개소, 수행처는 7개소, 중창 사찰 5개소, 주석처 3개소, 오도처 1개소로 분류된다.

이를 다시 지역으로 나눠보면, 지리산 권역의 원효 관련 사찰은 전남 구례 화엄사, 사성암과 경남 산청 율곡사와 정취암에 한정됐다. 이 교수는 이들 4곳 사찰에 전해지는 원효 설화의 내용과 특징들을 분석했다.

화엄사의 경우 원효와 의상의 문답이 설화로 전해지는데, 이 안에서는 '문수보살 상주설법처', '민족'과 같은 용어가 나온다. 이 같은 용어를 통해 전근대시기 원형이 만들어진 후 근대까지 계속 덧붙여지며 설화가 구성돼 왔음을 추정했다.

이 교수는 "조선시대까지도 오대산이 문수보살 상주처로 널리 신앙되고 있어 지리산에도 문수보살이 상주한다는 믿음이 정착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또한 민족이라는 용어는 근대의 산물로, 민족을 운운하는 내용은 근대 이후 삽입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성암 전승 설화를 제외하면 나머지 3곳의 전승 설화는 원효와 의상 스님을 경쟁 구도로 설정해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지리산권 원효설화에 등장하는 원효와 의상은 고려시대 이후 두 스님을 경쟁 관계로 보고자 했던 당대 사람들의 생각이 투영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중국 최고 고승보다 도력이 높았다고 알려진 의상 스님을 원효 스님보다 도력을 낮게 설정함으로서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순수 국내 학승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지리산 권역서 전승되는 설화의 설정은 원효와 의상의 사상에 근간이 된 '화엄'과 연결된다고 봤다.

특히 고려 화엄종의 수장이었던 대각국사 의천이 원효와 의상을 높이 평가해 각각 '화쟁국사'와 '원교국사'로 추증해 비문을 세운 뒤 원효도 화엄종 개창의 주요 스승으로 인식됐음을 주목했다.

이 교수는 "고려 화엄종의 수장이었던 의천이 원효를 재평가함에 따라 원효는 다시 불교사상사의 전면에 재등장했다"면서 "화엄 신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원효와 의상은 라이벌로 여겨져 왔고, 그런 인식들이 설화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계승이었던 원효가 지계승이었던 의상보다 민중들에게 친근하게 받아들여졌고, 그의 전기에 나타나는 기행으로 인해 의상보다 도력 높은 승려로 인식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밖에도 학술세미나에서는 김호성 보조사상연구원장(동국대 교수)이 '원효의 징성가에 대해'를 발표했으며, 논평자로는 석연경(시인, 청암대), 김춘호(원광대)가 참여했다.

'남도문화에서 원효의 재발견'을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는 순천대에서의 학술 세미나를 비롯해 송광사, 불일암 순례 등이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세종 학술 · 교양 도서 佛書 10종 선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부문별 선정 결과 발표
학술서 철학 · 종교서 '강세'
교양 부문 서적 3종 불과



올해 우수한 학술 및 교양 도서를 선정하는 '2017 세종도서'에 불교 관련 도서 10종이 선정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기성)은 7월 21일 세종도서 학술 · 교양 부문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불교 관련 서적은 학술 부문 7종, 교양 부문 3종 등 총 10종이 선정됐다.

학술 부문 도서로는 박태원 울산대 교수의 〈돈점 진리담론:지눌과 성철을 중심〉을 비롯해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의 〈심층마음연구:자아와 세계의 근원으로서의 아뢰야식〉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의 〈요가수행자의 불교적 바탕:유가사지론의 인도 · 티베트 · 동아시아 전파〉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의 〈인도철학에서 본 근현대 한국불교 사상가〉 △가츠라 쇼류의 〈인식론과 논리학〉 △사재동 충남대 명예교수의 〈불교문학과 공연예술〉이 이름을 올렸다.

학술 부문 중 철학 분야에서 선정된 박태원 교수의 〈돈점 진리담론〉은 돈오사상의 시작부터 돈점 논쟁의 핵심을 지눌(1158~1210)과 성철(1912~1993) 스님을 중심으로 살피고, 돈점 논쟁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담론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자경 교수의 〈심층마음의 연구〉는 우리의 심층마음인 아뢰야식이 어떻게 깨어 활동하는지, 아뢰야식이 어떤 방식으로 자아와 세계의 근원이 되는지를 밝히고 있다.

김선근 교수의 〈인도철학에서 본 근현대 한국불교 사상가〉는 인도 고대종교를 회통한 불교의 초기 모습부터 근현대 한국불교를 이끈 동산, 청담, 태허, 석주, 성철, 광덕 스님 등을 조명했다.

상반기 교양 부문에는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불교를 철학하다〉를 비롯해 △장웅연(장영섭) 불교신문 기자의 〈불교에 관한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물음49〉 △김택근의 〈성철 평전〉이 선정됐다.

학술 부문에서 불교는 강세를 보였다. 철학 분야에서도 2종이 이름을 올렸고, 9종이 선정된 종교 학술에서는 4종이 선정되는 성과도 나왔다.

반면, 교양 부문에서는 12종이 선정된 종교 교양 분야 서적 중 단 2종만이 불서였다. 실제 5월 22~31일 도서를 선정한 심사위원회는 총평을 통해 "불교서적 중 법문은 선정에서 제외했다. 교양적 지식 습득과 대중성을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뒀다"면서 "전체적으로 불교 관련 서적이 적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도서는 옛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이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매년 선정 · 발표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선정 도서에 대해 종당 1000만 원 이내에 구입해 공공도서관 등 1100여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효당 최범술, 만해전집 발간 주도"

김광식 교수, 27일 만해학회 세미나서 주장

만해 스님과 효당 최범술 스님의 관계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만해학회(회장 김광식)는 7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만해와 효당 최범술'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만해와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관계를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특히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만해학회장)는 '만해전집' 발간에 있어 효당 최범술의 역할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한용운 전집 발간과 만해사상의 계승'을 통해 '만해전집' 발간이 3차례 시도되며, 이 중심에는 효당 최범술 스님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만해전집' 발간 추진은 만해 스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방공간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6.25전쟁으로 인해 소기 성과를 내지 못했다. 2차 시도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이뤄졌다. 이때 주역은 고려대 문학회를 이끌고 있었던 조지훈이었다. 이때 작업공간은 다솔사와 각지의 도서관 등이었고, 1만매가 넘는 원고가 작성됐지만 출간되지는 못했다. '만해전집'이 빛을 본 것은 1973년 신구문화사의 출간으로 인해서다. 당시 발간을 주도한 게 바로 효당 최범술 스님이다.

김 교수는 "효당은 1918년 해인사 지방학림 수학 중 만해의 강연을 들었고, 1933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청년총동맹의 집행위원장을 할 때부터 본격적인 사제관계가 된다"며 "이때부터 만해사상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만해의 자료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당은 '만해전집'을 편집 · 발간케 한 주역"이라며 "요컨대 그는 전집 간행위원회의 대표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만해학회(회장 김광식)는 7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만해와 효당 최범술'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2017년 불교학과 51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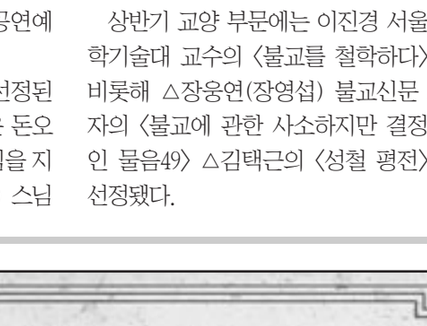
불교학과 [9월 2일(토) 오후 5시 개강]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CD 배송]



학 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과 목	1. 화엄경 2. 아이타경과 정토 3. 대승불교와 밀교 (천수경)	4. 불교의 체계적 이해 5. 불교문화 6. 선불교	7. 근본불교 8. 반야심경 9. 유식불교	10. 인도불교 11. 중국 · 한국불교 12. 법화경
교수진	법산스님(본대학장), 정엄스님, 주명철교수, 정성준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활인스님, 김호귀교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최종남교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박종교수, 차차석교수, 정병조교수			

모집인원(불교학과) 10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원서교부 및 접수 2017년 8월 1일부터
문의 02)732~1206~8

※ 한글의식반 · 전통의식작법(2년 과정) 9월 9일(토) 오후 1시 30분 개강
※ 전통범패의식반(2년 과정) 9월 13일(수) 오후 2시 개강
※ 다도학과(2년 과정) 9월 12일(화) 오후 2시 개강
※ 불교미술학과(3년 과정) 9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개강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 02)732-1206~8 F. 02)732-1207 http://www.dongsanbud.net

제7회 반야학술상 공모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제7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 우수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야학술상은 매년 저술상과 논문상 두 분야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연구자들의 많은 추천과 응모 바랍니다.

저술상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출간된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창의적인 저서 및 역서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저자 1명에게 500만원 지원

논문상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국내외 불교학, 종교학 및 철학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불교학 및 불교문화 우수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저자 1명에게 500만원 지원

추천 및 응모 마감 2017년 8월 31일 (우체국 소인 확인된 것까지)

추천 및 응모방법은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banyaresearch.org)를 참조바람.

시상일 및 장소 추후 공지

문의처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구자상 (010 · 4731 · 3471) 우명주 (010 · 9027 · 5193)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후회 없게 개운하게

새벽 2시, 법당에 다녀와 나무침상에 앉아있다. 빗줄기는 거세게 폭포처럼 내리고 있다. 흥건히 몸과 마음이 빗물에 젖어 감기 기운을 키울 것 같다.

방금 끓여놓은 커피 잔에서 향긋한 내음이 코끝을 자극하며 적당히 행복하게 온 몸으로 파고든다. 마른장마의 긴 목마름이 물 폭탄으로 또 다른 피해를 몰고 올지 모를 일이다.

세상일이란 날씨의 변화처럼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짙은 안개처럼 자욱한 느낌이 없지 않다. 요즘 장맛비는 예전과 다르게 좁은 지역에서도 가뭄과 홍수를 연출하며 손오공처럼 뛰어다니고 있다.

나이가 들면 몸만 늙는 게 아니다. 마음에도 흰 머리카락이 늘어 빈 뜰의 허무감을 키우고 있다.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날짜를 헤아릴 정도에 이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아름답게 눈물방울로 남을 터이다.

청춘만 아픈 게 아니다. 늙음이 깊어갈 수록 하루가 소중하고 매 순간이 금싸라기처럼 아름답다. 없으면 없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며 비우며 살아간다. 만나는 사람이 모두가 스승이고 착한 벗이 된다. 날마다 철이 들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다.

떠난 사람은 언제나 더 커 보이고 지난일은 적당히 부끄러워 지우고 싶다. 열손가락을 폈다 오므릴 수 있는 기적이 오늘도 건강하게 허락될 터이다. 살아있음은 그대로 축복이면서 기적이다. 움직일 수 있음은 그대로 오늘의 주인공으로 넉넉한 삶이 보장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기적이다. 움직이는 부처요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이기 때문이다.

가끔씩은 그리운 얼굴을 추억의 숲에서 꺼내 작설차를 나누고 싶지만 혼자만의 대화는 길게 이어질 수 없어 허무의 그림자로 막을 내린다. 먼저 떠난 도반들의 해맑은 미소가 가슴속에서 몇 송이의 연꽃이 되어 떠다니고 있지만 추억은 아름다운 만큼 아프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빛보다는 어둠 쪽의 그림자가 길게 다가온다. 빛과 어둠이 둘이 아닌 줄은 알고 있지만 팍팍하고 고단한 삶의 지느러미엔 언제나 마른 버짐의 가려움이 남아있다.

늙으면 추억으로 산다지만 늙으면 마무리 작업으로 수레바퀴의 흔적을 가볍게 개운하게 꽃 이파리처럼 아름답게 남기며 살 일이다. 꾸밈보다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순수하게 속지도 속이지도 않는 진솔함이 넉넉하게 널려 있어야 편안하다.

속임은 불편함을 몰고 오지만 솔직함과 순수는 그대로 행복이 되고 자유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해질 무렵, 챙기고 모으고 쌓아둔 것들을 양심의 마당에 펼쳐놓고 타작해 보자. 만날 수 있는 알곡은 몇 알 안 되고 수북이 쌓인 검불떼기에서는 찬바람이 가슴 싸한 후회로 남을 터이다.

모질게 억세게 매몰차게 선(線)긋고 편 가르며 땅뺏기 놀이처럼 나를 위해 살아온 삶이 달아난 어금니의 아픔이 되어 짠한 그림자로 남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한 집착의 굴레는 마음과 육체의 병으로 남아 노년(老年)의 남은 삶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터이다.

놓을 줄 알고 비울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법이다. 늙으면 한걸음이 아닌 서너 걸음 물러나는 지혜를 실천해야한다.

가끔씩 착한 도반을 찾아가거나 찾아오게 해 작설차, 커피향으로 마음을 나누며 덮이며 살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간다. 병이 든다. 죽는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후회 없는 개운함으로 맑고 밝게 살 일이다.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은 오늘 뿐이다. 오늘의 참 주인공으로 할 일없는 넉넉함으로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살 일이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생활의 언어일 수 있게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후회 없이 살 일이다.

장맛비를 내 남은 생에 몇 차례나 만날 수 있을는지. 훅! 불어 꺼져버리는 호롱불처럼, 지는 꽃 이파리를 닮고 싶다. 후회없게, 개운하게.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후회 없는 개운함으로 살아가자

온 세상이 한 개의 公案
〈공안〉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공안(公案)이란 본래 공부안독(公府案牘)의 줄인 말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청의 법령을 말하는 것이다. 선가(禪家)에서는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제시한 어구나 행동, 제자들과 나눈 대화, 깨달음의 계기가 된 어떤 정황 등을 참선의 모범적인 법도로 삼아 이를 공안이라 말해 왔다. 특히 간화선에 있어서는 이 공안이 풀어야 할 평생의 숙제가 된다. 간화선은 공부의 핵심이 공안 타파에 있다고 말한다.

〈벽암록〉 서문에 보면 "기록을 모아 공안집을 만들고, 기연(機緣)과 경지를 펼쳐 모범적인 법령으로 삼은 것은 세간의 금과옥조(金科玉條)나 청명대월(淸明對月) 등의 책들과 다를 것이 없다. 조사가 공안을 세우고, 총림에 남겨둔 것은 그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고 공안의 의미를 밝혀 놓았다.

공안을 통하여 견성(見性)을 지향하는 것이 간화선의 목표이다. 다시 말하면 공안은 사람을 견성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수단이자 방법인 것이다. 또 화두(話頭)라 하는 것은 공안에 제기된 핵심적인 말을 두고 하는 말이다. 행(行)·주(住)·좌(坐)·와(臥)·어(語)·묵(默)·동(動)·정(靜) 등 모든 영역에서 이 화두를 궁구하는 것이 간화(看話)이다. 하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인연에 적용하는 것이 화두공부다.

"온 세상이 한 개의 공안이다"라고 한 말도 전해진다. "고금의 공안을 궁구하여 마음을 밝히고, 대기대용(大機大用)을 얻어 한 치의 아름아리도 없게 되면 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안온한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공안을 눈앞에서 실현해 드러내 보이는 것을 현성공안(現成公案)이라 한다. 〈종용록〉 45칙에는 "공안을 현성하려면, 다만 자신의 본분가풍(本分家風)을 근거로 해야 하고 자기 본분 밖으로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서암사언(瑞巖師彦: 생몰연대 미상) 선사에 의해 창안된 특별한 공안이 하나 있다. 바로 '주인공' 화두다. 암두전활(巖頭全豁:828~887)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암두의 법을 이은 서암 선사가 스스로 '주인공아!' 하고 부르고 스스로 '예!' 하고 자문자답한 일에서 나온 화두다.

〈선문염송설화〉 988칙에 주인공 이야기가 나온다. 현사사비(玄沙師備)가 어떤 스님에게 묻고 스님이 답한 대화가 있다.

"요즈음 어디서 떠났는가?" "서암(瑞巖)에서 떠났습니다." "서암이 무슨 말을 하던가?" "늘 '주인공아' 하고 불러놓고는 스스로 '예' 하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나중에 남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현사가 말하였다.

"하나같이 정혼(精魂)을 놀리니 매우 괴이한 일이로다."그리고 다시 물었다. "왜 거기에 있지 않고 나왔는가?" "서암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사가 또 물었다. "지금도 대꾸를 하던가?" 그러자 스님이 대답을 못했다.

서암 선사가 스스로 주인공을 부르고 답했다는 이야기가 '주인공' 공안이 된 것이다. 주인공은 곧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 쓴 말이다.

죽암(竹庵)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 법문을 할 적에 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사대(四大)와 오온(五蘊)의 종결점을 알려면 먼저 주인공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주장자를 세우고 말하였다.

"주인공이 간 곳마다 드러나서 거울같이 맑고 허공처럼 넓다. 잘 비추고 잘 포용하나니, 모든 것이 바로 그곳에서 만나고, 일어나건 앉건 함께 웃고 말한다. 오래도록 또렷또렷하여 어둡지 않고 대답할 줄 알며, 고개를 끄덕일 줄도 알고 눈망울은 튀어나오며 머리카락은 너울너울한다. 바람은 호랑이를 따르고 구름은 용을 따른다. 용은 하늘로 오르고 학은 둥지에서 나와 푸른 하늘을 천만 겹을 뚫고 벗어났다. 대중들이여, 벗어난 뒤엔 어디로 갔는가?"

또 주장자를 세우고 말하였다.

"화표주(華表柱: 길거리에 세워 이정표로 쓰는 푯말) 끝에다 말(語)을 남겨둔 뒤로 아직껏 아무 소식이 없구나."

서암 선사의 주인공을 두고 운문고(雲門 皐 또 이렇게 송(頌)했다.

"서암 선사의 가풍이 주인공을 부르니 지난밤 남산에서 호랑이가 호랑이를 물었다.(昨夜南山 虎咬大蟲)"

자비,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④공덕을 맛보게 되면

有嘗功德味者得自在修福得他報恩勝氣味。夢中 不爲己修福。況復覺時。以智能見過終不求有造福。悲心者終不爲解脫修福。智者棄求有業。悲者棄解脫業。所以者何。悲者爲利益他故。無勝智慧平等造作。因福一果福無與等者。從十力得智。爲己得樂捨利他樂名背恩者。唯我能知。從佛得知故一切眾生是我修福之伴。設當得果而獨受用名背恩者。極難得樂豈得獨受。其如是丈夫爲一切所棄。設得千涅槃樂不爲饒益。不如救一眾生苦勝得千涅槃樂。解脫樂 不獨受。何以故。見世間眾生無歸無救故。 不獨受解脫樂。況復無上菩提。

번역 | 공덕의 맛을 본 사람은 복 받는 것에 자유자재하며, 타인에게 은혜롭게 보답하는 수승한 기운의 맛을 얻습니다. 꿈에라도 오히려 자신의 복 닦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물며 다시 깨달았을 때도 지혜로 과오를 보며 끝내 복 짓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비심이란 끝내 해탈을 바라서 복을 닦지 않기 때문이니 지혜란 구함을 버린 업이며, 자비란 해탈을 버린 업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자비란 타인을 이익케 하는 것이며, 위 없는 지혜는 평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니 복의 인연과 한결 같은 복의 과보는 더불어 짝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십력(十力)을 따라 지혜를 얻되 자기를 위한 즐거움을 얻고 타인의 즐거움을 저버리는 것을 일러 배은(背恩)이라 합니다.

오직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따르는 앎을 얻었기에 일체 중생은 내가 닦을 복의 짝이 됩니다. 설령 응당 과보를 얻어도 홀로 받아쓰면 배은자(背恩者)가 되거니와 심히 얻기 어려운 즐거움을 어찌 홀로 받겠습니까. 이러해야 대장부이며 일체를 버린 것이니, 설령 천 가지 열반락을 얻어도 이익 될 게 없습니다. 한 명의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고 수승한 천 가지 열반락 얻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해탈락(解脫樂)은 늘 홀로 받지 않나니 어째서 그런가 하면, 세상의 중생은 돌아갈 것도 없고 구제할 것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홀로 해탈락을 받지 않나니, 하물며 다시 위 없는 보리(菩提)이겠습니까.

해설 | 십력(十力)은 부처님의 열 가지 전능한 힘을 상징한다. 첫째, '처비처지력(處非處智力)'은 도리에 맞는 것과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변별하는 지혜다. 둘째, '업이숙지력(業異熟智力)'은 업인과 업과를 아는 지혜다. 셋째, '정려해탈등지등지지력(靜慮解脫等持等至智力)'은 사선(四禪), 팔해탈(八解脫), 삼삼매(三三 Ṃ, 팔등지(八等地) 등의 선정을 아는 지혜다. 넷째, '근상하지력(根上下智力)'은 중생의 근기를 아는 지혜다. 다섯째, '종종승해지력(種種勝解智力)'은 중생의 가지가지 희망을 아는 지혜다. 여섯째, '종종계지력(種種界智力)'은 모든 중생계와 법계를 아는 지혜다. 일곱째, '편취행지력(遍趣行智力)'은 중생이 가는 곳을 아는 지혜다. 여덟 번째, '숙주수염지력(宿住隨念智力)'은 자타의 과거생을 아는 지혜다. 아홉 번째, '사생지력(死生智力)'은 중생의 죽음과 삶의 아는 지혜다. 열 번째, '누진지력(漏盡智力)'은 번뇌를 끊고 열반에 이르는 지혜다.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 이러한 열 가지 얻어도 능력을 얻어도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다면, 이는 부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중생도 한 생각 돌이키면 이미 열반이기 때문에 중생은 각자의 개인이 아니라 부처님 세계의 공동체이며, 일원이다. 나와 다름없는 불이(不二)의 구성원이다. 은혜를 같이 할 이들이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한마음 원리로 과학 문명 분석하다

한마음과학원, 22~23일 수련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서 진행

물질계와 정신계는 하나 강조
의학 · 사회과학 등 분야별 발표
"한마음의 원리, 인류행복 증진"


한마음과학원은 7월 22~23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현대 과학 기술 분야를 한마음의 원리로 연구한 성과를 발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대 과학기술 분야를 한마음의 원리로 연구한 성과를 발표,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7월 22~23일 1박 2일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련회에서 한마음과학원은 현대 과학 문명 분야를 한마음의 원리로 설명하고 각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한마음의 원리는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닌 하나로 돌아가는 진리를 말한다. 현대 과학 문명이 고도화 되고 색계(色界)의 기본은 물질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신계의 원리와 작용을 먼저 알아야 생명을 위한 완전한 과학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발제는 각 팀 별로 △한마음법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 △오공의 철학적 조명과 현대적 실천 방안 △한마음 관점에서 바라본 생명현상 △인체 내 공생 미생물 그 실체와 작용 △한마음교육의 인간관과 목적 △플라톤의 교육관에 비춰본 한마음 교육의 원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정진 시간 및 활성화 방안과 학술 대회 준비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공 사상'에 대해 한마음과학원 오공팀은 "기신론의 체상용 철학이 마음의 본질, 속성, 작용에 대한 정의를 체계적으로 조명했다면 오공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마음의 존재 원리를 공동체 관점에서 실천적으로 구체화하고 조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마음의 활동은 보살의 삶이다. 보살이 중생들과 함께 살면서 중생구제에 원을 세우고 바라밀행과 더불어 다양한 방편을 구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마음의 실현이다. 오공에서 한마음의 작용은 공용, 공생, 공식"이라고 말했다.

한마음과학원 식물팀은 "클래식 음악이나 긍정적인 언어가 식물의 성장 촉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된다"며 "관련해 선법가와 큰스님 법문이 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식물도 불성이 있고 마음으로 통신된다는 대행 선사의 법문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라고 보고했다.

의학팀은 "모든 학문 분야의 해답이 대행 선사의 법문 '허공을 걷는 길'에 들어 있다. 해답은 알지만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실천에 기인한다"며 "법문을 기초로 심성의학의 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과 관련한 대행 선사의 법문은 의학 분야 차세대 연구자들에게 질병 치료의 바른 길을 제시하며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음교육법문교재 개발팀은 "한마음의 원리가 일반사회 교육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교육학을 개발하는 것이 본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이 목표를 위해 1차적으로 대행선사의 법어집 〈허공을 걷는길〉에서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고 정리 중이다. 아울러 관련되는 일반 교육이론이나 사상들을 또한 정리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이자 한마음과학원장 혜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행 선사께서는 과학원이라는 우주 마당에 각 분야 전문가이자 정신계 차원의 높은 능력자들을 이끌고 심어주셨다"며 "과학원 소임자들과 멤버들이 기반을 다지고 열심히 활동한 결과가 많이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도 스님은 "우주의 근본이자 만생명의 근본인 마음의 세계를, 각 전문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증명해 나가는 여러분과 함께 수련회를 열게 되어 기쁘다"며 "보이는 세계 보다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만을 향해 극도로 치닫고 있다. 이 가운데 마음과 물질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인류 행복을 증진 시키는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구도자이자 보살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련회에는 한마음과학원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장 혜솔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한마음과학원 지도법사 혜찬 스님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聯 "불교 위해 더욱 진력할 것"

하반기 추진사업 발표, 부산불교 100년사 정립 주요 내용



부산불교가 2017년 하반기 불교 분야의 수행 · 포교 · 연구 · 문화사업 관련 계획을 보고 및 발표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회장 박대성 · 이하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7월 26일 부산 삼광사 문화실 법당에서 7월 사찰순례법회를 열고 상반기 진행사업 및 하반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사찰 순례 △부산불교합창제 △대학생 불교동아리 지원 △자비나눔 △사명대사 추모대법회 △부산불교 100년사 연구 △ 팔관회 등을 계획하고 수행 · 포교 · 연구 · 문화 분야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부산불교 100년사〉 연구 지원을 위해 1년 사업 20여개 가운데 가장 많은 집행비 2,000만원을 지원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상반기 포교 사업으로 2017년 연등축제, 부산창작문예마당, 대학생 불교동아리 템플스테이 지원 등 20여개 사업에 총 사업비 8,000만원을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박대성 회장은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불교계가 앞장서서 어린이와 청소년포교 그리고 복지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머지않아 한국불교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인재불사에 관심을 독려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종교지도자, 광복 72주년 평화기도회

8월 11일 기장 청량사서 개최

부산 6대종교 지도자들이 광복 72주년을 맞아 세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다.

공동선 실천을 위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여, 이하 공동선실천협의회)는 8월 11일 오전 11시 30분 기장 청량사서 '광복 72주년 평화 기도회'를 개최한다. 공동선실천협의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기도회를 열고 광복의 의미를 돌아보며 지구촌 평화와 남북평화 통일 및 종교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6대 대표 종교 의식을 서로 존중하며 기도회를 진행하고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과 인사말 및 축사 등으로 의미를 되새긴다. 아울러 회장 정여 스님은 △남북정상회담 △남북 교류 여행 △비무장지대 남북 물물교환 장터 설치 △남북 문화 교류 △남북 역사학자 교류 △남북평화협정 체결로 대립과 상호 비방 해소 △남북 공동으로 북한 자원 개발 △북한에 생필품 공장 설립 등 13가지 평화통일 방안도 제시한다.

공동선실천협의회 평화 기도회에는 정여 스님을 비롯해 금어사 주지 월강 스님 및 김계춘 신부 등 불교 · 개신교 · 유교 · 원불교 · 천도교 · 천주교 지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학대 어린이 후원과 재즈 공연, 자비로 일심동체!

안국선원 교육관, 문화와 자비 함께한 특별 공간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바자회와 재즈 문화 공연이 7월 26~27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열렸다.

학대 피해 아동 후원을 위한 착한 바자회와 재즈 문화 강연이 함께 열리며 자비나눔과 문화 공연이 한 자리에서 어우러졌다.

사회복지법인 안국(이사장 천양자)은 7월 26~27일 안국선원 교육관 2층 소강의장에서 '학대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 바자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안국선원 교육관(주지 석산)은 2번째 문화기획 천하태평 '라이브 재즈 강연 올 댓 재즈(All that Jazz)-재즈로의 여행'을 대강당에서 같은 날 1박 2일간 개최했다. 이날 부산 불교 신도 600여명이 학대 피해 아동 후원에 참여했으며 자비나눔 실천과 함께 문화 공연이 열려 특별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복순(69) 선향다회장은 "오늘 나눔으로 행복하고, 문화로 힐링이 된다"며 "지난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와 MOU를 맺은 날 학대 관련 강연을 듣고 마음이 아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다. 불교 대사회 활동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정희(50) 씨는 "좋은 장소에 와서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고 자비 나눔과 문화로 힐링을 얻었다"며 "바자회 용품 품질도 뛰어나서 많은 자모님들의 후원 요청을 받아 함께 구매했다.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바자회 물품은 유아 아동 용품으로 의류 · 신발 · 악세사리 등이며, 알로&루 · 포래즈 · 알퐁소, 샤르반 등을 운영하는 유아동 기업 제로투세븐에서 후원했다. 아울러 물품이 일반 시중가보다 대폭 할인돼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후원에 동참할 수 있어 기뻐했다. 바자회 후원 성금은 사회복지법인 안국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전달되며 아동들의 보호 양육 및 심리 치료 후원에 사용된다. 사회복지법인 안국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16년 1월에 개소해 20여명의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했으며 현재 6명의 아동이 머물고 있다.

공연은 먼저 재즈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강연자는 잠바 오재이(Jamba O.J)로 애니메이션 영화 엔트리(Entry) 음악 감독 및 부산재즈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실력가다. 현재 울산 KBS 라디오 즐거운 음악여행에 고정 출연 중이다.

한편, 3번째 천하태평 공연은 8월 19일 오후 2시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열리며 속사포 랩퍼 아웃사이더를 만날 수 있다. 하성미 기자

노인요양시설 '자비원' 신재관 낙성

노인 30여명 추가 수용 가능해져



팔공총림 동화사 부설 동화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자비원'의 신관인 '신재관' 낙성식이 7월 21일 열렸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동화사 주지 효광스님(동화복지재단 이사장)과 국장 소임스님들, 강대식 대구 동구청장, 동구의회장, 동화사 신도회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신관 선재관은 연면적 약 71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프로그램실, 침실, 간호사실 등의 시설로 구성된다. 2009년 설립된 자비원은 선재관이 건립되면서 기존 50명에서 30명이 늘어난 총 80여명의 어르신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자비원 원장 덕유 스님은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비의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내 부모, 형제처럼 잘 보살피고 모시겠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매우 만족 - 99%"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부가서비스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일정관리, 신도영가 기일 자동 알림,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의 다운로드 가능, 물품관리 등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현대불교신문
구독 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山寺서 다문화가족 사랑 느껴요"

광주 동구, 산사체험 · 요리교실 운영

지역 관공서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산사체험을 운영해 화제다.

광주 동구청(청장 김성환)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산사체험과 요리교실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월 26일 밝혔다.

동구청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월 18~19일까지 1박2일 일정의 다문화가족 산사체험을 운영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무등산 증심사(주지 연광)에서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증심사 답사 △타종체험 △촛불의식 △자연과 함께 보물찾기 △놀이체험 등 다채로운 힐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신청자격은 동구에 주소를 둔 초 · 중학생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4인)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8월 10일까지 각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동구청은 불교단체인 자비신행회 후원으로 한국음식이 낯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빛고을자연사찰 음식체험관에서 요리교실을 운영한다.

요리교실은 오는 9월 6일부터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표고버섯우엉밥, 불고기, 된장찌개, 잡채, 김치 · 된장찌개 등 한국전통 가정요리와 생활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동구에 주소를 둔 결혼 5년 이내 이주여성이며, 참가 희망자 각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무등산 동원사, 석가모니불 개금불사

7월 16일, 재가불자 5계 수계식도



광주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는 7월 16일 대웅전 주불인 석가모니불 개금불사와 원불 봉안을 회향하며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회주 지각 스님, 주지 지장 스님, 박주선 국회의원, 김성환 동구청장을 비롯해 신도 등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타종을 시작으로 △점안의식 △육법공양 △회향기도 등의 의식이 이어졌다.

주지 지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신도님들의 정성과 발원으로 개금불사와 원불봉안이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다"며 "동원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1부 점안식에 이어 2부 행사는 지각 스님, 무등 스님, 일명 스님 등 7증사를 수계법사로 한 재가불자 5계 수계식이 열렸다. 회주 지각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의 계율은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규율로 늘 경계하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착한벗들, 전북공동모금회 우수기관 선정

전북지역에서 이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사단법인 착한벗들(대표 회일)이 7월 20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17 나눔캠페인-유공자시상식'에서 배분사업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사회공동복지모금회장상을 수상했다.

착한벗들은 지난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활동 다각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다문화요리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

다문화요리체험교실은 전주시와 완주군 소재 지역아동센터 34개소 총 62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과 아동센터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착한벗들은 올해에도 연속 사업으로 이어오고 있다.

착한벗들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어 능력과 문화 이해도가 부족해 사회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다. 일자리 또한 식당, 제조업 등 3D업종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라며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모국 음식을 활용해서 강사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자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들 봉사활동 이렇게 많나?

탑사 · 쌍봉사 · 고림사 자원봉사 박람회서 청소년 부스 운영해



광명사 송운 스님과 불자들이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위해 떡볶이를 준비하고 있다.

진안지역 사찰들이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 고림사(주지 성목)는 7월 21일 제2회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가해 △합장주 만들기 △불교관련 상담 △떡볶이 스님 요리솜씨 보여주기 등 각종 부스를 운영해 400여 청소년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안군 군민자치센터 앞마당에서 열린 청소년자원봉사 박람회는 '오늘은 자원봉사하기 좋은 날! 우리 함께해요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됐으며, 진안지역 사찰 스님들은 불자들과 함께 참여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과 정해 스님, 광명사 송운 스님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제공했다. 이날 유명 호텔 쉐프 경험을 갖춘 광명사 송운 스님이 선보인 치즈떡볶이는 청소년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또 스님이 직접 소스를 개발한 떡강정 꼬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입맛에도 손색없을 만큼 많은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송운 스님은 "더운 날씨에도 자원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대견하다. 조금이라도 격려하고자 치즈떡볶이와 떡강정 꼬치를 준비했는데 청소년들의 호응이 좋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먹을거리를 개발해 전법활동의 한 방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쌍봉사는 합장주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여 청소년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색상의 합장주는 특히 여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보경 스님은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불교적인 프로그램을 고민하다 색깔이 독특한 합장주를 선택했다"며 "이 때문인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번 체험부스를 계기로 불교적이면서도 청소년들이 좋아할 프로그램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처음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가한 고림사는 참가한 학생들에게 저녁식사와 컵라면, 떡, 생수 등을 제공했다.

한편 이번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에는 진안지역의 29개 종교단체와 자원봉사단체 등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진으로 다시 보는 부처님오신날

광주불교연합회 사진단 8~11월 지역 순회 전시



지난해 향림사서 열린 지역순회 사진전. 스님과 재가불자가 사진문화기획단원들의 봉축사진을 감상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의 환희를 사진으로 되새기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증심사 주지)는 8월 7~11일 광주 서구청 로비서 부처님오신날 지역행사를 사진으로 담은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어 8월 14~18일 동구청, 8월 28일~9월 1일 광주시청서 잇달아 전시회를 열고, 11월까지 총 10개 사찰을 순회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사진작품은 광주불교연합회 산하단체인 사진문화기획단(단장 무등) 회원들이 찍은 것이다. 광주천서 열린 전통등 전시회를 비롯해 어울림한마당, 제등행렬, 빛고을관등회, 각 사찰 법요식 등 다양한 부처님오신날 관련 행사와 불자들의 환희심 넘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광주광역시청을 비롯한 관공서 로비에 전시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고, 개막일에 맞춰 구청장 등 각급 기관장이 참석하는 개막 테이프 커팅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순회 전시는 증심사 취백루, 향림사, 종립 정광고등학교 등 주요 사찰과 학교 등 전시를 희망하는 곳의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전시하게 된다.

한편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진문화기획단은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특별기획단으로 각 사찰의 사진 활동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광주지역 사찰 불자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과 출사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불총림 백양사 전남지방우정청 MOU

사찰 · 우정문화 홍보 앞장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토진)와 전남지방우정청(청정 김성칠)은 7월 27일 백양사 경내에서 '사찰문화와 우정문화 상호교류 협약'을 맺고 양측의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사찰문화 및 우정문화 홍보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는 향후 사찰과 우체국의 상생운영을 위해 협조하는 것 외에도, 백양사의 살아있는 역사와 사찰문화를 우표 및 엽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우정문화의 상품 판매 등을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오른쪽)과 김성칠 전남지방우정청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난치병 환아 기금 전달

심장질환 A군에 200만원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지역 어린이를 위해 의료비를 전달했다.

고창군복지관은 7월 21일 고창군 드림스타트 추천을 받아 선천적 심장질환과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A군에게 2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전달된 기금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2017 더나눔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의료비지원'에 선정돼 마련된 것이다.

의료비 후원금을 전달받은 아동 가족은 "오늘같이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힘이 난다"며 "불교계의 도움을 잊지 않고 추후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장 대원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한 도움의 손길과 관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쾌차하길 간절하게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 힘내시라"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 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 선착순 예약 주문하시는 사찰 10곳에 한해 무선 마이크 및 CD기(65만 상당)를 무료 보시합니다.

추가 설치 및 보시 품목

① 대출력 800 왓트 파워드 믹싱 앰프	1대 (자체 USB탑제)
② 입력 450W 대출력 용 스피커	1조
③ 무선 마이크	1대 (무료보시)
④ 최고급 CD기(5개 연속 사용)	1대 (무료보시)

"중고 앰프 다량 보유!"

무선마이크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중생이 온갖 고뇌에 처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즉시 소리를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한다.

– 법화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 스님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재의식, 상용예불
해설 및 소리 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지도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6415-3587
경남 진주 여여불음원 강주 법일 자운 합장

경매 배우면서 돈벌어요
(여)의정부 동두천 여주 고양
거주자. 10시~4시근무 일비
6만 당일지급. 몰라서 못사
고 못믿어 못사는 경매땅
(주)우리경매옥션 믿고사세요
최미자
010-2748-6321

관 상 (손금)
● 생일만 알면 조상운,
평생운을 알 수 있다
● 스님, 천기누설 특별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 질병, 묘터, 재판, 이혼,
부도, 낙태유산,조상영가,
얼굴만 봐 도 알 수 있다.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 · 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사찰행사
010-3653-5151
무상 합장

예언가 육관
– 22년 김정은 사망한다
– 25년 남북통일 이루어진다
– 27년 강한 지진 발생한다
– 29년 백두화산 폭발한다
소망하는 일이 언제될까?
개인적 문제 세상사 문제?
미래를 예언하는 도력으로
예언으로 답을 해준다.
010-6357-5152
육관도원

석 하 명 리
논리로 푸는 사주 명리학
속성반 (기초부터 통변까지)
명리 진로적성 상담사 1급 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010-2643-5685
부산경남지역 설운 합장

효 림 불 교
모든 불교 용품
철거 및 법당정리
010-7538-3859
010-3403-1078
대표 임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법당 철거 조성
정성을 다 해드립니다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인연
맺어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이원해드립니다. 연락바랍니다
010-2395-3333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58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대불 탱화,개금,석불,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제작
이조불교재활용 센타대표
010-9177-7842

대승불교염불원
(실전염불 완전정복)
• 강의일시 : 2017. 8. 7
(매주 월요일 오후2시-4시)
상담전화 010-5934-1766
경북 청송군 진보면 높은베리길 90 원광사

신통 방편력
땅건물가게공장
속히 매매성취
(좋은 땅도 봐드립니다)
010-2896-6689
광덕 합장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용인, 60세 전후)
010-7162-7134

공양주 보살님 또는
사찰내 식당
운영하실 분
모십니다
(충북제천, 부부환영)
010-9413-8459

스님 및
공양주
모십니다
(60세 전후, 남은 여생
수행하면서 함께 지내실 분)
010-6513-477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3310

귀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스님은 전화 하십시요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사찰 처사
(운전가능)
모십니다
숙식 필수
(50세 이상, 경기도)
010-5264-8312

주지원함
스님이 없는 가난
한 절을 도와 드립
니다. 무보시로
도와 드립니다.
(법납30세, 50대 비구승)
010-2873-81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0-8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밀양)
011-803-2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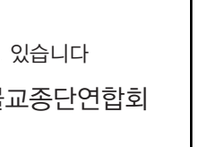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 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 생활역학 강의 (자격증서제도)
자강 : 이석영
단원 : 이병렬 선생님의 정통학문, 1년과정 초급, 중급,상급 (격국론)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 전수
한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수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저서 특허) 강의
육십갑자의 생극제화 원리 응용법
■ 단원육효 강의
■ 작명법 : 실증성명학전서(저서) 강의
본명사주의 자원오행법 원형이정법의 수리법, 음령법, 조후법, 통관법, 사상체질법 등의 체계적인 이론 연구의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합니다.
문의 : 010-4470-6314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8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禪 대한불교조계종 종도모집 曼盤 구성학 비법강의
가족같은 작은종단입니다
종단의 확장과 천목과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종도스님을 모십니다.
가입서류:입종신청서, 타종단승려증,
명함사진4매, 등본1통,입종후 승려증
임명장,등록증을 드립니다.
남녀,스님이 되고자 하는분 상담환영,
종단운영에 관심있는스님 문의환영,
禪師 비로자나 불상/선대한불교조계종 도 경 사
주소: 부산 사하구 대티로 63번길 75-1
많은 실전과 경험의 노하우 입니다.
교재용 책을 드립니다.
영반구성학은 문점순간 보입니다.
초보자반은 영반구성학을 배워서
통변을 못 한다면 구성학과 인연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초보반은 쉽고 빠르게 지도 해 드립니다
전문반은 핵심비법을 전수 해 드립니다
입문반: 90만원, 전문비법반: 40만원,
같은 연령이 동일한시간에와도 점사는
모두 다릅니다.
기존의 구성 통변방식이 아닙니다.
오전10:30~11:30 기도시간 전화: 부산(051)206-3488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개강 가장 쉽고 잘 맞는 성명학 강의
성명사주학
2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역학 학원으로 명리, 육효 등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는 역학 전문 학원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고 잘 맞는 성명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본 강의를 통하여 이름 속에 감춰진 길흉화복을 통쾌하게 밝혀 드립니다. 이름만으로도 성격, 직업, 가족관계, 신년운세 등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또한 가장 효과적인 개운의 방법!
청록 김건화의 명쾌한 임상 통변으로 본 강의를 들으면 누구나 이름 속에 담긴 운명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그에 맞춰 대박 나는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수강대학 : 대박 나는 이름을 갖고자 하는 모든 성인 및 작명가로 진출 희망자
■ 개강일자 : 2017년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 개강 당일 무료 수강 가능, 자세한 사항 전화 문의
韓國傳統科學아카데미
KOREA TRADITIONAL SCIENCES ACADEMY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길 22(신설동 102-36) 화니빌딩 403호
TEL : 02)929-4646 / H·P : 010-2328-0007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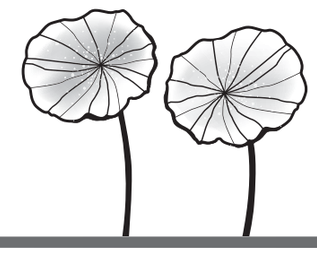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부처의 깨달음은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모든 중생의 마음에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 유마힐경 -



서울시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 위치
- 3층 134㎡(약 40평) • 방 1실 법당 주방 공양간등
- 가액 : 보 5000만, 월150만, 시설비 2000만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양평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 40㎡.슬라브요사채 59㎡ • 토지 1,500㎡
- 뒷편산사찰.전철역 10분. 위치좋음. 급매임
- 양도가액 : 2억 8천만원 (융자 1억 포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 (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경남 의령 사찰 소개합니다.

- 부지 총면적 : 340㎡(103평) • 건물 총면적 : 92㎡(28평)
- 가액 : 2억 3천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 (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중심지 ◎ 위치 : 전남광양
◎ 부지 : 600평 ◎ 면적 : 1,2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30평,차량진입
◎ 요사 : 100평 ◎ 요사 : 40평,경관수려
◎ 양도가 : 협의 ◎ 양도가 : 9억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사찰(급)안내

- 제천시내 사찰
- 토지10,000㎡.단청법당.삼성각.요사2채.주차장
- 이동인구많으며 깨끗하고 위치좋음
- 방편상담 최고자리 남향임
- 가액 : 1억5천만(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 1동, 칠성각 1동, 산산각1동, 요사체 약40평1동
- 가액 : 3억2천만원(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경기도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아파트 상가 / 대로변 위치
- 2층 134㎡ (약 40평)
- 방1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3억7천만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사하구	• 위치 : 서울	• 위치 : 김해
• 대지 : 750평	• 대지 : 120평	• 대지 : 2,0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25평	• 법당 : 3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요사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액 : 25억	• 가액 : 12억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 마천 지리산 둘레길
- 대지 152평, 법당 조립식 약 10평
- 요사채 : 철근콘크리트 25평 2층 팬션형
- 건물 앞 좌우로 물이 흐르는 계곡 경치 좋음
- 기도도량으로 보살님 법사님 환영
- 가액: 2억 1천만원(대출가능)

010-3283-77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
- 요사채:2채(공양실포함)
- 가액 : 2억7천만원

010-3508-7710

사찰(급)안내

- 위치: 해남읍에서 사오분거리 부득이한 사정으로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 법당 20평, 관음전 종각 요사채 방10개,공양간,창고,외부화장실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대출 7,500안고 2억 3천 5백만원

010-4628-5699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 173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28평
- 가액 : 1억 8천

010-2376-5411
041-557-7786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차량진입 잘되어있음, 큰도로와 1분거리 근접
- 법당 35평(요사, 종무소, 공양간) 60평
- 임야 4천평, 대지 800평 (수목장 하기 좋은 명당)
- 1,300년된 고목나무 소장하고 있음
- 가액 : 15억(조정가능)

010-4602-9661

사찰안내(토굴)

- 위치 : 경북 구미 시내
- 대지75평, 요사채, 법당 40평
- 방3,주방,욕실,화장실2, 창고1, 총평수 248㎡(75), 대문2
- 현재 8년 운영중 스님이 대불사를 하였음
- 스님, 보살, 법사가능
- 가액 : 보증금 1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5858-8604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소재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40평(목조,단청,3포7포)
- 요사채:60평,기타:석등
- 산신각:10평(목조, 닷집)
- 가액:10억 5천만원
- 특징:도심인근의 대가람 사찰로 포교와 기도 정진할 도량으로 참 좋습니다.

사찰안내(포교당)

- 위치 : 창원시 소재
- 부지: 60평
- 법당:35평(2층, 단청, 청기와)
- 요사채: 35평(1층 종무소)
- 가액: 3억3천만원
- 특징: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신도 구성이 잘된 포교 도량임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시내 10분거리
- 평수 80평, 2층 건물
- 2층 법당 1층 요사채
- 산신각, 창고 건물 1동
- 대중교통 편리함
- 가액:대출 4천만원 양도가 1억 6천 절충가능
- 비구니스님 수행 도량으로 적합

010-8794-1257

암자,수련원 안내

- 위치 : 상주시 화북면
- 대지 : 407평, 전 : 500평
- 법당 : 14평, 요사 : 70평
- 가액 : 5억 천만원
- 앞뒤로 병풍같이 애워싼 산이 그림 같고 집앞으로 계곡이 흐르며 마을 한쪽에 위치함

010-9334-1465

토지(급)안내

- 금 59,000,000원
-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117-1 외 필지 850평
- 지목전 계단식 토지 도로 하천 남향 전기 국유림
- 산아래 암자 터 딱

010-8899-8899
010-7621-7621
010-2641-264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422-9번지
- 법당, 산신각, 주지방
- 주방, 몸만오시면 바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5000만원, 월 40만원

010-3927-5741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대지 : 69평
- 1층 : 27평(방3칸, 공양실, 요사채) / 2층 : 25평 법당, 스님 친견실, 삼존불, 각단 탱화, 법당시설 완벽
- 종무소 3평, 도시가스, 주차가능
- 가액 : 3억 9천

010-7311-5335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동구 일산동
- 면적 2층, 55평
-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3599-997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 한옥 2동 (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262-10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 주차장 20대이상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30평(방 7칸) 스님친견실 60평
-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2천만원

010-2498-78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남지읍 (IC에서 5분거리)
- 평수 : 40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4평
- 목재건물, 주차장 시설 완벽, 요사채 2동
- 가액 : 4억 3천만원 (시설비 포함)

010-8804-2999

사찰및사찰터안내

- 위치 : 산청군 지리산 내
- 사찰 : 275평, 목조2동 법당 산신각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 절터 3만평 중 천평 부터 필요한 평수 만큼
- 분할 양도 가능함
- 사찰 가액 : 3억 5천만원

010-3869-6785

사찰,전원주택 안내

- 위치 : 남해군 남면 상가리
- 대지 190여평, 건물 22평, 목조주택
- 산(소나무숲)아래 남향 집
- 전원주택,별장,암자(사찰 사용으로 최적
- 대형 차량진입 가능
- 2016년 건물전체 올수리
- 가액:1억 7천만원

010-3848-2452
010-3831-797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포항 남구 청림동
- 상가 2층, 80평
- 법당, 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시설완비
- 가액: 1억 8천만원

010-2857-2811

울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울산시 다운동 767-6(2층)
- 평수 : 30평
- 삼존불 : 아미타불, 관세음, 관음, 지장보살, 소불 60불, 후불탱화, 미타, 관음, 신중, 칠성, 산신
- 보증금 1천만원,월세4십만원 시설비 2천만원
- 현재 법회도량

010-3558-901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동구 용전동 용전 KT 옆
- 제반시설 완비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 60평
- 2층 건물 2층, 옥상60평, 사용 가능
- 교통요지, 터미널 도보 4분거리 대전역 5분거리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3,040만원

010-3452-1123
042)526-1123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포함)

법회, 환갑, 칠순, 돌잔치, 명절 등 각종 행사, 가족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네팔·미얀마 등 불교국가 폭우 피해 속출

사원 피해 막심… 홍수에 황금 불탑 쓸려가기도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곳곳이 피해를 본 가운데, 네팔·미얀마 등 불교 국가에서도 폭우 피해가 속출했다. 이로 인해 수재민은 물론 관광업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네팔의 제2 도시이자 최고 휴양 도시인 포카라(Pokhara)에서는 최근 일어난 폭우로 홍수,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네팔 국민 및 관광객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특히 포카라의 레이크 사이드 지역에 위치한 관광호텔들이 홍수로 피해를 입으면서 현지 관광업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일(현지시간) 발생한 집중호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카하르(Khahare) 지역의 대표적인 숙박시설인 하모니 호텔, 산타나 호텔, 럭키인 호텔이 큰 피해를 입었고, 주거지와 식당·여행사들이 줄이어 침수 피해를 봤다.

이에 네팔의 파하리 족은 정부에 카하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포함시켜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 사회단체인 카하르개발기구협회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결의했다.

관광업계 뿐 아니라 불교계도 타격을 입었다. 28피트(약 8m) 높이의 불상이 있는 사찰이 홍수로 물에 잠기면서 정부로부터 7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복구작업에 착수했다.

네팔 휴양지 '포카라' 산사태
호텔 침수에 관광업도 '타격'
사찰 침수피해도 잇따라 발생
정부 지원 및 해결책 촉구

한편 미얀마에서는 큰 홍수로 인해 수만 명의 이재민과 2명의 사망자가 생겼다.

또한 불탑이 강물에 쓸려가는 일도 발생했다. 미얀마 중부 지역에 있는 파코야마 지역 파코쿠에서는 최근 비가 많이 내리면서 강 수위가 올라가자 사원의 황금 불탑의 기반이 약해지며 강물에 쓸려갔다. 불교 승려들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는 범람한 물속에 가라앉은 탑의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네팔·미얀마 ·태국·캄보디아 등 불교 국가에서도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미얀마 지역에 일어난 큰 홍수 현장으로, 이번 홍수로 수만 명의 이재민과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태국에서도 폭우가 쏟아져 태국 북부, 북동부, 중부 지역 등 광범위하게 홍수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27일 발생한 홍수는 38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재해로 해당 지역에 100가구 이상이 침수되고 철로가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재난관리위원회는 25일부터 계속된 폭우로 스퉁 센 강이 범람하면서 비하르 및 캄포스 지방에 대한 경고를 내렸다.

두 지역의 100가구는 마을에서 대피했으며, 농지의 3천 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재난 관리 위원장인 미스터빈은 "2개의 열대성 폭풍이 만나 캄보디아의 거의 모든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미국 LA 팜스 지역 거리에 위치한 한 불상이 백인 남성에 의해 무참히 훼손됐다.
사진출처=Lion's Roar

미국 LA 불상, 4번째 파손당해

팜스지역서 둔기로 불상 머리 부분 훼불
지역협회 불상 재건 위해 모금운동 예정

미국 로스앤젤레스 팜스 지역에 있는 한 불상이 또 다시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LA타임스' 7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백인 남성이 커다란 망치로 자스민도로와 누벨도로 사이 교통안전지대에 놓인 불상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불상은 머리 부분이 분리돼 금속 막대기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거친 후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 남성은 또 파손을 시도했고 불상이 금속 막대기로 고정돼 있자 2번이나 다시 머리 부분을 가격, 총 4번에 걸쳐 훼불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그는 알 카에다와 무슬림에 대해 소리쳤다"고 진술했다.

웰라치 모터애비뉴개선협회(이하 개선협회) 책임자는 "우리는 매우 다문화적이고 절충주의적인 공동체다. 무슬림, 기독교인, 유대인 등 다양한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훼불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불상이 있는 자리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던 구역이었다. 누군가가 불상을 가져다 놓은 뒤로 사람들은 쓰레기 대신 꽃을 가져놓기 시작했다.

개선협회는 "훼불행위 후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더 끈끈한 결속력을 가지게 됐다. 그가 저지른 훼불행동은 도와달라는 의미다. 팜스지역의 공동체정신과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훼불행위를 한 남성을 찾아 교화시키길 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선협회는 불상을 금속으로 만들고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5000달러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지선 수습기자

묻혀있던 캄보디아 사원 유네스코 '3번째' 등재

유네스코가 캄보디아 고대 사원 '삼보르 프레이 쿠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7월 16일 '유로뉴스'가 밝혔다. UN문화협은 "이 사원이 6세기 후반~7세기 번영한 문명의 수도로 확인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1994년 이전까지 삼보르 프레이 쿠크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원이었다. 샘 놈 삼보르 프레이 쿠크사원 대표는 "오랫동안 쓸쓸한 사원이었는데, 우리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관리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 사원으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쁨을 표했다.

이로써 캄보디아는 1992년 지정된 앙코르와트, 2008년 지정된 프레아비히어 사원 포함 총 3개의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박진형 수습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된 '삼보르 프레이 쿠크' 사원. 사진출처=위키피디아

뉴욕서 두 백인 비구 스님 '웨딩마치'

6월 23일 한 저택서 결혼식
첫 만남 후 호스피스서 사랑 키워

6월 23일 뉴욕 첼시의 한 저택서 두 백인 비구 스님의 결혼식이 거행됐다고 7월 7일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주인공은 고신 패일리 엘리슨(47)과 로버트 초도 켐프벨(64).

고신과 초도는 일본 선종의 한 종파인 조동종 스님이자 뉴욕명상케어선센터의 창립자들이다. 일본조동종은 선과 명상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다수 불교종파로, 결혼이 가능하다. 고신과 초도는 각각 2002년과 2005년 스님이 됐다.

이 둘의 첫 만남은 1995년 맨하탄 불교기관 젠도마을에서 이뤄졌다. 당시 새그하버에 살던 초도는 여행을 다녀오던 중 잠시 명상을 하기 위해 맨하탄 젠도마을에 들렀다. 고신은 그때 젠도마을서 명상을 하고 있었다. 초도는 "당시 고신에게 첫 눈에 반했지만 말을 걸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2002년 뉴욕 첼시의 선 명상센터에서 둘은 다시 마주쳤다. 7년만이었지만 서로를 알아봤다. 초도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고 둘의 연은 지속될 수 있었다.

고신은 당시 할머니 미미의 간병인이었다. 초도는 봉사 하던 호스피스로 고신과 미미를 모셨다. 이 호스피스센터에서 둘의 사랑은 깊어졌다. 초도는 고신의 할머니를 극진히 보살폈다. 미미 역시 초도를 아꼈다. 초도는 "어느 날 미미가 나를 불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고신을 잘 보살펴다오'라고 이야기 했다. 나는 '물론이죠'라고 힘차게 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미는 세상을 떴다"고 회고했다.


일본 조동종 소속 고신 패일리 엘리슨(47)과 로버트 초도 켐프벨(64) 스님은 6월 23일 뉴욕 첼시의 한 저택서 결혼식을 올렸다. 사진출처=뉴욕타임스

미미의 죽음을 함께한 뒤 초도는 고신과의 결혼을 결심했다. 당시에는 뉴욕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 합법화) 둘은 2007년 3월 맨하탄 선센터에서 비공식적으로 결혼했다. 그리고 결혼선물이나 축의금을 받는 대신 그들의 선 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기부금을 받았다. 이때 함께했던 알렉스 비더는 "둘의 비공식적 결혼에도 많은 선불자들이 함께 축하했다. 초도와 고신의 첫 아이는 바로 이 명상센터다"며 웃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둘의 합법적 결혼식이 조종동 신도인 누머로프의 집에서 열렸다. 고신과 초도는 승복을 입은 채 손을 맞잡고 걸었다. 하객 답례품은 작은 불상이었다. 장소를 제공한 누머로프는 "남편이 죽었을 때, 두 스님이 많이 위로해줬다"며 "둘은 세상을 바꾸는 재미있는 스님들이다.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고 둘을 축복했다.

박진형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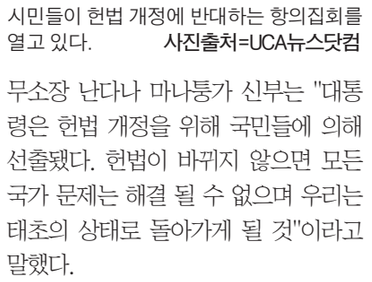
스리랑카 승가 "헌법 개정 반대" 결의

'불교=가장 중요한 종교' 인정 기존 헌법 개정 반대

스리랑카 스님들이 불교를 가장 중요한 종교로 인정하는 기존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반대했다. 고승들은 7월 4일 특별위원회 토론에서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UCA뉴스닷컴'은 7월 7일 보도했다.

현행 헌법은 단원적 의회, 대통령 중심 행정부 체제와 불교를 가장 중요한 종교로 인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소수민족 인권에 대한 내용이 없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선거 개혁, 행정부 체제 개편 및 권한 위임 등 현행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권리 운동가들 또한 정부가 새로운 선거 개혁과 소수민족인 타밀족과의 정치적 해결 방안 및 인권보장을 담은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캔디인권사무소장 난다나 마나퉁가 신부는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들에 의해 선출됐다. 헌법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국가 문제는 해결 될 수 없으며 우리는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출처=UCA뉴스닷컴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2016년에 새로운 헌법 초안 작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해 의회를 헌법위원회로 전환시켰다. 위원회는 이미 정부에 여론조사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지선 수습기자

세계불교지도자 경전6차 결집 장소에 다시금 집결하다

2600년의 염원이 드디어 성취되다

세계불교 법왕청 과 세계불교도들의 법왕이신 우꾸마라 사야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는
불교지도자 정상회의에 불교 지도자이신 법하를 초청하였습니다

불교국 각 나라 승왕 및 연방승가회 회장, 세계불교지도자 총 결집 정상회의

부처님의 일불 제자로서 대승과 소승(트라와다) 불교가 하나가 되어 오늘의 불교 현실을 바라보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지만 언제나 한구석에서 안주하는 일부 지도자들로부터 탈피하여 지구촌 구석구석 중생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이제 불교의 새로운 역사의 해가 어둠을 뚫고 솟아 올랐습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법왕청 중앙정부의 관리, 운영, 조직에 착수하였으며 미얀마에 법왕궁을 두고 한국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왕궁 중앙정부 설립 또한 불교수호협회 관리하에 불교수호협회 회장께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적 같은 환희심이 가득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루시는 경이로운 기적을 봅니다. 모든 준비는 미얀마 종교성의 후원과 불교수호협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일 시 : 2017년 10월 12일 미얀마 까바에 동굴사원 (6차 결집 장소)
■ 한국에서는 10월 11일 출발합니다.
■ 행사 및 성지순례 220만원
■ 자세한 일정은 문의하시면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가국가
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일본, 대만, 중국, 몽골
■ 주최 : 사단법인세계불교 법왕청 ■ 주관 : 미얀마 세계불교수호협회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참석 신청 일시 : 2017년 8월 15일까지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층) 세계불교 법왕청 사무국 / 문의처 011-229-6061. 010-7487-7090. 010-4467-9600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

샤론 샐즈버그(미국 수행지도자)

〈4〉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행복의 필수요소, 누군가 만든 것에 불과

명상을 가르치기 위해 구소련에 갔던 해의 일입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도착한 날은 우연히도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쿠데타로 실각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쿠데타가 시작되자 모스크바는 엄청난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고, 나는 어찌하면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대사관도 폭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소련인들도 도움을 구하느라 아우성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제발 미국 영사를 만나게 해 달라고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내 조카의 서류가 어제 막 도착했습니다. 그 아이를 꼭 미국으로 이주시켜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당시 모스크바에는 소련인들과 합작해서 벤처사업을 시작한 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날리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껏 깊이 간직해 온 그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충격과 걱정에 휩싸인 채로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지요.

이런 소동 속에서 미국의 한 여행 단체 대표가 대사관 직원에게 이 사태를 어떻게 넘겼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의 대답이, 군중들이란 본래 변덕스러우니 그저 군중들에게서 좀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고 충고했습니다. 그 여행단체의 대표는 충격을 받은 듯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사관 직원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쇼핑을 갈 수 없다는 뜻이오?"

욕망(애착 · 매달림 · 탐욕 · 집착)이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통해 우리의 모든 희망과 꿈을 충족하려고 시도합니다. 욕망의 대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동이나 결과, 혹은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마법에 걸린 것처럼 착각에 빠져 마치 동굴에서 세상을 내다보는 것처럼 아주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그 대상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어떤 생각이나 사고에 푹 빠져 있지 않은 사람만이 두 달 뒤나 여섯 달 뒤, 일 년 뒤의 일을 내다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무엇이던가?'

불교 경전에서는 마음속 욕망을 염료로 가득 찬 연못에 비유합니다. 연못 속에 염료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연못의 바닥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매달리는 욕망은 마음에 불화를 일으키고 집착이라는 먹구름으로 마음을 덮어 버립니다. 마음의 장벽을 녹이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빛나게 해주는 사랑의 힘은 메따와는 대조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은 메따의 방해물로 간주됩니다.



대상으로부터 얻는 행복
욕망에 사로잡혀 고립돼
베풂으로 내면 닦아내고
자연스러운 삶 살아가야

소유에 뒤따르는 욕망

언젠가 집들이 선물로 아주 소박한 유리 찻주전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찻주전자를 정말 애지중지했습니다. 어느 날, 차를 마시려고 난로 위에 찻주전자를 올려서 물을 끓인뒤 찻주전자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만 주전자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내 손도 끓는 물에 데었지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나는 이 찻주전자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지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또 그리도 아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누군가를 소유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조종하려는 욕망이 생기고 뒤따라 배신감도 특별히 강해집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며 불안감에서 생긴 경계심으로 잔뜩 긴장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소유한다는 생각, 즉 우리가 그들을 '가진다'는 생각은 '우리'와 '그들'을 무엇으로 단정해버리는 일입니다. 그처럼 단정하는 일 자체가 바로 나와 타자를 분리하는 원천이며, 실제로 소유자와 소유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듭니다. 우리와 소유물 사이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소유물을 더욱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소유물을 접하면서 즐기기보다는 그 소유물을 붙잡아 매는 것에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소유하고 있음을 느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누군가를 치유해주고 도와주는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상대방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당신은 더 좋아지지 않는 거요?"

이런 시각 때문에 사람들은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방식대로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화를 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소유함으로써 행복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그 욕망의 대상을 지키려고 하지요. 하지만 대상들과 관계를 맺는 그 같은 방식 때문에 스스로 고립되고 맙니다. 소유나 욕망에서 우리가 얻는 만족은 일시적이며 환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욕망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유와 욕망에는 늘 두려움이 따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맴돌며 무엇인가를 좇고 있으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다가 마침내 죽고 맙니다. 이것이야말로 배신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애착은 불안과 두려움을 초래한다."

실제로 애착과 불안은 서로 순환 관계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때로 강한 집착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집착하게 되지요. 욕망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초래합니다. 이 세상은 본래 안정되지 않고 늘 변화하는데, 그러한 세상에서 안정된 행복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필사적으로 안전함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실패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다른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이렇듯 늘 방심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서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살아가자

불교에서는 욕망에 근거하는 집착을 괴로움의 뿌리라고 가르칩니다. 집착에는 구하는 것과 지키는 것,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결코 휴식을 취하는 일도 없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키는 것은 붙잡으려고 애쓰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 마음과 관계있는 일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늘 변화하기에 붙잡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뭔가 마술처럼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나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거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설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마술처럼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곧 괴로움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괴롭다는 것이 꼭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징후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실제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언젠가 그것을 또 잃고 마는 것이 인생이지요. 끊임없이 오고 가는 이 즐거움과 괴로움, 이익과 손실, 칭찬과 비난, 명성과 악평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세상이 자연스럽게 제공해주는 것들일 뿐, 우리는 이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다.

욕망과 탐욕은 내가 원하는 대상을 끌어 모아 붙잡아 두려는 갈망입니다. 이러한 태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마음을 열어 놓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베푼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살핌, 보호, 친절이나 사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베푸는 행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 자신 모두에게서 퍼져 나가는 내면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서 집착하는 마음을 깨끗이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고, 충분히 가진 적도 없었고, 넉넉하지 않다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대신, 세상은 누구에게나 갖추어야 할 만큼 신비롭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를 단순화함으로써 우리는 탐욕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외부 대상이나 남을 통해 얻는 행복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앞서 말한 일시적인 행복보다 더 오래갑니다.

집착이나 욕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라이 라마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라이 라마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는 것은 마치 어머니인 자연에게 예술상을 주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순수하게 우리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평화로우며,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의 감정으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글은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조계종 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봉행
천장사 1,000일 지장기도 안내
천년도량 천장사에서는 1,000일 지장기도
참회대법회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 장 소 : 단양 천장사 대웅보전
■ 동 참 비 : 100일 기준 2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532-6151-2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천장사)
※ 천장사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배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트로 5분거리)

주지 오명 합장
충북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 3739-30 단양 천장사
H·P 010-5960-2085

회향선원의 회향
회향선원(회향복지원)에서
평생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입주하시고 평생 거주가 가능하며
3년째 퇴실을 원하시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 1층 : 12평 1억 (3人 까지 거주 가능)
• 2층 : 9평 5천 (2人 까지 거주 가능)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 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90번길 31-15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욜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욜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갑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원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심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하나라는 것도 세울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마음입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했던 것이 두어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한마음으로서, 일체제불과 중생이 따로 없이 한마음을 내 주셔서 저는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또 여러분을 이끌어 주는 길잡이로서 이렇게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걷겠습니까? 일체 만물만생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아마 이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 대한 감사함과, 풀 한 포기도 버리지 않는 고마움을 가지고 삽니다.

미국에 갔던 일을 상세히는 얘기 못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한마음을 내 주셔서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한마음이라는 그 뜻은 열반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자유인이 되는 길이며, 해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물질세계로 치닫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는 역시 정신계로 앞장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한국에도 이렇게 위대한 여러분이 계시지만 미국에도, 미국 불자들도 정신계로 들어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요청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복으로써 목탁이나 치고 염불이나 하고 이론으로 얘기나 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서 절실히 더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발을 붙일 수가 없겠더군요.

그러니 거기 가서 느낀 것은 한마음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도 여러분 덕분에 간 것 같습니다. 나도 어리둥절하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오라니깐 갔고, 가서 또 그렇게 해 주니깐 그냥 그렇게 하고, 또 가라니깐 왔습니다. 허허, 저는요,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을 이렇게 길을 걸었고 또 여러분한테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얘기를 한번 덧붙여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사대(四大)에 대해서 말입니다. 색(色)은 사대라고 하고, 수상행식(受想行識)은 바로 정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 내용과, 수상행식 그 자체가 사대하고 같이 합쳐지니까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그 몸과 마음은 어디에 또 상대가 있느냐는 얘기죠.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몸이나 의식 자체, 여섯 가지가 거기에 대두되는 거죠. 요거를 말씀해 놓고 내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거기서 대두되는 것이 뭐냐 하면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이 대두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가 또 대두가 되느냐 하면, 즉 말하자면 육식(六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각적이나 청각적이나 후각, 미각, 촉각, 의식 자체 여섯 가지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제 얘길 들어 보시렵니까. 그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개수가 없는 개수를 한번…, 숫자 없는 숫자요. "하나" 하면 몸과…, "몸" 그러면 "하나" 이렇게 합니다. 하나라고 치면 육근(六根), "둘" 이럽니다. 내용적으로는 사대(四大)의 그 물질과 사람의 마음이니깐요. "하나, 둘" 하면 이 하나는 과거로 벌써 돌아갔습니다. 예? "하나" 하는 게 벌써 이 몸과 마음은 벌써 과거로 돌아가서, 즉 말하자면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육근의. 안 그럴까요? 대답을 해 주셔야 좀 편리하죠. 하하하.

그래서 "둘" 할 때 육근으로 와서, 벌써 이 하나는 여기 포함이 되니까 하나는 없어지고 이게 하나가 (오른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차례로 잡아 보이시고)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둘" 하는 게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상대성이 절대성으로 들어오니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육진(六塵)이라고도 하고 육경(六境)이라고도 합니다만 육진으로 다시 들면은 그냥 셋이 됩니다. 그런데 둘이 또 없어집니다. 둘이라는 언어가 없어지면서 셋으로 갑니다. 셋으로 가는데 이 셋은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아셔야 납득이 돼서 결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납니다. 육식(六識), 육식으로써 이것을 다시금 혼합을 한다면 십팔계가 되면서 이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데 합쳐서 십팔계라고 했는데 십팔계는 무엇을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겁니다. 십(十)은 언제나 여여하게 돌아가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팔(八)은 사무 사유(四無四有)를 한데 합친 것을 말하죠. 여러분이 다 마음이 있죠. 여러분이 있으니까 있는 거지요. 불성이라는 그 자체가. 불(佛)이라는 자체가. 그것은 항상 움죽거리지 않기 때문에 십팔(十八) 하면 벌써 십구(十九)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언제나 거기 우뚝 서는 거죠. 그래서 사무 사유가, 즉 말하자면 한데 합쳐서 팔로서, 팔법륜(八法輪)으로서 (양손 주먹을 바깥쪽으로 굴려 보이시며) 그냥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 생활입니다. 십이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응용하는 이 중용은 바로 팔이죠. 이걸 그냥 납득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싶어서 그냥 내 의견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벗어난다면 바로 벗어나는 그 자체가, 하나 없는 하나가 그냥 한마음입니다, 한마음. 하나라는 것도 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마음입니다. 대략 짐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비유하건대 만약에 몸과 마음이 솥이라면 바로 거기에는 쌀도 있고 물도 있고 불도 있습니다. 요 네 가지를 또 한번 표현해 보죠. 그런데 쌀을 씻어서 솥에 넣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불을 올립니다. 그러면 요것이 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육식(六識)의 깊은 속에까지도 우리가 들어가서 굴러 나와야 밥을 먹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씻어 넣고 이거니 저거니 하고 이론으로 따져도 스위치를 꽂아서 밥을 다 익히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묵조선이니 간화선이니 하는 것도 그게 둘이 아니건만 불 질러서 밥을 하는 과정과 딱 먹는 거와 혼합이 돼서 하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자 이겁니다, 싸우지 말고. 과정을 다해서 솥에 넣고 스위치 딱 누르면은 밥이 되는 그런 거하고 또 갖다 씻어 넣는 과정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밥을 해서 먹는다, 불이다 그런다면 우리가 솥에 그냥 하나 갖다 넣으니깐 또 하나 줄어들고, 하나 갖다 넣으니까 또 하나 줄어들고 다 넣고는 불 꽂으니깐 다 먹는다, 이것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스위치 꽂아서 밥해서 그냥 먹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넣었으면, 한 솥 넣었으면 그냥 불 꽂아서 해 먹는 거를 우리가 배우자. 우린 시기가 있고 바쁘다. 우리 몸뚱이가 살아 있을 때에 이 뜻을 모른다면 천년만년 가도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고(苦)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도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 넣어도 하나요, 하나를 또 넣어도 하나요, 그래서 한 솥을 밥을 해 놓고 먹어도 그 하나마저도 없더라. 모두 나눠서 먹으니까 말입니다. 그 하나마저도 없더라. 그리고 또 갖다 넣은 것도 여러 가지 재료가 같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불만이, 불만이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다' 할 수가 없이 그것이 바로 한마음이요, 그 한마음마저도 집착을 하지 말라. 이거 될 때에 너라고 할 수도 없고, 쌀이 될 때 너라고 할 수도 없고, 불이 될 때 너라고 할 수도 없고, 솥이 될 때 너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한마음의 찰나 생활이 그대로 역력히 돌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이 그대로 자유스럽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라 이런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계향(戒香) · 정향(定香) · 혜향(慧香) · 해탈향(解脫香) ·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했습니다. 그러면 계향, 정향 할 때에 벌써 이건 하나 없어집니다, 자꾸. 절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절대적" 하다 보니까 상대성 원리가 원형으로 모이면서 하나가 탁 일어서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비유해서 얘기하니까 참작해서 잘 들으시고요, 나를 무기력하고 무질서하게 얘기한다고 그러진 마시고요. 어떡합니까. 세상 사는 게 부처님 법이요, 그것이 진리니깐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알아듣기 쉬워야지

☞ A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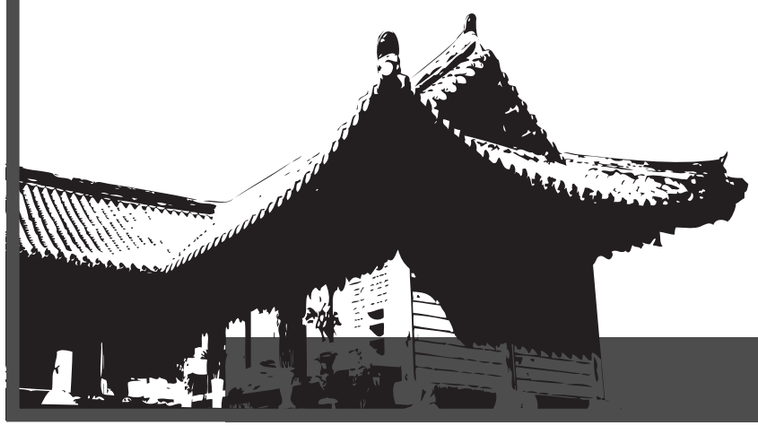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우주 천하가 있고 모든게 있는 겁니다

☞ A17면에서 계속

알아듣지 못한다면 열 마디 백 마디 해야 그건 쓸데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탈향까지 가서 해탈지견향, 즉 말하자면 소견으로 쓰지 않고 그때는 지혜로서의 지견으로 쓰게 된다 이겁니다. 깊은 속에서 굴러서 나와서 하나로 뭉쳐 돌아가니까. 그래서 "해탈지견향"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율을 지키려고 안 해도 그게 포함된 그런 능력의 중용이기 때문에 계(戒)를 안 지킨다 지킨다도 없이 질서 정연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유의 법에서만이 질서 정연하게 해 나가는 게 아니라 무의 법에서나 유의 법에서나 일체 사생(四生)의 그 뜻을, 생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을 다 포함해서 리드해 나갈 수 있고 또 바로 나로 될 수 있고 그로 될 수 있어서 자유권을 그대로 상실하지 않고 자재한다 이 소립니다. 그것이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하나가 아니라 셋이 하나고, 셋이 하나인데 또 하나가 셋이 되고, 또 하나가 아홉이 되고 아홉이 셋이 되고 이러한 요소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한 번 당겨서 극치적으로, 즉 절대성으로 놔두었다가 상대성으로 옮겨 놓고, 옮겨 놨다가 또 절대성으로 오고 상대성으로 가고, 이렇게 자유권을 자유자재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이라고 하는 거고 자유자재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토론을 할 때도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내 몸뚱이 속에 수많은 중생들이 들어 있는데 이 중생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입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숫자가 많으면서도 의식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숫자 없는 숫자죠. 그래서 그 하나마저도 없다고 하는 그 도리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도리를 모른다면 내 중심이 없는 것이고 내 주인을 모른다면 이 껍데기가 빈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임제(臨濟) 스님이나 큰스님들이 "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네게 주장자를 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없다면 네 주장자를 뺏을 것이니라."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자기가 뺏는다는 문제를 덧붙인 게 아니라 방편으로 그거를 가르치느라고 했습니다. 왜? 모든 생명들이, 즉 말하자면 거기에 주인이 없다면 모두 세균성이나 영계성, 유전성, 업보성이 무조건 하고 거기 들어가서 그냥 막 뒤집어 놓습니다. 웃게끔 만들어 주기도 하고 울게끔 만들어 주기도 하고, 성나게 하기도 하고 모든 일을 그르치게 만들기도 하고,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거에서부터 자기가 지은 대로 나온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숙명통(宿命通)이라는 게 바로 모든 것이 입력된 컴퓨터거든요.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팔자니 운명이니 하고 울고 야단법석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거를 거기다 맡겨 놓으면 앞의 것이 다 무너질 텐데 왜 거기다 맡겨 놓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고깃덩어리가 '나'가 아니라 바로 마음과 그 기관이 작용을 해서, 안에까지 들어가서 과거에 살던 그 의식까지도 다 하나로 뭉쳐져서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앞의 거는 없어집니다. 넣으면 넣는 대로 없어지고 또 넣으면 또 앞의 것이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그릇이 비어 있는 까닭이죠. 내가 지금 무슨 얘길 하다가 이리로 또 달아나갔죠? 생각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집이 비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를 먼저 알고 나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아느니라. 둘이 아닌 도리를 알면은 너 하나마저도 없을 때 비로소 이 속에 있는 그 의식 자체가 전부 천백억화신으로 화하느니라." 내 마음이 그렇다면은 이 의식 자체들이 전부 아는 겁니다. 내 의식이 그렇다면은, 내가 그런 마음을 쓴다면 그런 마음대로 이 속에서 다 같이 따라 주고, 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쓴다면 좋은 대로 따라 줍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좋으면 남한테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좋고, 내 마음이 신경질이 나고 언짢으면 남한테 괜히 신경질을 내게 되고 말도 올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먼저, 내가 있기 때문에 우주 천하가 있고 모든 게 있는 겁니다. 부처님 불(佛) 자라는 것도 생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그렇게 내 주인을 완성해야만이 내가 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아주 튼튼하고 광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십이상(三十二相)이 구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구족함으로써 행하고 나가는 것이 전부 중용으로서 부드럽고 아주 평등하고 그리고 모든 걸 안아서 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지혜, 즉 해탈지견(解脫知見)으로서 그렇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을 한다면, 사회도 반쪽만 가지고 운영하려니까 힘들죠. 즉 말하자면은 육근(六根)을 가지고 그냥 하려니까 안 되니까 육근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을 놓으세요. 맡겨 놓으셔야 되는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경계를 여기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들여보낼 사이도 없이 바깥으로 그냥그냥 모두 내놓는다면 그게 마(魔)가 되는 거죠. 말 한마디가 꼬리에 꼬리를 붙이고 말입니다. 일하는 게 전부 새끼 꼬이듯 꼬이고 말입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그렇게 나가니까 보이는 구석이 전부 걸리는 겁니다.

그것을 안으로 놓으랬는데 바깥으로 그냥 전부 그러니까 어떻게 육식(六識) 자체로 들어서 그 모든 것이 해탈로 들어갈 수 있는, 열반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치가 있죠. 그래서 나부터 알아서 내 주인이 완벽하다면 전자의 조사들도 "네가 크게 쓸 때는 내 주장자로 한데 모아 주고, 작게 쓸 때는 네 주장자로 그냥 쓰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더 크게 쓸 것 같으면, 우주와 인간 근본의 마음과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살림살이는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 하나, 아래의 모든 가설이 돼 있는 것도 근본은 하나입니다, 여기. 위로도 하나 아래로도 하나, 그러니 이게 중도(中道)입니다. 중심, 중도. 중심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지만 "중도" 이런다면은 다 포함된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집이 비면 '지구 집'도 빈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갑니까? 내 집이 비었어요. 그러면 지구 집도 빈 겁니다. 지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한 버스를 타고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중생들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우리들은 지금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중생들이 화(化)해서 천백억화신이 된다면 털구멍을 통해서,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을, 입구멍을 통해서 다 들고 나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마음에서 두뇌로 올라가서 대뇌로 해서, 사대로 통신이 되게끔 합니다. 이 대뇌라는 건 누진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진통은 지금 시쳇말로 용어를 붙인다면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됩니다. 거기서 들어오고 나가는 걸 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좋은 데로 방향을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세워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들고 나면서 우주로도 통하고 아래 세간에도 통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삼라만상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한마음에 한 주먹에 쥐고 자유스럽게 자재한다. 이런 것을 열반이라고도 하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이름은 많겠지요.

그러나 집주인이 첫째에 문제입니다. 내 몸을 지탱하려면 내 집주인이 레이더망을 통해서 영계성이나 또는 윤회성이나 또는 업보성이나 유전성이나, 그 영계로 인한 문제들, 인과로 인해서 납득할 수 없으리만큼 오는 그 문제들, 그런 것을 다 자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들일 건 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버릴 건 쓰레기통에 버리고 먹을 건 먹고 이러듯이, 그렇게 하는 요소가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물질로써 서로 싸우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쫓기고 쫓기면서 이렇게 진화가 돼서 인간까지 올라왔는데 인간이 되어서도 또 쫓기고 쫓는 형국입니다. 지금 또 싸웁니다. 뭐,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데서도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도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싸우니까 보이는 데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싸우다가 그냥 죽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게 뭐냐? 우리가 그냥 빈껍데기로다가 마치 탤런트처럼 영화 하다가 막 내리면 그만이듯이 그런 이치를 알기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정작 내 집에 들어와서 연구하고 참 열심히 진실하게 해서 그 영화를 할 수 있는 탤런트가 돼야만이 그건 진실하게 방편으로서도 삶답게 살 수 있다. 모두가 그렇게 해 나가지 않아서 지금 물질화로 치닫는 시대에 우리가 빈껍데기만 남았다 한다면, 우주세계에서 또 이 혹성들 세계에서 의식들이 싸울 때는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정말이지 부처님의 그 도리와 같이 일체제불이 한 찰나에 들어서 좋은 위치의 주장자를 주신다고 하는 게 바로, 아주 비밀스런 법문을 설하시고선 금방 나투신다 하는 뜻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다면 한데 뭉쳐서 쓸 일이면 뭉쳐서 쓰고, 둘로 쓰려면 둘로 쓰고 셋으로 쓰려면 셋으로 쓰는 그 무기가 무엇인가? 한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혹성과 더불어 가령,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120볼트의 전기라면 220볼트가 와서 만약에 같이 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히죠? 인정사정도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은 그냥 안이하게만 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땅바닥을 이렇게 딛고 다니나' 하는 거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자력이나 광력 또는 전력, 통신력 이것이 여러분한테 재료로 다 주어져 있는 거는 이 사대(四大)가 바로 지수화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자력이 있고 우리도 자력이 있기 때문에 붙는 겁니다.

공기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생명체가 없다면 공기가 없을 겁니다. 내가 무슨 얘길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죠.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서 될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덮어놓고 하는 거죠,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지금 하고 가는 것대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생각해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체험한다면 아마도 이익한 것뿐이지 해로운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슬기롭게 자유자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그렇게 혹성이나 별성이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뭐, 우리가 수로 셀 수 없으리만큼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거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뭉쳐 가지고도 나갈 수 있는 거는 전체 버렸기 때문에 전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전체 버려야 전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항복을 스스로서 받았다는 얘깁니다. 전체 얻을 수 있어야 그냥 하나로 쓰고 둘로 쓰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양이 지구를 집어먹는다 하더라도 그 복사 체제의 의식 자체가 전부 내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된다면 통신도 잘해 줄 것이고, 그 부패되는 것도 막을 것이고, 줄어드는 것도 막을 것이고, 잡아먹히는 것도 서로 상응해서 둘이 아니니까, '나'니까 내가 그대로 생존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핼리 혜성이 와서 우리 지구를 갖다 친다 할 때 그 핼리 혜성이 바로 내가 된다면 내가 부딪치지 않게 저리로 끌어다 놓고 올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그냥 납득하시게끔 이렇게 방편으로 지금 쓰는데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잘해 보세요. 듣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음 호에 계속)

너를 먼저 알고 나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아느니라.
둘이 아닌 도리를 알면은 너 하나마저도 없을 때 비로소
이 속에 있는 그 의식 자체가 전부 천백억화신으로 화하느니라.

※위 법문은 1990년 7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불자 세상보기 |

나를 성찰하는 휴가



황수경
불교여성개발원 이사

기존 피서에 지친 사람들
이제는 스스로를 가두고
자신 성찰하는 기회 삼아

평소 우리의 관심은 외부에
24시간 정보에 노출돼 피로
'혼자만의 시간' 필요성 대두

"내 목표와 삶은 무엇인가"
너무 늦지 않게 나에게 묻길

"휴가는 어디로 가요"라는 질문에 심심찮게 "집 떠나면 고생이니 조용히 쉴 거예요"라는 답이 돌아오곤 한다. 특히 성수기에는 가는 곳마다 사람에 치여서, 산이나 바다가 아니라 사람만 실컷 보다가 온다는 말도 있다. 그러다보니 충분히 쉬지 못해 휴가후유증까지 발생한다고 하니, 집이나 집 근처에서 휴가를 조용히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계사 앞에서 만난 한 외국 여성은 템플스테이에 가서 휴식형으로 쉬고 싶다고 한다. 벌써 여러 번 경험이 있는 그는, 웬만한 리조트보다 한국의 조용한 절에서 묵는 것이 더 힐링이 된다고 한다.

50대인 김 거사는 올해 여름 무문관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한다. 몇 년 전 체험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난생 처음 혼자서만 며칠을 지냈어요." TV도 컴퓨터도 없고, 항상 들여다보던 휴대폰도 손에 없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이 너무 낯설었지만, 절에서 배운 대로 곧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 경험이 그렇게 좋았다고 한다.

마음을 만나는 맛이 너무 새롭고 신선하고,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라고 한다. 1주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때는 무척 아쉬웠고, 가끔 그 시간의 신선함과 텅빈 공간이 그립다고 한다.

평소 우리의 관심은 온통 외부로 쏠리고 있다. 하루 종일 인터넷과 휴대폰은 쉬지 않고 정보를 쏘아댄다. 정보에 강제로 24시간 과다 노출된 상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깜깜하고 불통인 경우가 많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쌓이는 분노, 우울과 무기력증, 마음에 누적된 스트레스는 몸의 질병으로까지 연결되곤 한다. 몸이 회사에 있든, 집에 있든, 유명 관광지에 있든, 자기 마음을 모르고 지낸다면 불통이긴 마찬가지다.

일부러라도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온전히 자기 혼자 지내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바람직하다. 부처님께서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하셨다. 자기야말로 일생일대의 VIP중의 VIP, 최고의 귀빈인 것이다. 직장인들은 고객의 욕구에는 민감하고 서비스하려고 하면서, 정작 자기자신의 요구나 마음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니 모처럼의 소중한 휴가기간을 자기 마음과의 대화시간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이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고 마음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과연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돈을 벌어야 하고 일해야 하는 것이 본인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과정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너무 늦지 않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명상을 하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오늘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경책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그 마지막 날은 예외없이 올 것이며, 그것이 내일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오늘 자신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은 급한 일이 된다.

한 젊은 아빠가 호소한다. "혼자 지내기는 어림없어요. 애가 어려서 휴가 때는 어디든지 같이 떠나야만 해요." 이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도 마음만은 고요하게 정진할 수 있다.

집착을 놓고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다. 시시비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의 주장자에 중심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쉴 수 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한다면 저잣거리에서도 마음을 푸욱 쉴 수 있지 않을까. 유난히 더운 여름, 행주좌와에 깊고 자비로운 불성과의 만남으로 마음만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휴식을 누렸으면 한다.

社說

불교계, 국정과제 대응 준비해야

문재인 정부가 7월 19일 발표한 5대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과제는 정부 정책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불교계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불교계 관련 분야는 문화부터 사회·통일 등으로 압축된다. 특히 발표된 과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통일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언급이 있다. 남북교류 재개를 종교 분야 교류를 통해 물꼬를 틀 계획을 갖고 있어서다.

과거사 해결의 경우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념재단 설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교계 역시 해당된다. 10.27법난이라는 아픈 역사의 상흔이 있어서다. 또한 제주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불교 사찰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논란이 된 가야사 복원도 국정과제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가야사 복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가야불교사 정립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눈에 띄는 문화재 정책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주요 내용에 있는 사안으로 도저히 어떤 문화재 정책을 전개할 것이라는 방향을 가늠하는 게 어렵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두고, 이제 불교계는 정부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노정될 것은 자명하다. 대체 휴일 전면 도입 등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제 정책으로 인한 변화를 대비하자.

'푸른 눈' 불교학자에게 관심을

한국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고국인 아일랜드로 돌아가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존 리 씨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학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선교일치'에 매료돼 한국에서 무려 6년 반을 거주하며 한국불교만을 공부한 그이기에 주위로부터 들려오는 안타까움이 크다.

존 리 씨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서 겪은 전세금 사기다. 그가 보수 많은 직업을 택하지 않고 불교를 추구하다보니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탓도 있지만 전세금 사기로 인한 부채를 갚는데 많은 세월을 보낸 것이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물론 이 같은 이유만으로 꼭 그를 도와야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한국불교계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내용에 있다.

존 리 씨의 연구주제는 '유럽을 배경으로 한 현대 한국선의 확대'다. 일반적으로 한국불교계의 해외포교는 영어를 기반으로 한 획일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유럽에 정착하기 위해선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 접근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그는 파리 길상사와 폴란드 우봉사, 헝가리 원광사 등을 방문해 현장연구를 수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불교의 세계화를 강조하는 한국불교계가 이 같은 고민을 얼마나 깊이 해봤는지 반성할 일이다. 어쩌면 이는 우리의 당면과제를 외국인 학자에게 떠맡긴 셈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한국불교계는 푸른 눈의 불교학자가 겪는 고충을 보다 넓은 마음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 이미 하버드대 출신 현각 스님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존 리 씨의 기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후원자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불교를 사랑하는 외국인학자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이 닿길 기원한다.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기자

콘텐츠가 올림픽 성공 이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7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다. 취재를 위해 조계사를 지나가고 있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참배객이 있었다. 바로 사리친견 법회 동참자들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더위에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그 사리 앞을 정성스럽게 지키고 있는 조계사 신도들의 정성이었다. 우리 절의 성보, 불교계의 성보란 마음가짐이 체감온도가 40도는 넘는 날에도 이들에게 스스로 한복을 입고 나서게 만들다. 흐르는 땀방울에도 이들의 시선은 사리에 꽂혀 있었다.

이런 신심어린 노력 때문일까. 7월 25일 회향한 조계사 사리친견법회에는 49일간 수만명의 불자들이 방문했다.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살아있는 성보로서의 사리를 친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앞선 7월 24일은 평창올림픽 개최가 200일 앞둔 날이었다. 2011년 7월, 남아공 더반에서 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호명되자 수많은 국민들이 환호했다. 10년의 시간 동안 3수 끝에 일궈낸 동계올림픽 유치는 큰 기쁨을 선사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앞선 2006년 5월 평창과 관련돼 국민들이 환호한 일이 또 있었다. 바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반환이었다. 이후 2011년 조선왕실의궤의 환수까지 이어졌다.

당시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궤 환수에는 불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 평창 월정사 등은 십수년간 일본의 관계자를 찾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이면에는 우리의 문화재, 성보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는 평창 월정사 오대산사고가 본 소장처임에도 아직도 제자리인 오대산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서울대에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관리주체가 이관된 이후 여전히 타향살이를 계속하고 있다.

다시 올림픽을 돌아보자. 올림픽을 6개월 여 앞둔 지금,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평창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48%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 열흘 전 64%에 비해 국내 개최임에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흔적이 올림픽 준비현장 곳곳에서 드러나며 올림픽 선정 자체에 대한 국민적 반감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올림픽 조직위원회나 지자체장들의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리기 위한 발길도 바빠지고 있다.

그렇다면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을 해보면 그 해답은 자명하다.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과 세계인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콘텐츠는 누가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에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사찰이다. 무더운 여름에도 스스로 한복을 입고 나선 조계사 불자들과 같이 말이다.

정부는 넓은 의미의 문화올림픽, 그리고 전통문화 활용을 위해서라도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궤의 본 소장처 반환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평창올림픽을 기해 한국을 찾는 수많은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기대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가슴을 뛰게하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2자
◀대북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 × 65 × 135㎜ 15만원
「중」 110 × 80 × 160㎜ 20만원
「대」 140 × 95 × 200㎜ 25만원

■ 재질 : 청동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100,000원~~ → 90,000원



수제 햄머 Hammer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① 드립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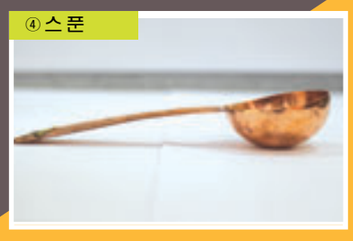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 × 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 × 120(h) × 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 × 140(h) × 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향나무향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단)


(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김경숙 동림청소년연구소장은 아이들과 함께 살다시피한다. 어려서부터 사찰서 뛰어놀기 좋아한 그녀가 이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찰에서 뛰놀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불교는 運命, 어린이 포교는 宿命”

그대는 자비보살 김경숙 부산 홍법사 동림청소년연구소 소장

어린이 포교 새장 열다

홍법사 어린이기도 주도해

부산 어린이 하안거 始發點

음악교육 이용해 포교 나서

콩쿠르 입상 등 성과 내기도

뼛속까지 불제자

어려서 사찰서 놀며 자라

초5 때 여름성경학교 보며

“사찰에서 저렇게 해봐야지”

대학 진학 후 포교 발원

佛道 부산에서는 여름이면 아이들의 독특한 모임이 시작된다. 바로 어린이 하안거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 회원 사찰들이 합심해 여는 이 안거에는 사찰 어린이들이 대거 동참한다.

8월 여름 방학 기간 가운데 21일을 정해 수행기간으로 삼았으며, 참가하는 어린이들은 하루 동안 감사할 내용을 찾아 부처님께 편지 쓰듯 일기를 쓰고 하루를 돌아본다. 어린이 안거 주제는 ‘감사’다. 감사를 통해 만족을 알고 물질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인성과 가치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안거를 준비하는 동안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원 스님들이 귀 기울여 조언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김경숙(48) 동림청소년연구소 소장이다.

어린이 포교는 대부분 사찰에서 법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외의 활동은 엄두조차 내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김경숙 소장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어린이 수행을 뚝심있게 진행해 성공시킨 장본인이다.

열정은 전염된다. 신행 포교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돌진한 김 소장의 열정이 부산 곳곳에 전염됐다.

어린이 포교는 전쟁통 속 마음수행

7월 23일 부산 두구동 홍법사 어린이 법회 현장을 방문했다. 김경숙 소장을 만나기 위해서다. 김 소장은 동림어린이합창단을 지도하고 있었다. 피아노 소리에 맞춰 힘찬 합창을 하기도 잠시 아이들은 제각기 하고 싶은 말과 행동으로 소란이다.

팔에 끼고 있던 팔찌를 깨물어 터트린 아이, 친구를 일러주는 어린이, 핸드폰 만지는 아이 심지어 농구공까지 마구 날아다닌다.

통제는 어려워 보였다. 통제를 하려니 목소리가 올라가고 안 하려니 정신이 없다. 아이들 틈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땀이 흘러 내렸다. 하지만 김 소장은 당혹스러워 하는 기자를 향해 웃으며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요?”라고 일침이다.

사실 홍법사를 찾아가기 전 홍법사 어린이들은 차분할 것이라 생각했다. 김 소장은 웃으며 말했다.

“어린이 포교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 많은 사찰에서 어린이 포교를 어렵게 생각하고 접근을 못하죠. 하루에 수십 번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어린이를 만나면서 저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게 됩니다. 어쩌면 전쟁터 같은 극한의 수행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김 소장은 하루에 수십 번 자신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훔쳤다고 했다.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위해 고심하고 이끌어 낸 결과물이 ‘어린이 안거 수행’이라는 것이다.

어린이 포교, 부처님 법이 답이다.

홍법사가 창건 된 후 김 소장이 어린이 포교를 담당하며 재능 기부봉사가 시도됐다. 김 소장은 음대에서 작곡을 전공했고 음악에 남다른 재능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플룻을 배웠다. 음악을 배우고 싶은 어린이에게 기회를 주고 사찰에서 쉬게 했으며 법회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는 일에 동참했다.

김 소장이 처음 어린이 포교를 하고자 했을 때 주지 심산 스님은 “준비가 다 된 후엔 늦다. 준비를 마침 언제 포교하느냐?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말에 김 소장은 망설임 없이 어린이 포교에 뛰어 들었다.

처음 플룻 수업을 담당했던 김 소장은 어머니들의 반대 목소리도 들어야 했다. 무료수업이었지만 악기인 플룻이 45만원을 넘는 고가였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자세로 어려움을 돌파했다.

“어머니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무료수업이니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수업을 이어오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어머니들과의 작은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했구요.”

동림 어린이법회 자모들 사이에서 김 소장의 정성은 유명하다. 김 소장은 일요일 법회 후 오전에 총 3시간 씩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직접 전화해 연습량을 점검한다. 발표회가 있는 날에는 학원 혹은 집에까지 아이들을 불러 연습을 시켰다. 그 결과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이해를 못해도 전 약속을 어기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고 싶었죠.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합니다.”

동림어린이합창단은 2016년 연꽃노래잔치에서 합창 최우수, 중창 우수, 독창 우수와 2017년에는 중창부분 최우수를 수상하며 실력을 드러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 전국 찬불율동제에서 최우수상도 받았다.

김 소장은 음악을 가르치면서 보람도 있었지만 아직도 부족함을 느낀다고 했다. 음악보다 포교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놀이와 흥미 위주의 수업 만으로는 포교에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보석, 삶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히 아이들 때는 인격이 형성되는데 이 시기 부처님 가르침을 접한다면 바르게 자랄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런 길로 이끌어야지만 포교라 생각합니다.”

김 소장은 아이들 대신 어머니들부터 불자로 만들었다. 2015년 11월, 50명의 자모들이 김 소장의 권유로 1000일 기도를 시작했다. 여기서 더 나가 김 소장은 아이들도 기도를 해보자고 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부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불자로써 자긍심과 사찰 신도라는 소속감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다.

“처음에는 많아봐야 아이들이 5명 정도가 동참할 거라 예상했어요. 그런데 어린이법회 아이들부터 음악반까지 동참하면서 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와 관세음보살 42진언수 사불을 하며 발원문을 외웠어요. 이듬해 하안거에서는 좀 더 용기를 냈습니다. 매일 108배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자모들은 어려운 일이라며 안된다고 말렸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할 수 있다고 나섰죠.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 했던 것 보다 훨씬 컸고 그 가능성은 믿어주는 것 만큼 성장했습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B5
문화
관음종 법성사,
〈깨달음의 빛-비로자나불〉 도록 발간

B6
기획연재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어린이 수행 확산… “안거 문화 정착 노력”



소란을 피우던 아이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관심을 보인다. 인성교육이 함께하는 어린이 수행으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길 기원한다.



김경숙 소장의 지도로 동림어린이합창단은 각종 대회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홍법사에서 어린이 수행을 지도하는 김경숙 소장.

김경숙 소장은?

홍법사 창건 후 음악 재능 기부로 아이들을 이끌어왔다. 홍법사에서 문화 포교 뿐 아니라 수행을 강조하고 안거 90일, 내 안의 감사향기 1000일 기도를 진행 중이다. 현재 조계종부산연합회는 8월 방학한달 동안 21일간 어린이 재가 안거를 실시한다. 어린이 재가 안거를 위해 노하우를 전달하고 안거 기간 동안 어린이 안거 활성화를 위해 봉사할 계획이다.



‘김경숙 소장’ B1면에서 계속

현재 어린이 안거 수행은 각 가정을 수행 공동체로 이끌고 있다. 매일 마다 부모들은 아이들과 108배를 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은 친구가 집에 놀러 와도 함께 절을 했고 친척이 와도 노는 것이 아니라 권선해 함께 절을 했다. 그 기록은 고스란히 밴드를 통해 공유했고 서로 자극 받았다.

“하루 2시간 이상씩 아이들이 올린 수행 일기를 보며 하루를 보내요. 답글을 달고 격려하고 칭찬하죠. 그렇게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힘을 얻고 도전 받으며 용기를 내더군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저였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감동을 받고 수행 일기를 보며 벅찬 환희심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각 90일 씩 3번의 안거를 보낸 후 김 소장은 1000일 수행을 시작했다.

김 소장은 어린이 수행을 위해 눈높이에 맞게 수행집도 기획했다. 홍법사에서는 적극 후원했다. 〈동림 하안거 수행집〉, 〈동림 동안거 수행집〉이 안거 때 마다 제작됐다. 이후 이 어린이 수행집은 조계종부산연합회의 어린이 하안거 수행집의 모태가 됐다.

안거마다 주제도 정해졌다. 현재 진행 중인 1000일 수행은 ‘감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를 위한 책자 〈내 안의 감사향기〉도 제작된 상태다.

김 소장은 어린이 뿐 아니라 모든 연령의 불자들이 동참 할 수 있는 수행집도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집의 아이디어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찰나에 떠오르는 문제 해결 방안들을 구체화한 것이다.

올해 하안거 수행 주제인 ‘내 안의 감사향기’

목표는 포교 기틀 닦기

매년 어린이 수행집 펴내
인성교육 접목한 주제 설정
부모교육 비롯 가족포교 진행
“스쳐간 인연도 불자 씨앗”

만도 그렇다. 김 소장은 실제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감사’와 ‘만족’이며 이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물질이 넘쳐나는 시대에 삽니다. 하지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아이들은 순간의 만족을 위해 더 요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 자랄수록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진다고 진짜 행복해질까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만족’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으로 변화시키고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할 줄 알 때 주변을 돌아보며 인연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숙명 같이 찾아온 불자로의 삶

어릴 적 신행 생활과 어린이 포교에 대한 계기를 물었다. 그러자 김 소장은 ‘숙명’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태어날 때 당시부터 불연이 있었던 김 소장에게 불교는 운명처럼 다가왔다. 김 소장의 이모할머니는 김해 덕운암 혜원 스님이다. 김 소장의 아버지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혜원 스님을 어머니처럼 따랐다.

“어릴 때 방학만 되면 사찰에서 지냈지요. 전 사찰이 너무 좋았어요. 법당에 들어가 스님 모습을 자주 흉내 내기도 했어요.”

어릴 적 김 소장은 법당에 들어가 목탁을 치고 경전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 올리는 것을 좋아했다. 대학에 진학 후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발원한 것이 어린이 포교의 계기가 됐다.

“지금도 이상해요. 어떻게 그런 발원을 했는지요. 이후 기도를 하며 포교 방법을 모르겠으니 일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리고 그 후 꿈에 어느 비구 스님께서 절 안에 있는 큰 나무 옆에 서서 저에게 작은 책을 나눠 주시더군요. 그 책을 받아 들며 너무 작다 여겼는데 펼치자 산 아래 마을까지 경전이 펼쳐졌어요. 부처님이 저에게 보여준 기도 가피라 생각합니다. 저는 힘이 필요 할 때 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어릴 때 잠시 교회에 나간 경험도 지금의 김 소장에게 큰 도움이 됐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잠시 교회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때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북치고 노래하며 동네를 돌고 아이들을 모으더군요. 그 때 교회 합창단을 보고 왜 사찰에선 조용히 하라고만 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 나도 나중에 사찰에서 지도교사를 하면 꼭 바꿔야지란 결심을 했습니다.”

어린이 포교에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소장은 망설임 없이 ‘인력 부족’이라고 답했다.

“교사가 부족합니다. 부처님을 사랑하기에 천진불도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 모습 그 자체로 안아주고 받아주며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신심과 실력이 있는 교사가 절실합니다. 어린이 포교는 곧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불교의 미래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 김 소장은 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아이들의 비위를 맞추는 교육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요즘은 한 가정에 아이 한명 혹은 두 명입니다. 부족함 없이 자라고 바라는 것은 즉시 손에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예로 핸드폰을 한번 보세요.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 보다 더 좋아요. 참을성을 키우고 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부모 교육까지 함께 시킬 수 있는 곳이 사찰이어야 합니다. 이젠 머리수를 세는 포교 보다는 세상을 이끌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취재를 마치고 홍법사 경내를 걸었다. 경내에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자리를 잡고 여름을 지내고 있었다. 갑자기 김 소장의 말이 떠올랐다.

“민들레 씨가 바람에 날려 알 수 없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꽃이 됩니다. 이곳을 스쳐 갔던 아이들이여도 그 마음에는 불심이 자리 잡고 성장할 것이라 믿어요. 어디에 자리를 잡고 성장 할지 모르지만 그 인연 속에서 불심의 씨앗이 성장해 꽃을 피울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부산=하성미 기자



세 번의 1만배 백일기도 "이제 두려움은 없다"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⑮ 화가 한경혜씨 두 번째 이야기

수 십 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절을 하고 이십대에 만배 백일기도를 세 번이나 한 한경혜씨를 두고 말할 때, 절수행을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다.

"불보살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보통 인간으로서는 그러한 혹독한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인간에게 얼마나 위대한 힘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 부처로 왔다는 것이 나머지 하나이다. 사지가 온전치 않은 뇌성마비의 몸으로 일곱 살 때부터 시작해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천배를 계속되고 있는 예는 세상을 통틀어 그녀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그녀는 천배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1시간 30분 동안 아무 상념 없이 절을 했다. 거울 같은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도를 한다. 그 기도는 마치 물 위에 저절로 떠오르는 달빛이나 나무그림자 같은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내 몸이 열기로 채워진다. 세포들이 하나씩 살아나고 한편으론 내가 비워지는 것을 동시에 느낀다. 절을 할수록 손과 발, 다리, 배 등 몸 전체가 따뜻해진다. 반대로 머리는 차고 맑은 산속 공기를 마시듯 매우 청량해짐을 느낀다. 마치 이마 정수리 부분에서 시원한 솔바람이 나오는듯한 기분이다. 땀은 흐르지만 호흡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점점 머리가 맑아지고 몸은 따뜻하면서도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싱그러운 시간이며 생기 있는 나를 느끼는 시간이다."

오랜 시간 무수한 절로 자신을 극복한 사람답게 절수행의 효능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노력 없는 결과는 없는 법, 그녀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혹독한 수련의 시간들이 있었다. 학교생활과 절을 하는 것을 빼놓으면 아무 것도 없는 시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몸에는 익어 가는데, 마음에선 하기 싫다는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만날 전전긍긍 절만 하는 생활에 반발이 생긴 것이다. 최소한 친구들이 하는 시험공부를 해보고 싶었다. 생각다 못해 성철 큰스님을 찾아갔다. 시험 기간만이라도 오백배로 깎아달라고 부탁을 드려볼 생각이었다. 성철 스님은 어린소녀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다. 주장자로 몇 대 머리를 내리치고는 숙제 하나를 더 보태주었다.

"천 배는 천 배대로 계속하고 시험도 잘 쳐서 성적표도 가지고 오너라."

그 말씀이 야속해서 법당으로 올라가 하염없이 울었던 소녀는 결국 스물둘,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만배 백일기도를 시작할 때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천배를 했다. 선지식의 단호한 채찍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물론 절을 하는 동안 매일 천배씩 절을 하겠다는 큰스님과 약속이 슬그머니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한 배 한 배 정성스럽게 하지 않을 때도, 마음속으로 불안과 시기와 욕심이 들어와 앉으려고 할 때도 있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지 못하고 못난 생각에 점령될 때도 있었다.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잡초처럼 자라 날 때도, 우리 모두가 부처라는 진리를 잊고 모두를 귀하게 대하는 마음이 엷어질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성철 큰스님의 매섭고 단호한 눈빛이 따뜻한 죽비가 되어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다. 그런데 성철스님의 이러한 죽비는 그녀에게만 내린 것은 아닌 것 같다. 얼마 전, 지리산을 지나는 길에 성철스님의 생가에 지어진 겁외사에 잠깐 들렀더니 올 가을에 시작되는 '천배 천일기도'를 알리는 현수막이 일주문에 걸려있었다. 큰스님이 열반하신지 스무 해가 지났어도 일체 중생을 위해 참회하고 기도하라던 스님의 죽비소리가 여전한 것이다.

생명을 담보로 한 도전장, 만 배 백일기도

그렇게 절을 하며 인생을 바꿔가던 그녀가 만배 백일기도를 시작한 것은 대학을 졸업한 이틀 뒤였다. 15년 동안 절을 하면서 확연히 좋아진 육체적인 변화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늘이 내린 숙명, 전생의 업보를 이번 생에서 생명을 담보로 한 만배 수행으로 당당하게 도전하고 싶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생명을 부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하루 만 배를 하려면 하루 서너 시간 자는 시간 말고는 절만해야 한다. 극한의 수행이다. 만 배 백일기도를 하고 나면 육체적 껍질이 번데기처럼 벗겨져 나비처럼 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수행 첫날의 기록이다.

성철 스님의 질책과 격려
대학 졸업 후 1만배 원동력
히말라야 트레킹 등 이어나가

"좌복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굽혀 머리를 낮춘다. 살아오면서 내 몸과 입 그리고 생각들이 무심결에 지은 죄업을 바라본다. 입으로 '예불대참회문'을 끊임없이 외우며 머리로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머리와 몸을 숙여 몸으로 참회한다. 절이 깊어질수록 호흡이 고르게 되고 내 몸이 스스로 리듬을 찾아 제 갈 길을 가는 것이다. 마치 등산하는 심정으로 묵묵히 일 배씩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산이 있어 산을 오른다는 말처럼 절을 해야 하기에 나는 그저 절을 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롭게 시작한 기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고통으로 변했다. 한 마디로 통증과 인내의 싸움이었다. 차라리 몸을 버리고 싶을 정도의 통증이 밀려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데가 없고 땀이 눈에 들어가서 눈까지 헤집어놓은 듯 따가웠다. 허리통증, 무릎과 발목관절, 발가락, 발바닥의 통증, 현기증, 두통, 사지통부터 시작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힘이 하나도 없는 무력증까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 뒤따랐다. 하루 네끼 먹는 밥도 모래알을 씹는 듯했다. 만 배를 마치고 저녁에 나무등걸처럼 쓰러졌으나 온몸에 땀띠가 나서 도무지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다. 절을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다가도 다음날이 되면 눈이 떠졌다. 이미 절을 하는 것은 그녀가 아니었다. 리듬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다.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그녀가 몸을 움직이는 것 같은 미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림 · 박구원

기도 중반쯤 들어서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나쁜 마음을 먹기도 했다. 운명에 도전해보려고 시작했으나 체력의 한계와 정신이 무너져 차라리 삶을 멈추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아서 약을 털어 넣기도 했던 것이다. 보석 같은 구슬이 사방에서 반짝이기도 했고, 키가 열 척이 넘는 사람들이 목에 칼을 대고 죽이려고 하는 환상을 보기도 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의식을 잃기도 했다. 10여일을 앞두고 속옷이 거의 솜사탕처럼 만지기만 해도 툭툭 떨어져나갔다. 많은 고비를 넘기며 첫 번째 백일기도를 마쳤을 때 그녀의 몸무게는 38킬로그램이었다.

생사를 넘나들던 첫 번째 백일기도를 끝낸 후 두 달간의 휴식기간을 가진 다음 다시 두 번 째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자신과의 싸움을 백일기도 한번으로 결판낼 수 없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윤회를 끝내고 싶다는 소망이 앞섰다. 절을 하다가 죽더라도 좋다는 결심이었다. 고통은 첫 번째 기도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조차 포기하자 마음은 편했다. 날이 갈수록 무덤덤하고 무심해졌다. 숨결만 남은 것 같았다. 어느 날 드디어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며 구경각의 경지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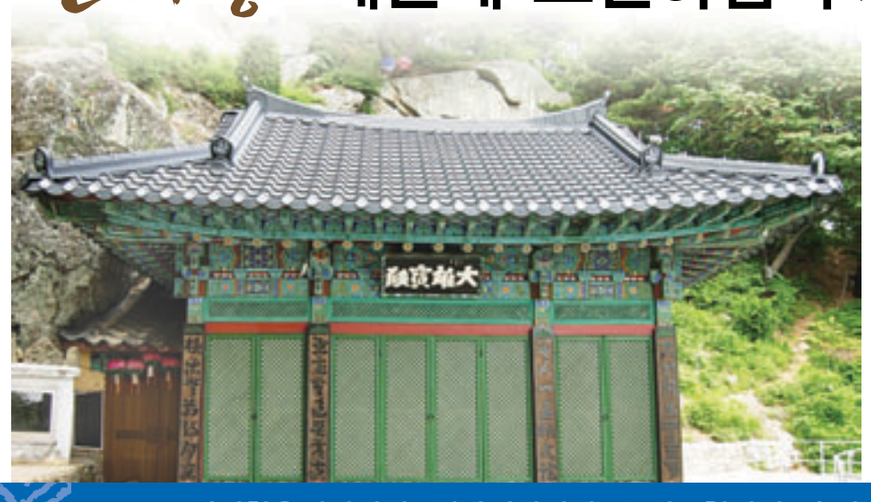
다음해 1월 다시 세 번째 만배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지난날에 대한 감사와 모든 은혜를 시방의 모든 생명들에게 회향하는 절을 한 것이다. 화두를 잡고 절을 하며 세 번째 기도를 끝낸 그녀는 생명이 다하면 몸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자리만은 영원한 불성으로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 번의 만배 백일 수행이라는 긴 고통의 강물을 건너고 난 다음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다.

"절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비틀어지고 흔들거리던 몸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절이 내게 준 것은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해주었고,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해주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었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이제 사람들 속에서 나는 온전하다.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고 노래하고 나누는 삶이 무엇보다 행복하다. 이러한 희망과 행복을 가지게 한 것이 바로 내 몸을 낮추는 절이었다. 절은 나를 낮추기도 하지만 우뚝 서게도 만든 지혜이며 자유였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두려움은 없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고 선언한 그녀는 그 후 스물여섯에 15박 16일의 히말라야트레킹에 도전해 성공했다. 절수행으로 인간의 한계에 극복한 힘을 다시 한 번 증명해보인 것이다. 정상에서서 그녀는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이며, 진정한 장애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녀는 또 자신의 수행이야기를 담은 〈오체투지〉를 출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홍익대 대학원에서 그림공부에 몰두해 미술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물과 돌의 작가'로 불리며 한국화단의 중견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붓으로 물이나 수초를 그릴 때 그들이 가진 내면의 소리를 화면에 잡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절을 통해 두두물물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은 그녀가 그린 그림이야말로 현대인들의 불안한 정서를 정화하고 치유하는 정신적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그녀는 전시회 준비에 한창 바쁘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마음을 먹고 그녀에게 만나고 싶다는 간단한 문자를 보냈다. 사십대에 이른 그녀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고, 여전히 매일 천배를 한다는 그녀에게 영향을 받아 절을 하는 그녀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다. 전시회 준비 작품을 끝내기 전까지는 어렵겠다는 답신이 왔다. 당당하면서도 겸손함이 담겨있는 짧은 메시지로 아쉬움을 달랬다. 초인적인 절수행을 통해 얻은 집중과 정화의 에너지가 들어있을 그녀의 작품이 진심으로 기대된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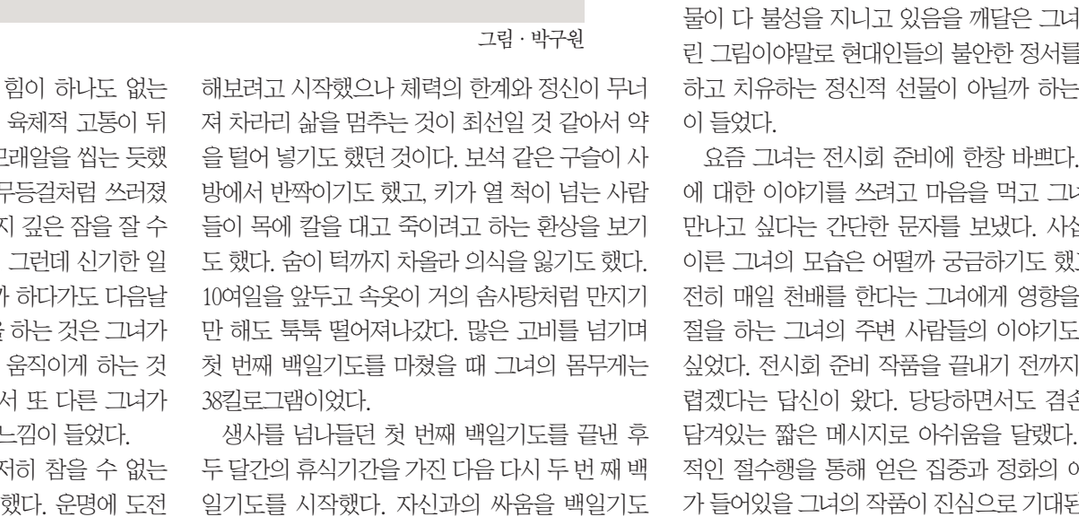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7.26~2017.8.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2017년 개정판)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2	불화의비밀	자현	조계종출판사	7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3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8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4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9	꽃도꽃피우기위해애를쓴다	정목	수오서재
5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10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화공의 예술혼과 구도 정신 픽션에 담아



푼다리카

신이산 지음
얘기꾼 펴냄
1만 3500원

〈푼다리카〉는 제 1회 법계문학상 당선작이다. 법계문학상은 운문사를 한국 최고의 비구니 전문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킨 명성 스님의 원력에 의해 제정된 불교문학상이다. '푼다리카'는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라는 범어서 유래한 말로 '흰 연꽃(白蓮)'이란 뜻이다.

이번 소설 〈푼다리카〉는 허복이라는 청각장애인이 절에서 불화를 배우다 하산한 뒤 수월관음도를 완성한 이야기가 중심 서사를 이룬다. 아마도 여주인공 지소연의 헌신적 도움과 사랑이 없었다면 불화 완성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소설은 허복과 지소연이 부부이자 도반이 돼 사랑과 예술, 그리고 종교적 수행을 위해 정진하는 이야기이다.

허복은 20년간 망월암서 법현에게 불화를 배운 뒤 하산한다. 조만수의 도움으로 지리산 보광사서 머물다 지소연을 만난다. 허복은 단청불사가 끝난 뒤 친구 유종호(지홍)를 찾아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 지소연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허복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간다. 고립무원인 허복을 외면하지 못하고 자기 화실로 데려와 함께 지낸다. 지소연은 보광사로 다시 일을 떠나고, 허복은 그녀의 권유에 따라 수월관음도를 그린다. 지소연은 대해심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법현의 전화를 받고 허복과 함께 병원으로 간다. 대해심은 두 사람을 맺어준 뒤 눈을 감는다. 지소연은 대해심 사망 뒤 망월암에 머무는 허복을 찾아간다. 지소연과 허복은 탑돌이를 하며 사랑을 확인한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푼다리카불교미술원을 세운다. 행복한 결혼 생활도 잠시, 지소연은 단청불사 중 세상을 떠난다. 허복은 아내의 극락왕생을 위해 아미타내영도를 그려 아내의 영전에 올린다는게 주 내용이다.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여보' 약간 쉰 듯하지만 부드러운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다. 얼마나 듣고 싶던 아내의 목소리던가. 허복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한 생각이 벼락처럼 머리를 쳤다. 강한 전류가 온몸을 휘젓고 지나갔다. 불화를 그리자. 아내 혼자 가야 할, 어둡고 무서운 저승길에 등불을 밝혀주자.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문학평론가인 동국대 장영우 교수는 "〈푼다리카〉는 한 불화가가 일생의 걸작을 완성한 과정을 다룬 소설이다. 그 과정서 허복이 만난 여러 인물들, 이를테면 스승 법현과 동갑내기 친구 유종호(지홍), 그리고 아내(지소연)와의 인연이 이리저리 얽히면서 그들 서로가 인생과 예술, 그리고 구도 과정이 진실한 도반 관계라는 점을 암시한 작품"이라며 "이 소설은 우리 소설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불화를 제재로, 그 세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줌과 동시에 불화에 대한 통념을 깨뜨리는 새로운 그림 형태를 제시해 무척 흥미롭다"고 평했다.



소설〈푼다리카〉의 저자 신이산 작가

한 불화가 일생 걸작 완성과정 다뤄
"불화에 대한 통념 깨뜨린 것 흥미"

또한 심사위원들도 심사평을 통해 "법계문학상은 운문사를 한국 최고의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며, 비구니 교육과 권익 증진에 평생을 바친 명성 스님의 서원(誓願)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여타의 불교문학상과 달리 신인작가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상"이라며 "여러 절차를 거쳐 상을 제정해 세간에 공포한 시일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장편 소설과 동화 부문 응모작이 예상보다 많았고 작품 수준도 심사위원을 대체로 만족시켰다. 소설과 동화를 나누어 예심위원의 심사를 거친 뒤 본심에 추천된 작품을 몇 차례 독회와 토론을 거쳐 본심 심사위원 의견 일치로 당선작을 뽑았다"고 밝혔다.

한편 저자는 "독자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한 폭의 변상도와 같은 소설'을 쓸 수 있기를 기도한다. 불교문학이라는 거대한 돌탑 속의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되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이라고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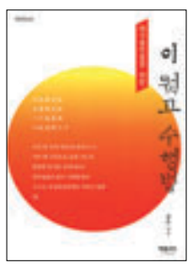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신이산**은?
본명은 신중철(愼重喆)이다. 동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 및 (주)두산 부사장을 역임했다. 2013년에 〈불교문예〉 신인상을, 2016년에 제 1회 법계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참선은 내가 참 나 깨닫는 길"

이뭣고 수행법

청운 스님 | 참글세상 펴냄 | 1만 3천원



불교의 궁극목표는 생사를 초탈해 윤회의 굴레서 벗어나 절대 자유 자재권을 얻는 성불에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불교의 본질을 외면하고 기복으로 약 처방전에 매달리게 하여 당당한 본래 부처로서의 삶이 아닌 종노릇만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이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 한 시대의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는 견해나 인식의 고정관념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불자들이 최상승법인 참선문에 들어와 삶속에서 소원성취는 물론 다겁생래로 지어온 업장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간화선인 '이 뭣고' 수행방법을 제시 하고자 부처님 말씀과 선지식들의 주옥같은 선문답과 법문을 내용으로 재가불자들이 급변하는 현대생활 속에서 좀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 10여년간 '이뭣고' 수행
수행법과 선지식들 법문 버무려
"간화선 통한 지혜의 기쁨 전해"

참선은 내가 참나를 깨닫는 길이다. 내가 나를 깨달아서 불조의 혜명을 이어 받음으로서, 생사고에서 벗어나고 다같이 성불로 이어진다.

"시심마?" "이뭣고?" 이 화두가 순일해 지면 익숙한 중생계의 세상사는 저절로 멀어지고, 생소하던 출세간사는 저절로 익숙해져 반야지혜에 계합해 무명업식과 사량하고 계교하든 식정의 중생 삶에서 해탈하고, 지혜광명의 아미타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10여 년의 '이뭣고' 수행 끝에 찾아낸 저자 청운 스님〈사진 · 남양주 선재사 주지〉은 한 살림을 풀어 놓았다. 이것이 무엇인고? 화두를 들면 온갖 중생들의 번뇌가 들끓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한 소식을 풀어 대중에게 지혜를 심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스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을 빌려 중생들의 지혜를 열어 보고자 한다.

몸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도,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요, 부처님의 지혜 목숨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삼계에 뛰어나서 중생을 건지려는 원력 때문이다. 중생은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며 그것이 꿈이며 헛것이며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또한 중생은 생과 사를 둘로 보는데, 육안으로는 육신밖에 못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법안으로 법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고, 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이는 생사를 하나로 본다. 더 나아가 생사마저도 없다고 한다. 청운 스님도 간화선을 통해 지혜가 열리는 기쁨을 알고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의 원력으로 알리고자 했다.

김주일 기자

빙의장애 원인과 개념 등 설명

진리는 의학이다

영탁 스님 지음 | 하이비전 펴냄 | 1만 5천원



문명이 고도화되고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인간의 삶도 큰 변화를 맞는다. 물질 만능주의, 관능적 쾌락주의, 이기주의적 경향 등 각종 병폐적 가치관이 우리 삶의 중심을 뒤흔들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를 지탱한 도덕과 윤리, 가치관의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것은 인간의 근본 의식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물질과 정신이 상호의지 작용하고 상속 진화해 온 결과로 최근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빙의장애 유전병의 발병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병원서 빙의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 숫자는 매우 드물고, 정신과 의사들조차도 빙의장애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학적 치료의 길이 막힌 빙의장애 환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방황하며 검증되지 않은 민간의 축귀법을 시도하거나, 굿이나 제사 같은 종교적 절차에 의존한다.

저자인 영탁 스님은 유전병인 빙의 치료(완치)뿐 아니라 혼자만의 고통과 외로움,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본 책을 펴냈다. 특히 불문(佛門)에 입문한 이래 저자의 유일한 서원인 빙의장애로 고통 받는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다짐을 실현하는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김주일 기자

염불의 수승함을 낱낱이 밝힌 책!
염불, 정토에 왕생하는 길
염불경 역주
염불은 어떻게 해야 하며, 염불을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도경 · 선도 저/이태원 역저/국판/248쪽/12,000원

깨달음은 성불이 아니다!
삼신三身의 성취가 성불이다!
간화선의 실제와 성불의 길
과연 간화선만이 올바른 수행법인가?
간화선의 울타리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중국불교와 남방불교를 넘나들며 공부하고 수행하고 스스로 점검한 수행이론과 방법, 수행의 과정과 목적을 밝힌 책!
송학 지음/국판 양장/264쪽/15,000원

미국불교
역사 및 주요 종파와 전통에 대한 성찰
BUDDHISM IN AMERICA
리처드 휴지스 시거 지음/장은화 옮김
신국판/590쪽/30,000원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는 미국불교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미국 불교의 개략적인 역사, 주요 불교 종파와 전통, 그리고 미국 불교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세월의 마모에도 '진리의 빛'은 그대로…


포동리 절터 북쪽 산록 경사면에서 발견된 석조비로자나불상은 2013년 4월 횡성군 갑천의 웅성사 대웅전 뒤편 야산으로 옮겨졌다.

관음종 법성사, 비로자나불상 도록 〈깨달음의 빛-비로자나불〉 발간

7년간 157기 비로자나불상 촬영
상하권 800쪽… 사진작가 정태호
포항 서정리사지 비로자나불상 외
방치된 문화재급 불상 대거 수록

포항 서정리 마을회관 앞, 방치된 듯 우두커니 불상 하나가 서있다. 여기저기 결실되고 얼굴도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닳은 모습이지만, 왼손의 둘째손가락을 오른손이 포근히 감싼 지권인(智拳印) 형태로 보아 비로자나불임을 알 수 있다. 수년의 세월에도 가만히 모은 두 손에서 뻗쳐 나오는 진리의 빛은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다. 절터는 사라지고 없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일대가 자비 광명의 물결로 넘쳐흐른다.

전국 산야에 흩어진 비로자나불을 7년의 세월 동안 찾아다니며 카메라에 담은 끝에, 한권의 사진집으로 완성됐다. 단순한 도록이라고 칭하긴 어딘가 부족하다. 개수조차 제대로 파악이 어려웠던 우리나라 비로자나불상을 집대성한 장엄불사다.

대한불교관음종 영축산 법성사(주지 법명)는 전국 157기의 비로자나불상을 엮은 도록 〈깨달음의 빛-비로자나불〉을 발간했다. 상 · 하권 총 800페이지로, 정태호 사진작가와 이숙희 불교미술사학자가 각각 사진과 해설을 담아냈다.

정태호 사진작가(스페이스포토스튜디오 실장)는 이번 도록 출간까지 7년에 걸쳐 발품 팔며 1,800여 장의 비로자나불 사진을 찍었다. 전국 8도에 다닌 곳만해도 150곳이 훌쩍 넘는다.

정 작가는 "불교의 진리를 조각이란 조형물로 표현한 '법신불'을 한 장 사진으로 대변하기가 참 어려웠다"면서 "그토록 오랜 세월 묵묵히 앞만 쳐다보고 계시는 비로자나부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들려주려 했는지 의문을 풀어보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수록된 작품들은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박물관 소장품 뿐 아니라 조성연대 및 연원 미상의 것들도 상당수다. 포항 서정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상을 비롯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세월에 따라 깎이고 부서져 비로자나불임을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것도 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은 곳곳에 방치된 비로자나불의 가치와 미를 새로 보는 계기로 의미가 깊다.

정 작가는 "아주 추운 겨울 서정리사지를 찾았는데 불상이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마을입구 시멘트 바닥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불두는 없어지고 대신하는 돌에는 녹색스프레이로 얼굴모양을 그려 놓았는데 얼마나 답답하던지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남양주 수종사 석탑서 발견된 금동비로자나불좌상.


서정리 마을회관 앞 방치된 서정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횡성 포동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도 파손이 심해 형상을 알아보기 어렵다. 머리는 거의 파손되고 얼굴에는 콧등만 확인된다. 목에는 머리와 불신을 이어 붙인 시멘트 흔적이 두툼히 남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팔의 위치를 통해 지권인을 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횡성 자연휴양림 내 저고리골 상류에 위치한 경작지 일대에 해당되는 포동리 절터에서 발견돼 2013년 횡성군 갑천에 위치한 용성사 대웅전 뒤편 야산에 옮겨졌다.

이밖에도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서 발견된 조선시대의 금동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1788호)은 대표작으로 꼽힌다. 대좌 밑바닥에 새겨진 '1628년(인조 6)에 인목대비 김씨가 발원해 조성했다'는 명문을 통해 왕실서 발원해 17세기 전반에 조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머리를 약간 숙이고 움츠린 자세로, 네모난 얼굴에 상체가 크고 유난히 하체가 빈약하게 처리돼 불안정한 비율이 인상적이다.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번 발간은 2005년 열반한 법성사 회주 법성 보살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것이다. 법성사 주지 법명 스님은 "한평생 비로자나불의 법을 펴고 중생제도를 해 오신 법성 보살님의 바람을 이제야 이루게 됐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비로자나불에 대해 알게 되고 법신불에 귀의해 말법시대를 살아가는데 귀의처가 되길 바란다. 또 전국 산천에 흩어져 오랜 세월 방치돼 비바람에 마멸되어 가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갖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음악과 함께하는 오대산의 여름밤

월정사(주지 정념)는 제14회 오대산문화축전을 8월 12~19일 경내 및 오대산 일대서 개최한다.

축제 기간 중 낮 시간대에는 '난다나 야외음악회', 저녁 시간대에는 '월정사 야외음악회'가 열린다. 난다나 야외음악회는 매일 오후 2시 우리 음악과 재즈 음악 공연이 펼쳐지며, 오후 7시 월정사 특설무대에서는 우리 전통음악무대를 비롯해 가수 고래야&하림 · 수리수리마하수리&이상은 등이 함께하는 대중음악 무대도 선보인다.

공연 외에도 임근우 화백의 설치 미술전이 개막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전통종이접기, 민화부채 채색하기, 우드공예, 친환경 샴푸만들기 등 문화체험도 실시된다. 15일에는 천년숲길에서 들차회가 열린다.

박아름 기자

BTN과 MBC 예능의 '환상 콜라보'

BTN '세상만사'와 MBC '세모방' 출연진 합동 촬영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의 국내최초 신개념 불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우리들의 토크쇼 세상만사(연출 안진호 · 이철수, 이하 세상만사)' 촬영 현장에 MBC 주말 예능 프로그램 '세모방-세상의 모든 방송' 출연진이 함께했다.

'세모방'은 개그맨 이경규 · 박명수, 배우 주상욱 · 이수경, 가수 헨리 등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들은 국내외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국×방송국' 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 세모방은 8월 개편을 맞아 첫 시작을 BTN '세상만사'와 함께하게 됐다.

녹화는 7월 17일과 18일 MBC 스튜디오 및 수원 봉녕사에서 진행됐다. 세모방 출연진들과 '세상만사'의 만초 · 심산 · 하림 · 주석 스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참신한 재미를 만들어냈다는 후문이다.


BTN불교TV '우리들의 토크쇼 세상만사' 출연진(사진 위)과 MBC 예능 '세모방=세상의 모든 방송' 출연진(아래) 모습. 사진제공=BTN

이번 녹화분은 '세상만사' 8월 6일 오후 10시(1부) · 16일 오후 2시(2부), '세모방' 7월 29일과 8월 6일 오후 11시 15분에 각각 방송된다. **박아름 기자**

茶, 인성교육 방편으로 활용… 어떻게?

2017 명원세계차박람회 '차와 인성' 주제
'청소년 인성교육 릴레이 특강'도 진행

전통차와 새로운 우리 차, 세계의 차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2017명원세계차박람회'가 8월 24~27일 서울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된다. 올해 4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차와 인성'이 주제다. 최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도와 다례를 통해 바른 인성의 함양 비법을 전하겠다는 취지다.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인성교육 릴레이 특강'이 마련된다. 〈인성이 실력이다〉의 저자 조벽 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일본차와 인성교육 현황' '백석초등학교 차와 인성교육 사례담'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의 브렉퍼스트 티'가 최초로 선보여져 눈길을 끈다. 브렉퍼스트 티는 호주의 셰린 존스톤 티마스터즈 대표와 우리나라 차 생산자들이 함께 개발한 차다. 박람회 동안 차 소개와 함께 시음행사도 진행된다.

이밖에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와 세계 차 다례와 예절문화 시연' '서양 어린이 티파티 예절' 등도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세계 차문화와 예절법 등을 참여하며 쉽고 재미있게 차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한국 차문화 산업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공로를 치하하는 '국제차문화대상' 시상식도 열린다. **박아름 기자**

철 골조로
사찰 신축 전문
지붕개량 전문

장점
• 목조보다 50% 비용 절감
• 지진에 강함
• 비틀림이 없음
• 공사기간 단축



대수건설 010-3911-1775. 011-9726-9288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참기 힘든 치아통증, 거친 피부
피부·치아 건강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참기힘든 치아 통증, 치아건강 백세인생
거친피부, 노화촉진, 피부건강, 청춘인생

약사여래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원력으로
건강하여지니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아토피,
피부알레르기,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화상, 모기, 풀독,
벌레 물린데, 가려움증 등
치아피부가 건강하지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010-6332-6070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묘도인 안 있는 호오도(鳳凰堂)의 모습. 지붕 위에 봉황상 한 쌍이 놓여 있기 때문에 에도시대부터 호오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안에는 아미타불좌상이 봉안돼 있는데 헤이안 시대 불상 가운데 최고봉으로 꼽힌다. 사진제공=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

봉황이 앉은 자리, 아미타 부처 나투다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⑭ 뵤도인

나라와 교토에 가본 적이 있는 외국인에게는 두 도시가 일본 고도(古都)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특색이 너무 다르다는 인상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 연재를 시작하면서 나라와 교토의 사찰을 다시 돌아다니는 나도 이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이번에 소개할 뵤도인(平等院)에서는 나라 사찰 경내에 있는 느낌과 너무 다르고 사찰이라기보다 아름다운 정원 혹은 궁전에 있는 착각까지 든다.

나라 사찰들은 천황의 발원으로 건립되어 황실 사람들의 건강을 기도하거나 호국 역할을 하는 사찰이 많았고 이미 소개한 교토 사찰 중에서도 국가와 관련된 사찰이 있었다. 이 점이 역사가 오래된 절부터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뵤도인 창건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천황의 발원'이라든가 '호국'이라는 말이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뵤도인은 어떻게 창건되었을까? 지금부터 일본 역사 배경에도 주목하면서 보고자 한다.

일본 동전 10엔짜리 뒷면에도 그려져 있고 수학여행 필수 코스로도 알려져 있는 뵤도인은 교토부 남부에 위치한 우지시(宇治市)에 있다. 우지차(宇治茶)로 유명한 이곳은 교토와 나라를 잇는 중간에 위치하고, 수운(水運)과 육운(陸運)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했다.

산으로 둘러싸이고 비와호(琵琶湖)에서 내려온 우지강의 맑은 강물이 흐르는 풍광명미(風光明媚)한 우지는 헤이안 귀족들이 별장을 짓는 곳이기도 했다. 뵤도인 시작도 9세기 중엽에 세워진 별장 우지인(宇治院)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로 황실 일족이 소유하던 우지인을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가 998년에 물려받았다. 그는 이곳을 우지덴(宇治殿)이라고 부르고 경승을 즐겼다. 그것을 미치나가의 아들인 요리미치(賴通)가 물려받았다. 요리미치는 1052년에 본당을 건립했다. 이때부터 우지덴은 뵤도인이라는 사찰로 불리었다. 이것이 뵤도인의 시작이다.

헤이안 시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문화적으로, 특히 미술사적으로 '후지와라 시대'라고 부른다.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문화적으로도 강한 힘이 있었던 귀족 후지와라 씨는 어떻게 힘을 갖게 되었는지, 또 문화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후지와라 씨는 고후쿠지를 소개할 때 말했듯이 후지와라 씨의 시조인 나카토미노 가마타리가 7세기 정변 때 공을 세우고 후지와라라는 성을 하사받았다. 그 후 후지와라노 가마타리가 된 것으로부터 역사를 시작한다. 가마타리 아들인 후히토 누나와 딸이 천황과 결혼하면서 황자와 황녀를 낳자 후히토는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다.

日10엔 동전 뒷면에 있는 사찰
1025년 본당 건립, 역사 시작
정토 사상 입각해 봉황당 조성
아미타불상, 헤이안 시대 걸작

후히토 아들 4명이 후지와라씨 남(南), 북(北), 식(式), 경(京)의 4대 가문의 시조가 되어 후지와라 4가를 이루게 되었다. 이 가운데 북가가 가장 번성한 가문이었다.

북가는 9세기 중엽에 사가천황이 세상을 떠난 후 주로 섭정(攝政)이라는 정무 방식으로 급격히 세력이 강해졌다. 섭정을 없애고 정치적인 상황을 바꾸려고 한 천황도 있었지만 절대적인 힘을 갖춘 후지와라씨가 섭정 자리에 계속 올라갔다.



호우도와 연꽃의 모습. 호우도는 정토사상에 입각해 조성됐다.

뵤도인 답사 안내

뵤도인 입장료로 호오도 외관, 봉상관 내부 관람을 할 수 있지만 호오도 내부에 들어가려면 따로 요금을 내야 된다. 개별적으로 관람하지 못하고 안내원을 따라서 20분 간격으로 관람한다. 사람이 많을 때는 경내에 들어가자마자 신청하는 편이 좋다. 봄과 가을에는 단체객이나 개인 방문객도 많은데 특히 등나무 꽃이 피는 봄에 붐빈다. 게이한 우지역에서 뵤도인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이다. 오사카에서 우지에 갈 때는 먼저 요도야바시(淀屋橋)역에서 데마치야나기(出町柳)행을 타고, 게이한 주쇼지마(中書島)역에서 우지행으로 갈아타고 간다. JR우지역에서도 걸어갈 수 있다.



후지와라 북가 가운데 후지와라노 다다히라(藤原忠平)의 자손만 섭정에 취임했는데 섭관자리를 둘러싸고 다다히라의 자손들이 치열한 투쟁을 했고 마침내 미치나가가 승리했다.

미치나가가 세상을 떠난 지 25년 후인 1052년, 마치 말법 시대가 시작한다고 하는 해에 미치나가 아들 요리미치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별장 우지덴을 사찰로 바꾸었다. 처음에는 본당이 있는 보통 사찰이었으나 다음해에 정토사상에 의하여 만들어진 정원인 서방정토를 구현한 정토식 정원을 만들고, 그 중심에 아미타당을 세워 아미타여래좌상을 봉안했다. 그것이 바로 현재 호오도(鳳凰堂)이다.

호오도 본래의 명칭이 아미타당이다. 지붕 위에 봉황상 한 쌍이 놓여 있기 때문에 에도시대부터 호오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일본 사찰 건축물이 비교적으로 직선적인 인상이 있는 것이 많은 가운데 호오도의 옆으로 펼쳐진 지붕이 곡선미로 너무 아름답고 부드러운 멋을 지니고 있어 호오도 자체가 마치 봉황이 날개를 좌우로 크게 펼쳐진 모습으로 보인다. 호오도 밖에서 은은히 보이는 아미타여래좌상이 헤이안 시대 불상 가운데 최고봉으로 꼽힌다.

후지와라 시대를 대표하는 불상 조각가 조초(定朝) 스님이 제작한 불상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밝혀진 불상이다. 조초는 헤이안 귀족들의 선호에 맞는 우아하고 세련된 일본적인 양식을 창조하고, 이것이 오랫동안 일본 불상의 전형이 되었다. 호오도에 들어와 아미타여래좌상을 가까이에서 보면 중국식이나 한국식을 떠나 일본화 된 특징을 느끼게 된다.

아미타여래좌상의 뒤에는 화려한 광배가 있고, 광배 위로는 화려하고 큰 닫집이 있다. 불상은 물론이지만 그 닫집 자체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가로 약 5미터인 방형(方形) 닫집 안에 또 직경 약 3미터인 동그란 닫집이 있는 이중 닫집이다. 나무를 투조(透彫)라는 조각법으로 섬세하게 깎고 거기에 옻칠, 나전, 금박을 가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크고 화려한 닫집이 정말 드물다.

아미타당 벽에는 운중공양보살상(雲中供養菩薩像)이 걸려 있다. 52구 있는 가운데 그중 26구는 봉상관(鳳翔館)에 전시되어 있어서 더 가까이에서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모두 다 구름을 타고 조용히 합장하기도 하고, 즐겁게 춤추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등 아미타 정토의 다양한 보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좌상의 높이 40~72cm, 입상의 높이 62~87cm인 운중공양보살상의 섬세하고 세련된 조각에서 조초가 목조 기법 발달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공을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목조 불상이 통나무로 만든 것이 기본이었는데,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것을 극복한 기법이 목재를 결합함으로써 제작하는 '요세기 즈쿠리(寄木造)'라는 목조 기법이었다. 요세기 즈쿠리 기법은 7세기 목조상에도 이용되었으나 이것을 세련된 기법이라는 수준까지 높인 사람이 조초이었다.

내가 개인적으로 뵤도인 답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운중공양보살상과의 만남이다. 방문하면 자세히 보고 가장 좋아하는 보살상을 골라보는 것도 좋겠다.

2001년에 개관한 뵤도인 보물관인 봉상관이 현대식 멋진 건물인데 뵤도인 주인공인 호오도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호오도 뒷쪽으로 눈에 띄지 않게 세워져 있다. 거기서 운중공양보살상을 비롯한 국보 범종, 국보 금동 봉황상 등 뵤도인 대표적인 보물들을 상설전시로 만나볼 수 있다. 봉상관이라는 이름은 뵤도인의 상징인 봉황이 미래를 향해 비상할 것을 기도해 지어졌다. 과거,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귀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책임을 지겠다는 뵤도인의 강한 의지를 봉상관이라는 명칭으로 알 수 있다.

글 · 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빗속에서

지나간 것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기에 삶은 늘 그것들로부터 시작하는가. 빗줄기에 몸 하나 젖는 일에도 생각은 천 가지가 넘으니 지나간 것들이여,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기에, 빗줄기 하나하나 내리는 소리마다 같은 것이 없는가. 빗줄기가 가둔 처마 밑 땅 한 칸에서 오늘이 그렇게 또 가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⑮ 왕의 신통력

백성 향한 지극한 마음이 보인 공덕

금강취(金剛聚)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왕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칠보로 된 일산이 나타나 태어날 아기 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하와 나라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저 보배 일산은 전륜성왕의 징표다. 훌륭한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나려나봐."

달이 차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몸은 자금색이요, 머리칼은 검푸른 빛이었습니다. 아기 몸에서 광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다. 전륜성왕이 될 왕자야. 왕자님 만세다!" 나라의 신하들과 온 백성이 왕자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왕은 먼저, 예언자를 불러 왕자의 앞날을 물어보았습니다. "대왕님. 왕자님은 수미산 남쪽 염부제를 덕으로 덮을 만한 일을 하시겠습니다."

예언자의 말에 왕과 신하와 온 궁중이 기뻐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온 국민이, 환호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왕은 온 국민이 기대를 모은 이 왕자를 '찰라가리(刹羅伽利)'라 이름지었습니다. 세상을 덕으로 덮는다는 뜻이었지요.

왕자는 자라서 부왕을 뒤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찰라가리 왕은 우선 백성의 형편을 살피기로 하고, 신하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마을에는 농민들이 논밭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 백성들이 저렇게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구나. 저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는 없을까?'

왕은 손을 모으고, 조용한 목소리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내가 지은 복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거든, 저 백성들에게 곡식이 넉넉하게 주어져, 땀 흘리지 않게 되소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라 백성의 곡간에 여러 가지 곡식이 그득하게 찼습니다. 왕이 지은 복이라지만 시실은 그 시대의 부처님 도움이었습니다. 그 때에도 부처님이 계셨거든요. 땀 흘리던 백성들이 찰라가리 왕을 향해 "위대한 우리 대왕님 고맙습니다"라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왕은 백성의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집집마다 부인들이 방아를 찧고 있었습니다.

'저 부녀자들은 아기 키우고 밥 짓기만 해도 바쁘다. 방아질까지 하는구나. 저들의 방아질 하나만이라도 수고를 덜어줄 수는 없을까?'

왕은 다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내가 지은 복으로 저들의 곡간에 쌓인 곡식이 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쌀이 되어 부녀자들 수고를 덜게 되소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라 백성의 곡간에 그득했던 곡식이 모조리 쌀이 되었습니다. 왕이 지은 복이라지만 시실은 부처님 도움이었습니다. 한 곳을 둘러보았더니 부인들이 베를 짜고 있었습니다.

'저 부녀자들은 아기 키우기만 해도 바쁘다. 저렇게 힘들여 길쌈을 하는구나 길쌈하는 수고를 덜어주자' 하고 왕은 다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림 · 강병호

"내가 지은 복으로, 나무에 옷이 열리게 되소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무에 옷이 열렸습니다. 남자 옷이 열리는 나무, 여자 옷이 열리는 나무, 아기 옷이 열리는 나무. 한 가지씩 옷이 열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옷이 열리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부녀자들이 옷 걱정, 바느질 걱정까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한 바퀴 돌아본 왕은 백성들이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즐기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악기가 열리게 했습니다. 거문고가 열리는 나무, 피리가 열리는 나무, 퉁소가 열리는 나무, 여러 가지 악기가 모두 열리는 나무가 있게 했습니다. 찰라가리왕은 신통력을 가진 대단한 임금으로 이웃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왕은, 자신이 북을 치는 같은 시간에 온 나라 군사와 궁중 사람들 앞에 맛있는 음식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다른 어느 요리보다 맛있는 궁중 요리였습니다. 금강취 나라 사람들은 좋은 임금님 덕택에 땀 흘리지 않고 음악을 즐기며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범천 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금강취 나라, 부왕이 계실 때에 우리 범천 나라에서 하나의 강과 그 일대의 땅을 떼어서 드린 일이 있지요. 이제 부왕이 돌아가셨으니 그 땅을 돌려줬으면 합니다."

사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럼, 범천 나라 대왕과 회담을 가져야겠군요."

찰라가리왕이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강 복판에 배를 띄워놓고 두 왕이 배 안에서 만났습니다. 양쪽 강둑에 두 나라 군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범천 나라 왕은 그만, 찰라가리왕의 위엄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몸이 자금색이네. 머리칼은 유리처럼 반짝거리네. 눈빛에서 자비심이 보이는 걸….'

범천왕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심 때가 되자, 찰라가리 왕이 북을 쿵! 울렸습니다. 그러자. 보배 밥상에 가득가득 차린 음식이 그득 나타났습니다.

기가 질린 범천왕은 밥을 먹을 생각을 못하고, 말했습니다. "찰라가리 대왕님, 내 생각을 취소합니다. 하나의 강과 강에 딸린 국토를 돌려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범천국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왕님은 수미산 남쪽 세계, 염부제를 모두 거느리는 전륜성왕이 되십니다."

이 말을 마치자 하늘에서 전륜성왕의 징표인 보배바퀴(輪寶)가 나타나 찰라가리 왕 옆에 놓였습니다. 찰라가리왕은 왕 중의 왕인 전륜성왕이 되어 염부제 여러 나라를 가족처럼 돌보게 되었습니다. 전륜성왕 찰라가리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전신이었대요.

〈경률이상 24권, 전륜성왕 열전, 개사왕 편〉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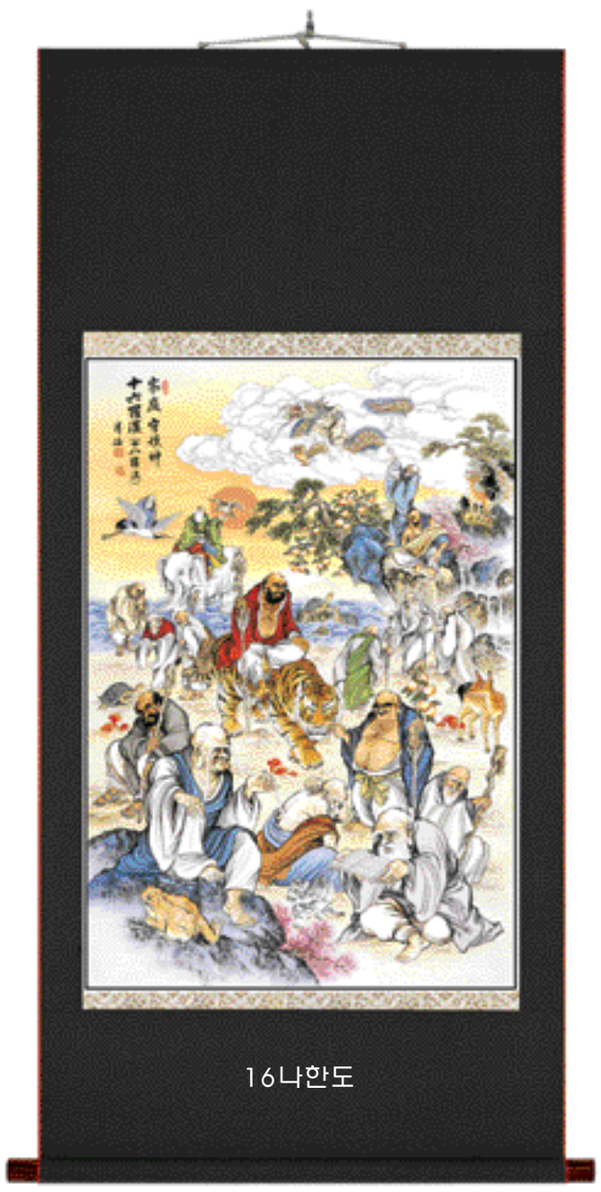
16나한도(18나한) 달마도 족자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그 림 만 : 70㎝ × 폭 44㎝ | ■ 판매가 : 각 70,000원
■ 족자포함 : 120㎝ × 폭 54㎝ | ■ 판매가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16나한도



달마도

●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현불샵 ☎ 02)2004-8213, 010-6701-7709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